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를 위한

중국인 주요방문지

스토리북

专为中国游客准备的韩国故事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를 위한
중국인 주요방문지
스토리북
专为中国游客准备的韩国故事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를 선정하여 책자에 실었습니다. 또한 국문과 중문(간체)를 양면에 동시에 배치하여, 중국어 관광 통역안내사들이 실제 관광안내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편집/디자인 디자인수목원

비매품 중국인 주요방문지 스토리북

목차 目录

들어가는 말
PAGE 02



1
경복궁
景福宮
PAGE 10



2
창덕궁
昌德宮
PAGE 48



3
남산골 한옥마을
南山谷韓屋村
PAGE 78



4
북촌한옥마을
北村韓屋村
PAGE 88



5
수원화성
水原華城
PAGE 98



6
불국사
佛國寺
PAGE 134



7
석굴암
石窟庵
PAGE 154

일반정보
PAGE 176





경복궁 교태전 아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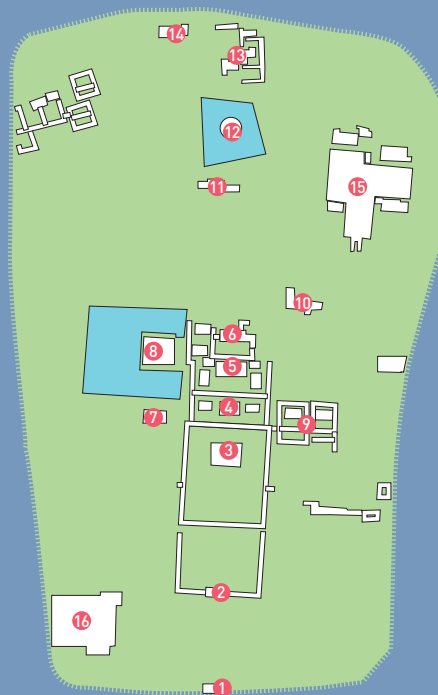
흥례문

1 조선 건국과 함께 창건된 정궁 경복궁 随朝鲜建国而修建的正宫 景福宫

경복궁은 조선의 건국와 함께 창건된 정궁입니다.
27대 왕, 519년의 사직을 이은 조선의 영욕성쇠가 그대로 서려있는
역사적 공간이면서 조선의 철학과 이념,
예술적 심미안이 투영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景福宫是随着朝鲜的建国而修建的正宫，
承载着朝鲜王朝前后27代君王共519年的荣辱兴衰，
鲜明地体现出朝鲜时代的哲学、理念及艺术审美观念。

-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 경복궁 매표소까지 약 200m 도보)
- ☎ 경복궁 관리소 02-3700-3900
- 🌐 www.royalpalace.go.kr (英)



- | | |
|-------|------------|
| 1 광화문 | 9 동궁 |
| 2 흥례문 | 10 자경전 |
| 3 근정전 | 11 집경당 |
| 4 사정전 | 12 향원정 |
| 5 강녕전 | 13 건청궁 |
| 6 교태전 | 14 집옥재 |
| 7 수정전 | 15 국립민속박물관 |
| 8 경회루 | 16 국립고궁박물관 |
-
- | | |
|-------|------------|
| 1 光化门 | 9 东宫 |
| 2 兴礼门 | 10 慈庆殿 |
| 3 勤政殿 | 11 缉敬堂 |
| 4 思政殿 | 12 香远亭 |
| 5 康宁殿 | 13 乾清宫 |
| 6 交泰殿 | 14 集玉斋 |
| 7 修政殿 | 15 国立民俗博物馆 |
| 8 庆会楼 | 16 国立古宫博物馆 |



이성계 어진

서울은 약 500년 동안 조선(1392~1910)의 도읍지이자,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전 왕조인 고려의 수도 개경이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한양(현 서울, 漢陽)을 새 왕조의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이란 임시기구를 설치해 궁을 창건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1395년에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서울에 지어진 조선시대의 궁궐 다섯 곳(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궁입니다. 경복궁이란 이름은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지었습니다.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성리학자입니다.

그는 <시경> '주아'에 나오는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니 군자 만년에 복이 빛나리라(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는 구절 중 끝에 있는 두 글자를 따서 경복궁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복은 '길이가 길고 크게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새로 세운 조선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추천코스



광화문 → 흥례문 → 영제교 → 근정전 → 사정전 → 경회루 → 강녕전 → 교태전 → 자경전 → 향원정 → 건청궁 (약 1시간~1시간 30분 소요)

경복궁은 넓기도 하지만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 관람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드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며 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인 광화문에서 시작해 북쪽의 건청궁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회루는 4~10월까지 특별관람을 실시합니다. 관람시간은 10:00, 14:00, 16:00(주말 11:00 추가)이며, 인원은 매회 선착순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80명)을 통해 예약하며, 외국인에 한해 전화예약(20명)도 가능합니다.



首尔是朝鲜王朝(1392~1910)五百年的都城,也是其政治、经济及社会的中心。朝鲜的开国君王太祖李成桂(1335~1408)认为前一个王朝高丽的首都开城的寿命已尽,遂将新王朝的都城定在了汉阳(即今天的首尔)。因为首尔位于韩半岛的中心地带,且拥有南汉江和北汉江的便利水运,具有统治整个韩半岛的最佳地理条件。

李成桂在就位的第三年即1394年设立了名为“新都宫阙造成都监”的临时机构,开始修建宫阙,并于次年即1395年完工。此宫阙即为景福宫,堪为首尔朝鲜五大宫(景福宫、昌德宫、昌庆宫、德寿宫、庆熙宫)之首。

景福宫是由郑道传(1342~1398)命名的。郑道传是一位性理学者,曾帮助太祖李成桂建立朝鲜,立下了卓越功勋。他取了《诗经》“既醉于酒,既饱以德,君子万年,介而景福”的诗句中最后的“景福”两字作为宫名。“景福”意为“长长久久、大福大贵”,蕴含着祈愿新建立的朝鲜繁荣昌盛之意。

推荐路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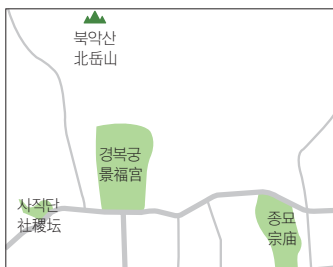
光化门 → 兴礼门 → 永齐桥 → 勤政殿 → 思政殿 → 庆会楼 → 康宁殿 → 交泰殿 → 慈庆殿 → 香远亭 → 乾清宫 (需1~1.5小时)

景福宫面积较大且殿阁众多,如果不事先设定参观路线,不免费时费力。为了可以对景福宫有一个全面正确的了解,建议从正门即光化门出发,逐渐走到北侧的乾清宫。庆会楼每年的4~10月为特别参观时期,参观时间为10:00、14:00、16:00(周末增加11:00时段),人数限100人以下。可通过官网(80人)和外国人专用预约电话(20人)提前预约。

건물 배치

경복궁을 관람하기 전에 궁궐의 건물 배치 원리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궁궐 내 구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각 건물이 어떤 원리로 위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을 지을 때 건물의 배치는 중국 고전인 <주례>, <예기>, <의례>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경복궁은 북쪽의 북악산을 기준으로 궁궐을 남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고, 그 뒤에 시가지를 형성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를 전조후시(前朝後市)라 합니다. 궁궐의 왼쪽에는 왕실 조상의 사당인 종묘(宗廟)를, 오른쪽에는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社稷壇)을 두었습니다. 이는 좌묘우사(左廟右祠)라 불렀습니다.



Did you know?



일본에 의한 경복궁의 수난 조선은 1910년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그 후로 모진 수난을 당했습니다. 경복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경복궁의 전, 당, 누각 등 4천여 칸에 달하는 궁궐 건축물들을 활어 민간에 팔았습니다. 1917년에는 창덕궁 내전에서 발생한 화재를 핑계로 교태전, 강녕전 등 10여 개의 전각을 멋대로 철거해 창덕궁의 대조전, 회정당을 복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문인 광화문도 건존문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의 정기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근정전 앞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청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1910~1945) 동안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 및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최고 기구입니다. 이 건물은 199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자선당 자리에는 석조건물을 세우고, 건청궁 자리에는 미술관을 지어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建筑格局

在参观景福宫之前，最好对其建筑格局的原理有个全面的认识。这将有助于我们了解宫中各区域的划分方法以及各建筑所在位置的理由。在景福宫修建过程中，建筑格局的安排遵循了《周礼》、《礼记》、《仪礼》等中国古典书籍。景福宫以北侧的北岳山为倚靠，宫阙坐北朝南，在其后形成城市街道，名曰“前朝后市”。宫阙的左侧为王室祠堂“宗庙”，右侧则为祭祀土神与谷神的“社稷坛”，此为“左庙右祠”。

Did you know?



日本对景福宫的破坏 朝鲜于1910年被日本剥夺了国家主权，之后便经历了无数浩劫。景福宫也未能幸免。日本人将景福宫总规模达4,000余间的殿堂楼阁拆毁并转卖至民间，并以1917年昌德宫内殿的火灾为由，肆意将交泰殿、康宁殿等10余座殿阁迁移至昌德宫，用于昌德宫大造殿和熙政堂的复原。正门光化门也被迁至建春门的北侧。为了切断朝鲜的气脉，日本人在勤政殿前建立了朝鲜总督府。朝鲜总督府是日本在帝强占期（1910~1945）以殖民统治及剥削为目的而在韩国树立的最高机构。此建筑于1995年被拆除。另外，日本人还肆意将资善堂所在的位置建起石雕，在乾清宫所在地建起美术馆，将景福宫庄严肃穆的面貌破坏得荡然无存。

궁궐 내 각 건물의 배치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나눴습니다. 나랏일을 보기 위한 건물은 정면에서 마주 보았을 때 앞에 위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은 뒤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전조후침(前朝後寢)이라 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궁궐의 가장 중심에 나랏일을 보는 정전을 세우고, 그 주위를 회랑으로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정전 뒤에는 왕과 왕비의 거처인 내전을 두었습니다. 이어 왕이 휴식을 취하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공간인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궁궐을 꾸미는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문삼조(三門三朝)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궁궐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3개의 구역이란 조정의 관리들이 업무를 보는 행정관청 구역인 외조(外朝),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행하는 정전과 편전 구역인 치조(治朝),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침전이 위치한 구역인 연조(燕朝)를 말합니다. 세 구역은 회랑과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이나 남북으로 문이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 정문인 광화문(光化門)을 중심으로 근정전(勤政殿), 사정전(思政殿), 침전(寢殿)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경복궁의 역사

경복궁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규모가 현재보다 작았습니다. 근정전(勤政殿), 근정문(勤政門), 강녕전(康寧殿), 연생전(延生殿) 등 390여 칸의 규모였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더해져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궁궐내 건축의布局按照办公领域和私人领域来划分。用于处理朝政的殿阁建在正中，面向前方，而用于日常生活的房屋则建于后方，名曰“前朝后寝”。以此为基准，在宫阙的正中心建造处理朝政的正殿，周围环绕层层回廊。正殿后方是君王与王后的住处即内殿。这里还建有供君王颐养身心的庭院。

另外，修建宫阙还需遵循一个原则，即“三门三朝”。由此宫阙被分为三大区域，即外朝——朝廷官吏处理事务的行政官厅区域；治朝——君王与臣下讨论朝政的正殿与偏殿区域；燕朝——君王与王后生活的寝宫区域。三个区域各自建有回廊与院墙，看似彼此独立，其实各有大门相连。以景福宫的正门“光化门”为起点，勤政殿、思政殿和寝宫从南向北成一字排列。

景福宫的历史

景福宫在最先建成时规模并没有今天所见的这般宏大，当时建成的有勤政殿、勤政门、康宁殿和延生殿等殿阁，总规模约为390余间。之后随着新殿阁的不断修建，其规模也渐渐壮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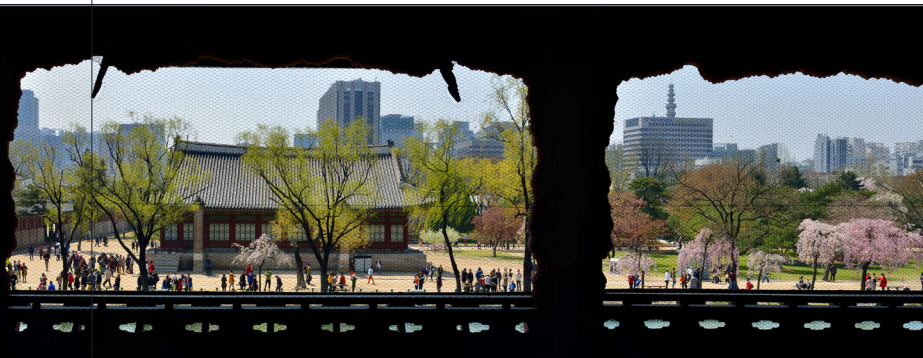
제 3대 태종(太宗, 1367~1422) 때 경회루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연못을 넓게 파고 2층 누각을 지어 왕과 신하가 모여 잔치를 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연못을 조성하면서 파낸 흙으로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交泰殿) 뒤편에 아미산이라는



경회루에서 바라본 경복궁 전경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제 4대 세종(世宗, 1397~1450) 때에는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集賢殿)을 두었고, 경회루 남쪽에 시각을 알리는 보루각을 세웠습니다. 강녕전 서쪽에는 천문관측소인 함경각(欽敬閣)을 지었습니다. 1553년에는 강녕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정전 북쪽의 전각까지 소실되었습니다. 이듬해에 강녕전을 비롯해 교태전, 연생전, 함경각, 사정전(思政殿) 등을 복구했습니다. 경복궁의 가장 큰 피해는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때 일어났습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경복궁 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창덕궁, 창경궁 등 다른 궁궐도 화재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경복궁 복구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제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제 26대 고종(高宗, 1852~1919) 대에 이르러서야 경복궁이 중건되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은 외척들의 발호와 외세의 침략으로 실추된 왕실의 위상을 확립하고, 조선왕조를 부흥시키려는 의도에서 경복궁 중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고종 5년(1865) 4월에 시작된 공사는 1868년 7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었기에 공사는 계속되었고, 1872년이 되어서야 경복궁 중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第3代君王太宗(1367~1422)对庆会楼进行了扩建。将池塘拓展,并建造了2层楼阁,供君王与臣下召开宴会或接待外国使臣之用。修建池塘时挖出的泥土堆积在王后的寝宫“交泰殿”后方,并修整出名为“峨眉山”的庭院。第4代君王世宗(1397~1405)修建了学术研究机关“集贤殿”,并在庆会楼南侧竖立起用于报时的“报漏阁”。另外还在康宁殿西侧建造了用于天文观测的“钦敬阁”。

1553年,康宁殿发生火灾,连勤政殿的北侧殿阁也惨遭烧毁。次年重新修复了康宁殿、交泰殿、延生殿、钦敬阁和思政殿等殿阁。而在壬辰倭乱(1592~1598)期间,景福宫遭到了最大规模的破坏。倭寇在侵入景福宫后将整个宫阙烧毁殆尽。昌德宫和昌庆宫等其他宫阙也难以幸免。在战争结束后,景福宫的复原工作虽然多次被提上议程,但始终没有破土动工。

直到第26代君王高祖(1852~1919)时期,开始对景福宫进行增建。高宗之父兴宣大院君李昰应(1820~1898)为了重整因外戚的跋扈和外国的侵略而深受重创的王室威严,复兴朝鲜王朝,将全部精力投入到景福宫的增建工程之中。工程自高宗5年(1865年)4月开始,进行至高宗8年7月时已初见规模,高宗也从昌德宫重新回到景福宫。但工程仍在继续进行,直至高宗12年,景福宫的增建工程才大获完工。

현재 경복궁에 남아 있는 건물들은 본래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 일본이 건물을 부수고 조선총독부를 세우는 등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6·25전쟁(1950~1953) 때 포격으로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89동의 건물을 복원하였고,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경복궁 전각을 76%까지 복원할 계획입니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경복궁에 대해 대략의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궁궐을 탐방하겠습니다.
경복궁 탐방은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경복궁을 창건할 당시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등을 지어 궁궐의 기본구조를 먼저 갖추고, 1399년 그 둘레에 궁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 서, 남쪽에 성문을 세웠습니다. 동문을 건춘문(建春門), 서문을 영추문(迎秋門), 남문을 광화문(光化門)이라고 합니다. 이 중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돌로 높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중층의 문루를 세웠습니다. 마치 성곽의 성문과 같이 견고하고 웅장하게 건축되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동물 형태의 커다란 석상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해치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빨리 받거나 문다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원래 관리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사헌부를 상징해서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었던 사헌부 건물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래의 해치는 없어지고 경복궁을 복원할 때 새로 조각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광화문 앞으로 옮겨왔고, 다시 광화문 앞 도로를 넓히면서 지금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해치는 해태(獬豸)라고도 불리며,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령스런 동물로 여겨 궁궐 등에 장식했습니다.

据说今天的景福宫建筑不过原来的十分之一。在日帝强占期（1910~1945），日本人在宫中摧毁原有殿阁，建造朝鲜总督府，使景福宫受到严重损毁。在6.25战争（1950~1953）中，很多建筑遭到炮轰而灰飞烟灭。韩国政府在1991年至2010年复原了宫中的89栋建筑，预计从2011年至2025年将对景福宫中76%的殿阁进行复原。

景福宫的正门——光化门

以上是对景福宫的大致介绍，接下来正式参观景福宫，让我们首先从光化门开始看起。

景福宫的建设是先修建了勤政殿、思政殿、康宁殿等主要宫殿后，再于1399年筑起宫墙的。同时在东、西、南三个方向修建了宫门。东门是建春门，西门是延秋门，而南门就是光化门。光化门是景福宫的正门，在石头筑起的高台上矗立着宏伟的门楼，犹如城郭的城门般坚固庄严。

光化门前矗立着两尊庞大的动物石像，这种动物叫做獬豸。獬豸是一种传说中的神兽，可以消灾免祸，因此其石雕在宫殿建筑中十分常见。据传当它见到做坏事的人，就会用头上的角去顶撞或者用利齿去撕咬，因此也用来象征着对官吏的不正之风进行管理的司宪府。景福宫前的两只獬豸原本摆放在今天世宗文化会馆所在地即原司宪府之前。但当时的獬豸早已不知去处，在景福宫复原时重新雕刻了两只獬豸，并在日帝强占期被移至光化门前，后来随着光化门前道路的拓宽，最终矗立于现在的位置。





문루 아래 기단석축에는 세 개의 홍례문이 나 있습니다. 가운데 문은 왕과 왕비, 동쪽 문은 문신, 서쪽 문은 무신들이 출입하였습니다. 홍례문 천장에 그려진 그림도 각각 다릅니다. 가운데 문 천장에는 하늘을 나는 주작, 동쪽 문 천장에는 구름 속을 나는 기린, 서쪽 문 천장에는 파도를 헤쳐 가는 거북이 그려져 있습니다.

광화문을 들어서면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궁궐의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가 머물던 곳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 맞은편에 보이는 커다란 문은 홍례문(興禮門)입니다. 궁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헐렸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고 2001년에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홍례문을 지나면 영제교(永齊橋)라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면 정전인 근정전으로 통하게 됩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은 금천(禁川)이라고 합니다. 왕의 공간과 백성의 공간을 가르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근정전에 들어가는 신하들에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리를 살펴보면 뿔 달린 짐승이 보이는데, 이것은 잡귀를 물리치는 수호동물입니다.

Did you know?



정궁과 이궁 경복궁이나 서울의 궁궐을 관람하다보면 법궁(法宮), 정궁(正宮), 이궁(離宮)이란 설명을 듣게 됩니다. 법궁은 정궁을 말합니다. 정궁은 왕과 왕비가 사는 궁궐입니다. 육궁이라 해서 왕의 침전(정궁), 왕비의 침전(중궁), 왕세자의 침전(동궁), 대비의 침전(서궁), 후궁 및 세자빈의 침전(빈궁) 등이 다 갖춰져야 정궁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궁은 정궁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궁궐입니다. 정궁의 보조역할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은 이궁이기 때문에 육궁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在门楼之下的石筑基台中间开有三个虹霓门(即拱形门洞)。中间的门供君王与王妃通行,东、西侧的门分别供文臣和武臣出入。三个门洞顶上的图画也各不相同。中间描绘着飞翔在空中的朱雀,东边描绘着云雾中的麒麟,而西边则描绘着踏浪的乌龟。

穿过光化门,眼前出现宽阔的广场。这里是守护宫阙的士兵们的驻扎地,相当于今天总统的警卫室。广场对面的大门名为兴礼门,是通向宫中的第二道门。在日帝强占期,曾将此门拆毁,建立了朝鲜总督府。通过景福宫复原工程,拆除了朝鲜总督府,于2001年重新恢复为原来的样子。

走过兴礼门,就来到永齐桥。桥对面即通向正殿——勤政殿。桥下的水名为“禁川”,将君王与百姓所处的空间隔离开来,同时也警示前往勤政殿的臣下们审视自己的言行举止,另外还起到阻拦邪气的作用。桥上雕有长角的动物形象,此为驱散牛鬼蛇神的守护神兽。



금천교



영제교 수호동물



홍례문 앞 수문장 교대식

Did you know?



正宮與離宮 在首尔参观景福宫等宫阙时,导游说明中经常会出现“法宫”、“正宫”、“离宫”等字样。法宫即为正宫,而正宫就是君王与王妃所在的宫阙。正宫必须具备六宫,即君王的正宫、王后的中宫、王世子的东宫、王太后的西宫、后宫的嫔宫和世子妃的嫔宫,而景福宫正与这样的规格相符。离宫是为了防范正宫发生万一无法居住而修建的,可以说是正宫的辅助建筑。世界文化遗产昌德宫就是一座离宫,因此并不具备六宫的规格。



경복궁의 정전 근정전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정문을 지나야 합니다. 근정문에는 세 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가운데 문이 왕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동쪽 일화문(日華門)은 문신이, 서쪽 월화문(月華門)은 무신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문 이름에 태양을 뜻하는 일(日)과 달을 뜻하는 월(月)자가 있어 일화문은 낮에 출입하는 문, 월화문은 밤에 출입하는 문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음양의 이치에서 양(陽)에 속하므로 동쪽문의 이름으로, 달은 음(陰)의 성격을 띠므로 서쪽 문의 이름으로 택한 것입니다.

근정문 뒤로 웅장한 근정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복궁의 정전(正殿)이지요. 왕은 여기서 신하들의 아침 조회를 받고, 정령(政令)을 반포하고,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의 즉위식, 왕세자 책봉의식 등 왕실의 중요 의식이나 관리 임용식 등도 정전에서 치러졌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건물입니다.

근정전 앞 넓은 공간을 보세요. 가운데 삼도(三道)라는 세 길이 있습니다. 가운데 길이 양쪽의 길보다 약간 높습니다. 가운데 길은 왕이 다니는 어도이고, 양쪽의 길은 신하가 다니는 길입니다. 삼도 양 옆으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돌들이 세로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품계석(品階石)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원의 등급을 종구품부터 정일품까지 18단계의 품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품계석은 관원이 각자의 품계에 따라 자리를 찾아 설 수 있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볼 때 동쪽에는 문관, 서쪽에는 무관이 위치합니다. 품계석 옆에 놓인 커다란 쇠고리는 궁 안에서 의식을 행할 때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차일을 칠 경우 끈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景福宮의 正殿——勤政殿

在进入勤政殿之前，先要经过勤政门。勤政门设有三个入口，中间为君王专用，左侧的日华门供文臣通过，右侧的月华门供武臣出入。因为门的名称为象征着白天的“日”和象征着夜晚的“月”，因此也有人误以为日华门是白天开放的门，而月华门则在夜间开放。但其实日月之名源于阴阳理论，太阳属阳，象征着东方，而月亮属阴，象征着西方，因此东门名为“日华门”，西门则名为“月华门”。

勤政门的后方矗立着雄壮的勤政殿。勤政殿是景福宫的正殿，堪为众殿之首。君王在此早朝，接受臣下的参表，下达命令，另外也在此接待外国使臣。君王即位、王世子册封等王室的重要仪式及官吏的委任仪式也都在这里举行。

请看正殿前的空地。中间铺设着三条道路，名为“三道”。中间的道路比两侧的略高，此为君王专用的“御道”，而两侧的道路则供臣下行走。三道的两侧竖立着一块块四边形的石头，此为“品阶石”。朝鲜时代官员从正一品至从九品，共分为18个等级。品阶石上刻有官阶，便于官员们各就其位。从君王的角度望下去，东边为文官，西边为武官。品阶石旁置有大型铁环，作为在宫廷仪式中撑起顶篷遮阳挡雨时拴绳子的环锁之用。



박석

품계석 주위에는 다듬지 않은 돌인 박석(薄石)이 깔려 있습니다. 박석이 깔린 넓은 공간을 조정(朝廷)이라 합니다. 왕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곳이란 뜻으로 정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정의 바닥을 보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로 깔면 보기도 좋고 편리할 텐데 왜 가공하지 않은 박석을 바닥에 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신하들에게 바닥에 반사된 햇빛은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박석은 햇빛의 반사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걸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리의 공명효과도 있어 왕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
근정전 가까이 접근하면 2층으로 된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 가운데에 무늬를 새겨 넣은 넓직한 돌이 보이나요. 답도(踏道)라는 것입니다.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왕이 직접 밟고 오르는 게 아니라 왕이 탄 가마가 지나는 길입니다. 답도에 조각된 문양은 봉황입니다. 봉황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 나라가 태평성대하면 나타난다는 상상의 새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나타나는 넓은 바닥을 월대라고 합니다. 정전과 같이 중요한 전각 앞에 있는 넓은 마당입니다. 사각으로 축조하였고, 지붕이나 다른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달을 바라본다’ 하여 월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건물의 위치를 높여 더욱 크고 웅장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층으로 된 월대 중 아래에 있는 것을 하월대, 위에 있는 것을 상월대라 부릅니다. 궁중에서 하례·가례와 같은 잔치가 있을 때 악사들이 반주를 하거나 무희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근정전

品阶石的四周铺设着未经打磨的薄石。铺设着薄石的空地即为“朝廷”。朝廷即为政府，是君王与臣下议论社稷执行政令的地方。朝廷的地面凹凸不平，也许有人会说，为什么不用光滑好看的大理石或花岗岩，却偏要铺设未经打磨的薄石呢？原因有如下几点：首先，对于在君王面前必须低头的臣下来说，地面反射的阳光是一种折磨，而薄石则有阻挡阳光反射的功能；其次在行走时还可以防止滑倒；另外还具有共鸣效果，可以有效传播君王的声音。

●
走近勤政殿，可以看到上下两段台阶。台阶的正中为雕刻着图案的宽阔石面，名为“踏道”，这是君王专用的道路，但并非君王亲自步行而过，而是供君王乘坐的御轿通过。踏道上雕刻着凤凰，凤凰是一种吉鸟，象征着“明君降临，太平盛世”。

登上台阶后，出现在眼前的平地名为“月台”。月台是设于正殿等重要殿阁前的宽阔地面，呈四边形，不设屋顶及其他设施。取在此地望月之意而名为“月台”。月台将殿阁抬高，令其更显庄严雄壮。月台共分2层，下层为“下月台”，上层则为“上月台”。在宫廷举行贺礼及嘉礼等宴会时，乐师或舞者会在这里演奏或表演舞蹈。

월대에는 왕을 보호하는 동물들이 사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근정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계단에 사방신(좌 청룡, 우 백호, 남朱雀, 북 현무)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들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월대를 빙 둘러 십이간지에 해당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열두 동물 중에 개와 돼지는 상스러운 짐승이라 여겨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근정전 양 옆에 놓인 청동항아리도 주목해 보세요. 향로처럼 생겼지만 왕권을 상징하는 정(鼎)입니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대한제국의 정궁인 경운궁(덕수궁)의 정전에만 있어 다른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월대 동쪽 계단 옆에는 쇠로 만든 ‘드므’라는 독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소화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므에 담아 놓은 물로 불을 끌 수는 없지만, 화마가 드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 달아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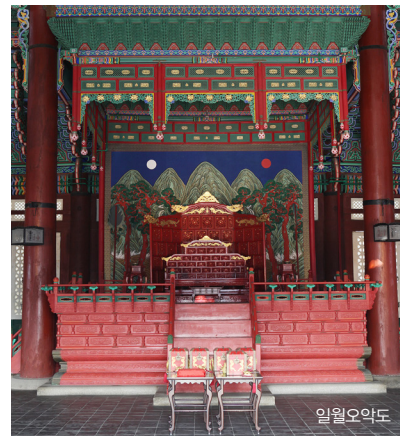
이제 근정전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2층 건물로 보이지만 내부는 아래위층이 트인 1층입니다. 천장을 높게 만든 것은 왕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닥은 온돌이 아니라 전돌을 깔았습니다. 생활공간이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앉는 용상을 제외하고는 의자도 없습니다. 용상 뒤로 보이는 그림은 ‘일월오악도(日月崑崙圖)’입니다. 청록색의 다섯 봉우리 위로 해와 달이 있고, 두 줄기 폭포, 붉은 소나무, 푸른 물결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그림은 왕실의 번영과 발전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늘의 해는 왕, 달은 왕비, 다섯 봉우리는 조선의 땅, 푸른 소나무는 충신, 푸른 물결(바다)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닥에 놓인 작은 상은 근정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사관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月台的四方摆放着守护君王的动物雕像。以勤政殿为中心，东西南北四方的石阶上竖立着“四方神(左青龙、右白虎、南朱雀、北玄武)”。

这些神兽将驱除接近正殿的牛鬼蛇神。围绕着月台还设置着对应着十二支的十二生肖，用以象征忠诚于君王的百姓。但十二生肖中的狗和猪被视为粗鄙的禽兽，因此没有被设置。

请仔仔细看勤政殿两边的青铜缸。看似香炉，其实是象征着王权的鼎。鼎只出现在朝鲜王朝的正宫——景福宫以及其后大韩帝国的正宫——庆运宫之中，在其他宫阙中则无法看到。在下月台石阶旁设有名为“矮瓮”的铁缸，这是一种象征意义上的灭火器。虽然矮瓮中的水无法熄灭火势，但是据说火魔会被倒映在瓮中水面上的自己的样子吓跑。

接下来看看勤政殿的内部。虽然从外面看起来好像是双层结构，但其实内部是上下相通的。将天花板升高更能体现出君王的威严。殿内的地面没有铺设地暖，而是采用通体的石砖，因为这里并非起居场所，而是举办仪式之地。除君王的龙床之外，殿内不设其他桌椅。龙床后的画卷名为“日月昆仑图”，五座青绿色的山峰之上，日月升起，山中两条瀑布垂下，碧绿的松树和蔚蓝的水流鲜明可见。此画象征着王室的繁荣昌盛。天上的太阳象征着君王，月亮象征着王后，五座山峰象征着朝鲜的土地，青松象征着忠臣，而蔚蓝的大海则象征着百姓。前方地面上的小桌子供史官记录勤政殿大小事件之用。





천장 중앙에는 황금빛 용 두 마리가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은 예부터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발가락이 일곱 개여서 ‘칠조룡’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업무를 보던 사정전

근정전 뒤편 계단을 내려서서 사정문을 통과하면 편전(便殿)이 나옵니다. 편전은 왕이 평소 거처하면서 정사를 보는 곳입니다. 근정전에서 아침 조회를 마친 왕은 편전으로 옮겨와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관리들을 만나 국정을 논의합니다.

편전의 중심건물은 사정전입니다. 사정전의 이름은 태조 때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생각하고 정치하라(思政)’는 뜻으로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신하로서의 충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궁궐 건물에서 정치적 공간인 정전과 편전의 이름에는 반드시 다스릴 ‘정(政)’ 자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왕이 잠시라도 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사명을 잊을까봐 교훈을 삼도록 한 것입니다.

사정전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만춘전(萬春殿)과 천추전(千秋殿)이 있습니다. 이곳은 왕의 특별 집무실입니다. 사정전은 마루방이기 때문에 겨울에 몹시 춥습니다. 만춘전과 천추전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어 겨울에는 이곳에서 나랏일을 보았습니다. 사정전 앞에 ‘천자고’, ‘지자고’ 등의 천자문 순서로 이름이 붙은 곳은 창고입니다. 이들 창고는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勤政殿天庭의中央绘有两条金龙环绕如意宝珠升天的画面。龙自古即为王权的象征，这里绘制的龙为长着7个脚趾的“七爪龙”，用来彰显强大的王权。

君王处理朝政的思政殿

从勤政殿后面的台阶走下去，经过四正门，就来到了便殿。这里是君王平日居住及处理政务的地方。通常君王在勤政殿下了早朝，就会来到便殿，听取各个机关的政务报告或者约见官吏讨论社稷。

便殿的中心建筑即为思政殿。思政殿之名是在太宗时期由郑道传所取的。“思政”意为“先思考，后从政”，蕴含着臣下对于君王“思则得天下，不思则失天下”的中肯期盼。在韩国的宫殿建筑中，用于政事的正殿与便殿的名称中必然包含“政”字，因为君王唯恐哪怕片刻忘却了正直施政的使命，所以在殿名中加入“政”，用来鞭策自己。

以思政殿为中心，东西侧各坐落着万春殿与千秋殿，作为君王的特别职务室之用。由于思政殿没有供暖设施，在冬季非常寒冷。而万春殿和千秋殿铺设地暖，因此君王在冬季会来到此处处理政务。思政殿前贴有“天字库”、“地字库”等以《千字文》的顺序排名的地方是仓库，此仓库并不储藏粮食及杂物，而是专门用来保管活字的。



왕의 생활공간 강녕전

정전과 편전이 왕의 공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외전이라면, 침전은 왕과 왕비의 사적인 생활이 이뤄지던 내전입니다. 왕과 왕비는 같은 건물에서 살지 않고 서로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정전 뒤 향오문(嚮五門)을 통해 연결되는 강녕전은 왕의 침전입니다. 구중궁궐에서도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왕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던 곳입니다.



강녕전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는 마루방이고 좌우측에 온돌방이 있습니다. 온돌방은 우물 정(井) 모양으로 각각 6개의 방과 복도식으로 길게 늘어진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은 한가운데에 위치한 방에서 잠을 자고, 주변 방은 제조상궁(큰방상궁) 등 대령상궁(지밀상궁)들이 각각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방 배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점은 방안에 아무런 가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구는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녕전은 지붕 위에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마루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용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왕이 자는 침전 위에 용마루를 두는 것은 왕의 머리 위에 다른 왕을 둘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두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돌을 깔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 왕의 신변을 위협하는 자객이 다가와도 쉽게 알아채기 힘들습니다. 반면 모래를 깔면 미세한 발자국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왕의 안전을 고려한 장치입니다.

君王日常起居的康宁殿

正殿与便殿都是君王处理公事的外殿，而君王和王妃的私人时间则在内殿中度过。君王和王妃并不生活在一处，而是各自拥有自己的独立空间。与思政殿后方的向五门相通的康宁殿是君王的寝宫。这是宫中最幽深最隐蔽的地方，用来供君王在结束一天的政务之后享受舒适的休闲时光。

康宁殿的中间为地板房，而左右两侧则铺设地暖。地暖房呈“井”字形，由各自隔断的6个小间与走廊形成长方形。君王在最中央的小间中就寝，而提调尚宫（大房尚宫）等待令尚宫（至密尚宫）则在周围的小间中待命。这种房间结构可以在发生万一时对君王进行贴身保护。值得一提的是房间中没有摆设任何家具。因为家具有可能成为威胁君王生命的武器，所以不做摆设。

康宁殿的屋檐上没有装饰龙头，其原因没有记录可循。据猜测是因为龙是君王的象征，而在君王就寝的寝宫上设置龙头，就相当于在君王的头上压上另一个君王，这是绝对不能出现的事情。宫殿四周的沙地也是一大特征。如果铺设石砖的话，即使刺客逼近也听不到脚步声。而沙地就算走路再小心也会发出响声，可以极好地保护君王的安全。



현재의 강녕전은 1995년에 복원된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17년, 창덕궁 희정당에 화재가 발생하자 일본은 1920년에 희정당을 복원하면서 강녕전을 뜯어다 그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현재 창덕궁 희정당이 경복궁 강녕전의 건물입니다.

강녕전 동서쪽에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은 침전인 연생전(延生殿)과 경성전(慶成殿)이 있습니다. 간혹 연생전을 탄생전(誕生殿)으로 잘못 이해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곳이나 어의가 머물던 곳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왕비의 생활공간 교태전



교태전 내부



교태전 내부

강녕전 뒤에는 왕비의 생활공간인 교태전이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깊숙하고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기에 가운데 ‘중(中)’ 자를 써서 ‘중궁전’이라고도 합니다. 왕비는 중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태전이라는 명칭은 <주역(周易)>의 64괘 중 태(泰)괘에서 따온 것입니다. 태괘는 위로는 땅, 여자를 의미하는 곤(坤)이고, 아래는 하늘, 남자를 의미하는 건(乾)이 합쳐진 모양입니다. 음기가 상승하고 양기가 하강하는 형상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한 괘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교류하여 만물이 생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태전으로 들어가는 양의문(兩儀門)도 천지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现在的康宁殿是1995年复原而成的。在日帝强占期，1917年昌德宫的熙政堂发生火灾，日本人于1920年修复熙政堂时将康宁殿分解后迁移到了熙政堂所在地。因此今天昌德宫的熙政堂原本是景福宫的康宁殿。

康宁殿的正东和正西方向各有一座小的寝宫，分别名为延生殿和庆成殿。偶尔会有人把延生殿误认为是“诞生殿”，以为这里是婴儿出生或御医待命的场所，这些其实都是错误的臆想。

王妃日常起居的交泰殿

康宁殿的后方是王后生活起居的交泰殿。交泰殿位于景福宫最深的中心处，因此又名“中宫殿”，而王后也由此被称为“中殿”。

交泰殿之名出自《周易》64卦中的泰卦。泰卦中象征着土地与女子的坤在上，而象征着天空和男子的乾在下，意为阴气上升，阳气下降，是一副万事亨通的吉卦，蕴含着“天地交泰，万物生长”之意。通往交泰殿的“两仪门”也代表着“天地相融”之意。



교태전

교태전 동서쪽에는 작은 침전인 원길현(元吉軒), 함홍각(含弘閣) 등이 새의 날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태전을 돌아 함정문이란 작은 문을 들어서면 건순각(健順閣)과 후원이 나옵니다. 건순각은 왕비가 왕자나 공주를 낳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방입니다. 이름에는 ‘건강하게 순산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후원은 높은 담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궁궐에서 왕비가 자연을 벗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뒷산의 언덕 경사면에 돌로 층층이 단을 쌓아 화초와 나무를 심고 석물들을 다양하게 배치해 뜰을 꾸몄습니다. 처음 교태전을 건립할 당시에는 언덕이 없었습니다. 태종 12년(1412) 경회루 연못을 확장하면서 파낸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 중국의 명산인 아미산(峨眉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미산은 입체적인 공간구성을 위해 장대석을 1~3단씩 쌓으면서 4단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아미산의 위쪽에는 활엽수를 심고, 아래쪽에는 돌 화분 등을 배치해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했습니다.

아미산에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4개의 육각형 기둥은 굴뚝입니다. 육각형은 사각형에 비해 덜 딱딱해 보이고 볼륨감과 안정감을 주어 시각적으로 뛰어나습니다. 각 면에는 덩굴, 학, 박쥐, 봉황, 소나무, 매화, 국화, 불로초, 바위, 새, 사슴 등의 무늬를 조화롭게 배치해 장식했습니다. 이들 문양은 불로장생과 자손의 번창,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굴뚝 위에는 목조 건축물처럼 기와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연가(煙家)라는 토기를 엮었습니다. 연가에 난 구멍을 통해 연기가 빠져 나오도록 했습니다. 아미산 굴뚝은 굴뚝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탑처럼 보이는 등 후원을 장식한 멋진 조형물의 기능도 합니다.



교태전

交泰殿东西两侧的寝宫分别名为元吉轩和含弘阁，宛如鸟的翅膀般与主殿相连。绕过交泰殿，穿过名为“函靖门”的小门，就来到健顺阁与后花园。健顺阁是专为王后诞下王子或公主而特别建造的居所，其名包含着“健康顺产”之意。

后花园是在层层高墙包裹的宫中，君王和王妃亲近大自然的地方。在后山的缓坡上砌起一层层的石坛，其中种植各种树木与花草，并以石雕作为装饰。其实交泰殿在建成之初并没有这座山坡。后来在太宗12年(1412)扩张庆会楼的池塘时，将池塘中挖掘出的泥土堆在这里，砌成小山，并赋予了中国名山“峨眉山”之名。为了体现出立体感，用长台石进行了分层，每层各砌起1~3阶石台，一共分为上下4层。在山顶种植了阔叶树，下方则摆设石花盆，尽量减少了人工雕琢的痕迹。

峨眉山上还竖立着4根用红色砖墙砌成的六角形烟囱。六角形没有四角形那么生硬，看上去更加圆润安稳，具有卓越的视觉效果。每一面烟囱壁上都和谐地装饰着藤萝、鹤、蝙蝠、凤凰、松树、梅花、菊花、不老草、石头、鸟和鹿等图案，这些图案蕴含着“长生不老、子孙昌盛、邪气不侵”等意义。烟囱顶端是看似木结构的瓦檐，其上为名“烟家”的陶器。烟囱中的烟就是通过烟家上的窟窿排放至室外的。峨眉山的烟囱不仅实用，本身也是极为好看的砖塔，对后花园起到很好的装饰作用。



교태전 후원(아미산)

꽃담이 아름다운 자경전

자경전은 경복궁 창건 때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경복궁을 증건할 때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자, 고종의 양어머니인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를 위해 1867년에 지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신정왕후의 처소였기에 곳곳에 특별함이 배어 있습니다. 자경전에는 교태전처럼 아름다운 후원은 없지만 대신 꽃담에서 한국의 전통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담에는 길상(吉祥)무늬·번개무늬·바자무늬(서로 어긋나게 엮은 문양) 등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꽃담을 돌렸습니다. 오른쪽 담장 앞뒤 벽면은 화조무늬와 길상문자로 꾸몄습니다. 서쪽 담에는 밝기가 다른 두 가지 황토색 벽돌로 직선과 점선, 네모와 육각 무늬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뒤뜰에 십장생 굴뚝을 만들 때도 신정왕후를 생각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십장생 굴뚝은 담장에 붙여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너비 381cm, 높이 236cm, 두께 65cm입니다. 굴뚝에는 해, 구름, 산, 학, 거북, 사슴, 소나무, 바위 등 십장생과 포도, 연꽃 등으로 장식해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냈습니다. 둘레에는 학, 나비, 불가사리, 박쥐, 당초문 등의 무늬가 새겨진 벽돌을 배치하였습니다. 십장생은 장수, 포도는 자손의 번성, 박쥐는 부귀, 나비와 불가사리 등은 악귀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을 상징합니다. 십장생으로 굴뚝 중앙부를 커다랗게 꾸민 것은 신정왕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십장생 굴뚝



建有美丽花墙的慈庆殿

在景福宫创立之初并没有修建慈庆殿。后来在景福宫扩建时，兴宣大院君李 应为了自己政治上的支持者——高宗的养母神贞王后（1808~1890）于1867年修建了慈庆殿。神贞王后的慈庆殿在当时是王室最大的宫殿，处处都显示出与众不同的独特魅力。

慈庆殿虽然不像交泰殿那样拥有美丽的后花园，但却修建了一面装饰着韩国传统纹样的花墙。其中外墙上主要装点着吉祥纹、闪电纹和篱笆纹。东墙的前后墙面装饰着花鸟纹和吉祥纹，而西墙则采用深浅不同的两种土黄色墙砖拼出直线、虚线、四边形和六边形等多种图案。

殿后的十长生烟囱也倾尽精诚之心，显示出对神贞王后的崇敬之情。十长生烟囱紧贴墙壁而立，宛如一块影壁，宽381厘米，高236厘米，厚65厘米。烟囱壁上装饰着太阳、云朵、山峦、仙鹤、乌龟、鹿、松树、巨石等“十长生”和葡萄、莲花等图案，显示出温柔的女性美；四周则镶嵌着刻有仙鹤、蝴蝶、海星、蝙蝠、唐草纹等纹样的墙砖。十长生象征着长寿，葡萄代表多子多福，蝙蝠有富贵之意，而蝴蝶和海星等神物则可阻挡恶鬼的入侵。据考证，在烟囱的正中央装饰大幅的十长生图，表达了恭祝神贞皇后万寿无疆的心愿。



경회루 야경

경복궁의 대표 연못 경회루

경복궁에는 관람 중에 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근정전과 강녕전 서쪽에 경회루(慶會樓)가 있는 연못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건청궁(乾淸宮) 앞 향원정(香遠亭)이 있는 연못입니다.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기 위해 세운 누각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고, 태종 12년(1412)에 연못을 확장하면서 크게 증건하였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에는 바닥을 4단으로 꾸며 배석자의 품계에 따라 자리를 달리하게 하였습니다. 누각을 받치고 있는 1층 돌기둥을 자세히 보세요. 바깥쪽 기둥과 안쪽의 기둥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바깥쪽 기둥은 사각이고, 안쪽 기둥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天圓地方)’는 옛 사람들의 천체관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돌기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굵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목조건축에서 ‘민흘림기둥’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회루가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건물의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建于宫中池塘之上的庆会楼

在参观景福宫途中，有两个地方很适合停下来歇歇脚。其中之一是勤政殿和康宁殿西侧的庆会楼池塘，而另一处则是北侧乾清宫前面香远亭所在的池塘。

庆会楼是为了国家每逢喜事举办宴会而特别建立的。最初规模并没有今天这么大，在太宗12年（1412）对池塘进行了大幅扩张，并对楼阁也进行了扩建。庆会楼为上下2层，2层的地面分为4个阶段，参会者根据自己的品阶各就其位。现在来看看1层用来支撑楼阁的石柱。仔细观察就会发现，外侧的石柱和内侧的石柱形状有所不同。外侧的石柱成四边形，而内侧的石柱则成圆柱形。这体现了古人“天圆地方”的天文观。另外还可以看到石柱从上到下渐次变粗，这在韩国建筑中被称为是“缓形柱”，可以在整体上令庆会楼看上去更加庄重稳定。

왕과 왕비의 사색 공간 향원정

자경전과 교태전 사잇길의 북쪽으로 가면 연못과 정자, 나무 다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향원정이 나옵니다. 경회루가 웅장하고 남성적인 느낌이라면, 향원정은 우아하고 여성적인 분위기의 정자입니다. 왕이나 왕비 또는 왕실 가족은 이곳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즐겼습니다.

조선 제7대 세조(世祖, 1417~1468) 때 취로정(翠露亭)이란 정자를 짓고, 그 앞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은 것이 향원정의 시초입니다. 고종 10년(1873) 경복궁 북쪽에 건청궁을 지으면서 연못을 크게 넓히고, 연못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섬에는 육모지붕을 한 2층의 향원정을 세웠습니다. 정자까지는 취향교(醉香橋)란 다리를 놓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래 취향교는 건청궁 앞에서 향원정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6·25전쟁 때 파괴된 것을 복원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바꾸었습니다.



향원정 취향교

君王与王妃漫步静思的香远亭

顺着慈庆殿和交泰殿中间的道路向北走，就来到碧池亭台与小桥流水相得益彰的香远亭。如果说庆会楼彰显出雄壮的男性美，那么香远亭则展现出优雅柔美的女儿情怀。据说君王、王妃以及王室成员经常来这里悠闲漫步。

香远亭在建成之初并没有现在那么大。当时只是在香远池上建了一座名为“翠露亭”的小亭子。后来在高宗10年(1873)，随着在景福宫北侧修建乾清宫，将香远池拓宽，并在池中堆砌起小岛，岛上建造了双层六檐亭子，取名为“香远亭”，并架起一座“醉香桥”，将小岛与陆地相连接。这座醉香桥原本是位于乾清宫与香远亭之间的，但在6.25战争期间受到损毁，后日复原时迁至现在的位置。



향원정

슬픈 역사의 현장 건청궁

향원정 뒤에 보이는 건물은 건청궁입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건청궁은 궁궐 속에 있는 또 다른 궁궐입니다. 경복궁 중건이 끝난 이듬해(1873) 고종이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섭정(攝政)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보고자 지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궁궐 건축의 격식보다는 사랑채, 안채, 행랑채를 갖춘 사대부 집에 가깝습니다. 사랑채인 장안당(長安堂)에 고종이 거처했으며, 안채인 곤녕합(坤寧閣)에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가 거처했습니다.

건청궁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명성황후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등 서양 국가와 활발한 외교정책을 폈습니다.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했던 일본은 명성황후가 걸림돌이 되자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은 자객을 보내 곤녕합 옥호루(玉壺樓)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乙未事變)’이라고 합니다.

Must See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 전통 생활양식과 관련된 4,000여 점의 민속자료가 전시된 국내 유일의 민속생활사 관련 국립 종합박물관으로서 경복궁 안에 있다. 민속문화의 연구·수집·보존과 문화교육 및 생활문화 전시로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문화교육의 현장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의 전당이다. 3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자료실, 뮤지엄숍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承载着悲痛历史的乾清宫

香远亭后面的宫殿就是乾清宫。乾清宫位于景福宫的最北端，堪称是宫中之宫。在景福宫扩建工程结束后的次年（1873），高宗脱离了其父兴宣大院君李 应的摄政，开始主导政权，由此修建了乾清宫。但是乾清宫并没有遵循一般宫殿的规格，而是按照舍廊房、里房、行廊房的结构建成，更加接近于士大夫家宅的模式。其中高宗居住在名为“长安堂”的舍廊房中，而明成皇后（1851~1895）则居住在名为“坤宁合”的里房中。

乾清宫可以说是朝鲜时代最令人震惊的事件的发生地。当时明成皇后为了摆脱日本军国主义的压力，正在与俄罗斯等西方国家进行活跃的外交往来。对于想利用朝鲜作为踏板进攻大陆的日本来说，明成皇后无疑成为必须清除的绊脚石。于是，在1895年10月8日清晨，日本派出刺客，在坤宁合的玉壶楼将明成皇后残忍地杀害，并放火将尸身烧尽。这就是历史上的“乙未事变”。



Must See



国立民俗博物馆 位于景福宫内的国立民俗博物馆是展示韩国的传统生活方式的地方，这里展示着相关的近4,000件民族资料，是韩国唯一全面展示民俗生活历史的国立综合博物馆。馆内有3个常设展示室和2个计划展示室，资料室、纪念品商店等配套设施也很完善。国立民俗博物馆按照地区、性能、时代以及种类展示古时人们的生活面貌。馆内共收藏文物2万余件，其中参展的有4千余件，一层的中央大厅常年举办传统文化民俗特别展。博物馆由地下一层、地上四层以及顶楼组成。地下一层是保管资料的水浆库，一层是中央大厅和3个常设展厅以及讲堂，二层是行政办公室，三层是阅览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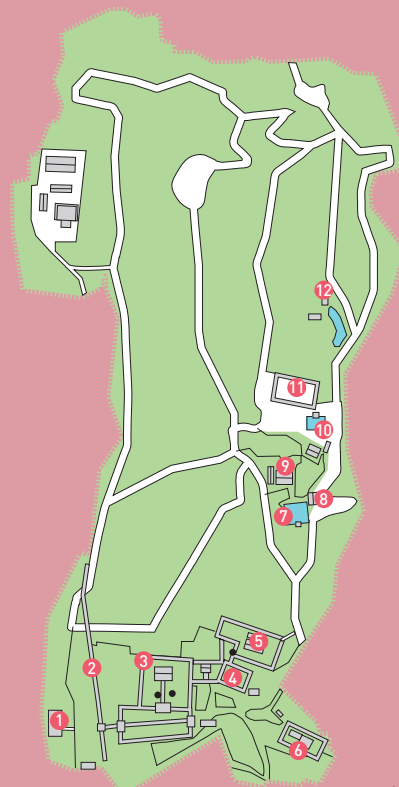
2 자연과의 조화미가 뛰어난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 自然美与人工美的结合 昌德宫

창덕궁은 한국의 궁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궁궐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공간 활용이 창의적이면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왕과 왕비의 휴식공간인 후원은 한국 정원 문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昌德宫是韩国现存的古代王宫中最美丽的宫阙，
是注重自然风貌、巧妙利用自然空间的韩国古建筑典范。
昌德宫的后苑是王室后花园，堪称韩国庭园建筑的代表作。

-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약 8분)
- ☎ 창덕궁 관리소 02-762-8261
- 🌐 www.cdg.go.kr (英)

- | | |
|--------|--------|
| 1 돈화문 | 1 敦化门 |
| 2 궐내각사 | 2 宫内各司 |
| 3 인정전 | 3 仁政殿 |
| 4 회정당 | 4 熙政堂 |
| 5 대조전 | 5 大造殿 |
| 6 낙선재 | 6 乐善斋 |
| 7 부용정 | 7 芙蓉亭 |
| 8 영화당 | 8 映花堂 |
| 9 주합루 | 9 宙合楼 |
| 10 애련지 | 10 爱莲池 |
| 11 연경당 | 11 演庆堂 |
| 12 존덕정 | 12 尊德亭 |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은 한양이라 불리는 조선의 도읍지였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은 모두 조선시대의 궁궐입니다. 경복궁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선을

대표하는 궁이지만, 창덕궁이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창덕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덕궁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5년(1405)에 세자를 위한 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전쟁과 화재를 겪으며 수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제14대 선조 25년(1592)에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불에 탔습니다. 이때 경복궁, 창경궁 등 다른 궁궐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1575~1641)이 왕위에 오르면서 1609년에 창덕궁이 가장 먼저 복구되었습니다. 곧이어 창경궁도 재건되었지만, 경복궁만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1867년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이 복구될 때까지 왕은 창덕궁에 거처하며 정사를 살폈습니다.

추천코스



돈화문 → 금천교 → 궐내각사 → 인정문 → 인정전 → 선정전 → 희정당 → 대조전 → 낙선재 → 후원 [함양문-부용지-애련지-연경당-존덕정-육류천] (약 2시간~2시간 30분 소요)

한국의 궁궐은 면적도 넓고 건물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관람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창덕궁은 일반관람과 특별관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람 지역은 궁궐 건물 구역이고, 특별관람 지역은 후원 구역입니다. 후원 구역은 자유관람이 아닌 제한관람입니다. 한국어 안내 7회(10:00, 11:00, 12:00, 13:00, 14:00, 14:30, 15:00), 영어 안내 2회(11:30, 15:30), 일본어 안내 2회(10:30 13:30), 중국어 안내 1회(12:30)에 한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코스와 시간을 미리 계획해야 불편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大约在百余年前，首尔被称作汉阳，是古代朝鲜王朝的都城。朝鲜王朝的宫阙就建在当年的汉阳城内。如今游客在首尔看到的景福宫、昌德宫、昌庆宫、德寿宫及庆熙宫，均是朝鲜时期的建筑。现存的五大宫阙中，景福宫的建造时间最早，也最具有代表性。然而，只有昌德宫以其优美的建筑形态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为世界文化遗产。

昌德宫是朝鲜第3代君王——太宗于1405年为世子所修建的王宫，曾遭遇数次战争与火灾。宣祖（朝鲜第14代王）25年（1592）爆发的壬辰倭乱中，昌德宫被烧毁。那时，景福宫与昌庆宫也被大火损坏。战争结束后，继承王位的光海君于1609年首先重建了昌德宫，然后修复了昌庆宫。直到1867年，景福宫才得以重建。景福宫恢复原貌前，朝鲜的君王一直在昌德宫居住并处理国务。

推荐路线



敦化门 → 锦川桥 → 宫内各司 → 仁政门 → 仁政殿 → 宣政殿 → 熙政堂 → 大造殿 → 乐善斋 → 后苑 [涵阳门、芙蓉亭、爱莲池、演庆堂、尊德亭、玉流川] (需2-2.5小时)

昌德宫是韩国现存古代王宫中最负盛名的地方，又是联合国教科文组织指定的世界文化遗产，国内外游客络绎不绝。为了让游客更好地游览昌德宫，也为了更好地保护世界文化遗产，昌德宫实行普通游览和特别游览两种制度。普通游览只含宫阙建筑区域，游客既可以选择由解说员带领的团体游览，也可自由参观；特别游览限定为后苑，游客只能在导游陪同下参观。后苑的中文讲解时间为每日中午12:30，其它语种还包括英语（11:30、15:30）、日语（10:30、13:30）和韩语（10:00、11:00、12:00、13:00、14:00、14:30、15:00）。普通游览的中文讲解时间为16:00，其它语种分别为英语（10:30、14:30）、日语（12:30）和韩语（9:30、11:30、13:30、15:30）。游客可根据自身需要合理安排游览路线和时间。

광해군 때 힘들게 복원된 창덕궁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불에 타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인정전(仁政殿)과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 화마에 잿더미가 되었지요. 이후 25년이 지난 1647년에 복구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지세에 순응한 건물 배치



경복궁이 넓은 평지에 일직선상으로 들어서 있는 것에 반해, 창덕궁은 뒤에 낮은 언덕을 두고 언덕을 중심으로 좌우에 펼쳐진 평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궁궐이 들어선 자리의 지형이 다릅니다. 지세가 다르니 건물의 배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창덕궁은 지형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건물을 배치한 것입니다.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이 궁궐 중심에 있지 않고 서남쪽 모퉁이에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돈화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금천교(錦川橋)라는 다리를 건너야 정전의 출입문인 인정문(仁政門)이 나옵니다. 그 뒤로 정전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보면 동북방향에 있는 것이죠. 편전인 선정전(宣政殿)은 정전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침전은 편전 우측으로 전개되고요. 침전 구역 뒤로는 언덕이 있어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창덕궁의 건물배치는 남북 일직선상으로 놓인 경복궁과 달리 여러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然而，光海君费心重建的昌德宫在1623年仁祖反正（朝鲜王朝党派争斗事件）中，几乎完全被大火烧毁，只有仁政殿及其它几处建筑幸免。1647年，昌德宫再次得到重建。不过，此后昌德宫还经历过几次人为失误引起的火灾。

地勢的建筑布局

不知道游客有没有发现，景福宫建在平地上，昌德宫却建在山丘前。宫阙的地形相异，建筑布局自然也就不同。昌德宫的建筑设计和布局充分考虑所处位置的地形特点，以最大程度保留自然美景为前提，适当地加以人工修饰。

昌德宫的正门为敦化门，设在王宫西南角，朝南而开。进入敦化门，右侧是锦川桥；过桥后便是正殿的大门——仁政门。正殿仁政殿便位于仁政门后。宣殿是昌德宫的偏殿，位于仁政殿东侧；寝殿则位于偏殿东侧。寝殿后方是山坡，无法搭建房屋。昌德宫的建筑布局拥有多条轴线，与以南北轴为中心的景福宫大不相同。



진선문



돈화문



금천교

돈화문에서 금천교까지

창덕궁 관람은 정문인 돈화문에서 시작합니다. 돈화문은 한국에 남아 있는 궁궐 정문으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돈화’는 ‘왕이 큰 덕으로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2층 문루에 큰 종과 북이 있어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정오(낮 12시)는 북을 쳐서 알렸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저녁 종은 오후 7시경에 28번, 통금해제 시간인 새벽 4시경에는 33번의 종을 쳤습니다. 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활동시간을 알려주는 역할과 함께 범죄예방 등 민생안전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돈화문 안으로 들어왔나요?

고개를 돌려 넓고 높게 가지를 뻗은 고목을 보세요. 나뭇가지가 조금은 제멋대로면서도 멋스러운 수령 300~400년 정도 된 회화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학자의 높은 기상을 상징해 ‘학자수’라고도 합니다. 중국의 주나라에서 궁궐의 정문과 정전의 대문 사이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가장 높은 직위의 삼공이 나무 아래서 마주보고 정사를 돌보았다는 사례를 따라 한국의 궁궐 입구에도 회화나무를 심었습니다.

● 정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천교를 건너야 합니다. 한국의 궁궐에는 초입부에 금천이라는 개천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돌다리를 놓았는데요. 창덕궁에는 돈화문과 진선문(進善門) 사이를 지나가는 명당수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천교는 아름다운 난간석과 견고하고 장중한 축조기술이 돋보이는 다리입니다.

敦化门至锦川桥

敦化门是韩国现存古代王宫中历史最悠久的宫门，昌德宫之旅就始于敦化门。“敦化”含有“君王以德驯化百姓”之意。据说，敦化门的二楼原本设有报时的大钟和大鼓。在朝鲜时期，每天正午（12点）时间以击鼓的方式告诉百姓，晚间禁城时间（7点左右）则敲钟28下，解禁时间（凌晨4点左右）敲钟33下。这样的报时制度有利于百姓安排日常作息，对确保民生安全也有一定作用。

● 敦化门前有一棵参天古树。这是一棵已有300~400年树龄的老槐树，又被称为“学者树”。据传，中国周朝的皇宫正门与正殿大门之间就有三棵槐树。每当百官朝见天子时，三公（太师、太傅、太保）就立于槐下，槐树因此成为代表学者的象征符号。敦化门前的槐树也源自于此。

● 韩国的古代王宫均设有明堂水，一般自正门处引入，水上还会架桥。昌德宫的明堂水从敦化门一直流到进善门，因此想要进入正殿还必须走过锦川上的锦川桥。锦川桥建于朝鲜太宗11年（1411），是首尔现存最古老的石桥。



창덕궁 회화나무

2개의 무지개(홍예) 모습을 한 금천교에는 여러 가지 문양과 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양과 조각은 궁궐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리 오른쪽(남쪽) 밑 해치입니다. 해치는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인을 미워한다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현재 서울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해치를 조각해 놓았습니다. 해치 반대편에는 거북이 보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현무(玄武)라 해서 거북과 뱀이 합쳐진 상상의 동물이 북쪽의 수호신입니다. 해치와 거북 바로 위에는 도깨비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궁궐 밖에서 금전을 통해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왕의 공간 인정전과 선정전



금천교 뒤 진선문을 지나면 창덕궁의 중심건물인 인정전(仁政殿)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인정전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거행되던 창덕궁의 정전입니다. 인정전 앞 넓은 마당을 조정(朝廷)이라 합니다. 이곳에서 왕의 즉위식, 외국 사신 접견, 과거시험 등 나라의 큰 일을 치렀습니다.

Must See



인정전 지붕의 오얏꽃 문양 인정전 지붕에는 다른 궁궐 정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식이 있습니다. 지붕 중앙에 가장 높이 있는 수평마루인 용마루에 박혀 있는 다섯 개의 오얏꽃 문양입니다. 인정문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오얏꽃은 자두나무의 꽃인 이화(梨花)입니다. 1897년 고종황제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오얏꽃을 황실의 문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인정전 용마루에 오얏꽃 문양을 장식한 것은 조선 황실이 아닙니다. 일본인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한국을 놓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청) 등 열강의 세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에 영향력을 끼치던 일본이 1907년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을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겨오면서 새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황실에서 사용하던 문장을 건물에 새겨 대한제국의 권위를 이씨 가문의 정권으로 낮추려고 한 것입니다.

锦川桥设有两个拱形桥洞，桥身还有不少雕像装饰。这些雕像均是王宫的守护神。锦川桥右侧（南侧）下方、两个墙洞之间有一尊獬豸（音xi è zhì）的雕像。獬豸是古代传说中的上古神兽，代表正义和安安全，也是今天首尔市的象征物。在石桥的北侧与獬豸相对之处则是一尊石龟像。风水学中的四象学讲求“左青龙、右白虎、前朱雀、后玄武”。玄武（龟蛇）是守护北方的天神，锦川桥的石龟像也因此设在北侧。此外，獬豸与石龟的上方还有清晰可见的鬼面雕刻，据说可以阻止邪物入侵。

仁政殿与宣政殿

走过锦川桥，进入进善门，便来到昌德宫的中心—仁政殿。仁政殿是举办国家庆典的王宫正殿，殿前的平坝被称为“朝廷”。君王继位典礼、接见外国使臣等重大仪式都在朝廷举行。



Must See



仁政殿的李花雕刻 仁政殿的正脊有五朵李花雕刻装饰。这样的装饰在其它宫阙的正殿中均不可见。仁政门的上方也有三朵李花雕刻。李花是李子树开的花，花小却繁茂，素雅清新。因与朝鲜国姓同音，李花被当作王室的象征。1897年高宗皇帝将国号改为大韩帝国，李花因而成为皇室的标识。不过，仁政殿上的李花雕刻却并非皇室所为。当时，中（清朝）、美、俄、日等列强在大韩帝国的势力争斗十分激烈，但最具影响力的还是日本。据传，1907年朝鲜末代君王——纯宗由德寿宫搬到昌德宫时，日本人便在仁政殿上雕刻了五朵李花装饰。日本人将皇室标识刻在建筑上，是有意将大韩帝国的政权贬低为李氏家族的权力。



조정을 보면 가운데 길이 있고 양 옆으로 비석처럼 세워진 돌들이 보입니다. 관리의 직급을 나타내는 품계석(品階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구품부터 정일품까지 18단계의 품계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신하들이 자신의 품계에 맞춰 설 수 있도록 한 표시입니다. 왕이 있는 곳과 가까울수록 품계가 높고 멀수록 품계가 낮습니다. 동쪽에는 문관, 서쪽에는 무관이 중앙을 향해 도열합니다.

조정 뒤에 당당하게 보이는 건물이 인정전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경궁의 명정전(明政殿)과 함께 조선 궁궐의 세 정전 중 하나입니다. 조선 역사의 주무대였습니다. 보기에는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층 건물입니다. 내부를 보면 아래위층이 트여 있어 웅장합니다.

조정에서 인정전으로 가려면 하월대(下月臺), 상월대(上月臺)라는 두 개의 기단을 올라야 합니다. 월대 계단에는 세 개의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의 계단 가운데 경사진 돌판에 봉황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는 게 보이죠? 왕이 가마를 타고 오르는 답도(踏道)입니다. 봉황은 성군이 나타나거나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가 되면 나타난다는 상상의 새입니다. 왕이 지날 때마다 답도에 새겨 놓은 봉황을 보면서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징물입니다. 답도 좌우의 계단은 신하들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월대 위에는 ‘드므’라는 철로 만든 큰 독이 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물을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드므에 담긴 물로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드므는 실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朝廷의 중앙은行走의 通道, 通道兩側의 地面上还有不少小石碑。這些石碑是用來标注官階高低的品階石。朝鮮的官職共有十八個等級, 最低為從九品, 最高為正一品。每逢上朝之時, 文武百官就依照官職大小分列於品階石側。站立之處越是靠近君王, 官員的官職就越高。文官和武官分列於朝廷的東、西兩側, 面朝通道而立。

仁政殿與景福宮的勤政殿及昌慶宮的明政殿並稱朝鮮三大宮殿, 是朝鮮歷史的主舞台之一。仁政殿外觀看似兩層, 其實却是天棚高大的單層建築。

仁政殿與百官站立的朝廷之間由上月台和下月台兩級台階相連。借助月台的襯托, 仁政殿顯得更加威嚴、雄偉。上下月台共設有三條路: 左右兩側為使臣上、下通道, 居中的是君王乘轎經過的踏道。踏道的台階中央嵌有兩塊雕有鳳首的石板。鳳凰是世出聖君或天下太平時才會出現的吉祥鳥, 將其刻在君王乘轎必經的踏道上, 代表君王施行善政的決心。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재료가 나무입니다. 궁궐도 예외는 아니죠. 목조건물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화재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드르는 화마가 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이제 인정전 내부를 잠깐 살펴볼까요? 정면에 왕이 앉는 평상인 용상을 설치한 어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왕의 무병장수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일월오악도 병풍을 쳤습니다. 일월오악도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산 봉우리, 폭포, 파도, 소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왕을 상징하는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죠.

내부에는 특별한 시설물도 눈에 띕니다. 유리창, 전등, 커튼 등 현대의 시설물입니다. 바닥은 전(搏)이 깔려 있던 것을 서양식의 쪽나무로 바꾸었고, 창도 서양식의 들어서 여는 창을 내고 커튼을 드리웠습니다. 1908년 전기가 처음 시설되면서 여러 개의 전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두 대한제국 시기에 서양식으로 내부시설을 현대화한 흔적입니다.

● 인정전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선정전으로 가겠습니다. 선정전은 왕이 평상시 거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편전입니다. 왕이 매일 아침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방에서 올라온 문서를 검토하고, 국정 세미나인 경연(經筵)을 하는 집무실이죠.

Must See



기와지붕 위에 앉아 있는 장식 기와를 보세요. 궁궐의 주요 건물에는 잡상이라는 기와장식이 있습니다. 잡상은 궁 안에 잡귀나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주술적 의미로 장식한 것입니다. 중국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과 도교의 잡신을 형상화해 장식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마화상, 삼살보살, 이구룡, 천산갑, 이귀박, 나토두 순입니다. 잡상은 건물마다 그 수가 다르지만 항상 홀수로 넣습니다.



한국의 전통建筑多为木制建筑，王宫也不例外。为了防止火灾，仁政殿的门前设有一口蓄水用的大铁缸。水缸里总是蓄满了水，但并不被用来灭火。这口大铁缸其实只具有象征意义，是希望火魔能被自己倒映在水中的模样吓跑，从而达到防火的目的。



인정전 내부

● 现在来看看仁政殿的内部结构。大殿正中央安放着君王御座——龙床，龙床后设有五峰山日月图屏风。屏风的图案为日月同在五峰之上，蕴含君王万寿无疆、王室兴旺繁荣之意。仁政殿的天花板上还雕刻着象征君王的一对凤凰。



일월오악도

仁政殿内部设施相对现代化，玻璃窗、电灯、窗帘等物品尤其引人注目。大殿的地板铺设了西洋原木，代替原本使用的地砖；窗户也采用西方常见的内开窗设计，并配有窗帘。1908年通电后，仁政殿内还设置了数盏电灯。这些西式设计是王室在大韩帝国时期受西方文化影响的体现。

● 由仁政殿东侧之门便可到达宣政殿。宣政殿是昌德宫的偏殿，被用作君王的休息室和办公室。朝鲜的君王在此或与大臣会晤，或处理各地上报文书，有时还举办类似现代研讨会的经筵。

Must See



屋脊上的守护神 在韩国宫阙的重要建筑上，常常可以看到名为“杂像”的屋脊装饰。韩国的杂像能驱鬼辟邪，常以中国神话小说《西游记》的主人公与道教的诸神为原型。杂像的排列顺序由前至后分别为唐三藏、孙悟空、猪八戒、沙悟净、麻和尚、三煞菩萨、二口龙、穿山甲、二鬼朴和罗土头。建筑越重要，杂像的数目越多，但通常只取奇数。

선정전 지붕을 보면 다른 건물과 기와의 색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지붕에 푸른색 유약을 입힌 기와를 올렸습니다. 일명 ‘청기와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궁궐을 검소하게 꾸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청기와를 올린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이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의 위상을 화려한 궁궐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궁궐 여인들을 위한 대조전

선정전까지가 외전 구역이고 그 옆의 희정당부터는 내전 구역입니다. 희정당은 왕의 침실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업무 공간으로 더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마당에 연못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1917년 발생한 큰 불로 인해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희정당 대신 1920년에 경복궁 강녕전(康寧殿)을 옮겨와 지은 것입니다. 이때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로 태어납니다.

건물 중간에 출입구 부분을 앞으로 튀어 나오게 해서 서양식 현관을 만들고, 바닥에는 타원형으로 왕이 타던 마차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에도 서양식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응접실과 회의실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천장에는 샹들리에를 걸고, 벽에는 유리 창문을 내는 등 서양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의자와 탁자 등 가구도 서양식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외국인을 접견하는 일이 많아져 한국식과 서양식이 섞인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희정당은 한국의 전통건축물이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宣政殿最特别的地方在于屋顶的瓦片。在朝鲜古代王宫的所有建筑中，只有宣政殿使用青釉瓦片，因而又被称作“青瓦建筑”。当时，这样的青瓦还只能从中国进口，价格不菲。向来以节约为美德的朝鲜王室又怎会下如此大的手笔呢？原来，青瓦是光海君在重建昌德宫时有意挑选的，意在通过王宫的华美形象来彰显国力。

后宫嫔妃的熙政堂与**大造殿**

外殿区域止于宣政殿，由熙政堂开始便是内殿。熙政堂虽然是君王的寝殿，在朝鲜后期却多被用作办公地点。熙政堂建成之初原有一方荷花池，环境十分雅致。1917年，一场大火将这里烧成灰烬。1920年，日本人将景福宫的康宁殿拆移到这里，建起一座全新的宫殿。

受西方文化影响，重建的熙政堂处处可见西方建筑风格。例如，大殿中央的入口向外突出，被设计为西式门廊；殿前的空地呈椭圆形，方便君王乘坐的马车或汽车通行。此外，殿内的接待室和卫生间地面铺有地毯，天花板上悬挂吊灯，墙上还设有玻璃窗；就连室内使用的桌椅也多为西式构造。大韩帝国后期，朝鲜王室与外国人的接触增多，熙政堂也因此成为韩国建筑由传统向近代过度的代表性建筑物。



희정당 뒤편이 왕비가 살았던 대조전(大造殿)입니다. 대조는 ‘큰 것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입니다. 왕비가 생산하는 큰 것이란 무엇일까요?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왕자를 출산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조전에는 인정전이나 선정전에서 볼 수 있는 용마루(지붕 중앙에 가장 높이 있는 수평마루)가 없습니다. 훌륭한 왕자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하늘의 정기와 땅의 기운을 가로막는 용마루를 두지 않았습니다. 창덕궁 대조전뿐만 아니라 침전인 경복궁 강녕전(康寧殿)과 교태전(交泰殿), 창경궁 통명전(通明殿) 등에도 용마루가 없습니다. 다른 설로는 다음 대를 이을 용(왕자)이 태어나는 곳에 감히 다른 용이 지붕 위에서 짓누를 수 없다는 것과 왕비가 편안하게 왕자를 낳으라고 무거운 용마루를 걷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조전도 희정당과 마찬가지로 1917년 화재 때 불에 타 없어지고, 이후 경복궁의 교태전을 옮겨와 재건했습니다. 창덕궁 공사를 핑계로 멸절한 경복궁을 허문 것입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여서 일본인에 의해 복구공사가 주도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따랐지만, 실내 장식을 비롯한 대부분이 서양식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서양 문물이 들어온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일본이 우리 문화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데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Did you know?



한국·중국·일본 정원의 차이점 한국·중국·일본의 정원은 자연 공간을 건축물에 그대로 옮겨놓고 인간과 건축물이 자연 속에 화합하도록 하는 도교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세 나라의 정원을 가꾸는 철학은 동일했지만 세부적인 조성 기법은 조금씩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산과 폭포, 계곡과 동굴 등 대자연의 세계를 모방해 정원에 그대로 축소시켜 놓는 수법을 즐겨했고, 일본은 대자연을 정원에 배치하되 여러 가지 규칙과 형태를 만들어 매우 인공적인 미를 창출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급적 자연에 크게 변형을 가하지 않는 비정제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산지나 얇은 구릉이 많고 계곡이 발달한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것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 주변의 자연환경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대조전

位于熙政堂后的大造殿是后宫嫔妃生活的地方。所谓“大造”是指大事生产，隐含后宫嫔妃为王室诞下明日圣君的期盼。为了让孕育明日之君的后宫嫔妃充分吸收天地灵气，大造殿的建筑不设龙脊（即正脊），以免上、下流通的灵气被阻。这样的设计不仅见于昌德宫大造殿，也被应用于景福宫的康宁殿、交泰殿以及昌庆宫的通明殿。另有一种解释说，后宫将要诞下龙子的地方不应有其它龙盘踞在屋顶上，因此建筑物才会不设龙脊。

大造殿同熙政堂一样，也毁于1917年的大火中，重建所用的材料来自景福宫的交泰殿。当时朝鲜被日本人占领，大造殿的重建工程在日本人主持下进行。宫殿的大体结构虽然与原建筑相似，内部装饰却多为西方风格。

Did you know?



韩、中、日三国的庭院差别 韩、中、日三国的庭院建筑均受到道家思想的影响，注重人工建筑与自然环境的交融。虽然大的指导方针一致，在具体的建造技艺方面，三个国家却有各自不同的特点。中国的庭院里常见山、瀑布、溪谷与洞窟，是依样复制大自然的建造手法；日本的庭院虽大多位于自然中，但通常都有精致的人工造型与设计。与这两者相比，韩国最“保守”，庭院构造以自然地势、环境为前提，最大限度地保留自然所呈现的天然美。当然，韩国山多、丘陵多、溪谷多的地形特点也是决定庭院构造的重要原因之一。

대조전을 중심으로 양 옆 날개채와 뒤편의 경훈각(景薰閣) 등이 내부에서 서로 통하도록 복도와 행각으로 연결했습니다. 실내는 서양식으로 일부 개조했습니다. 침실에 남아 있는 침대며, 타일로 만든 수라간 등에서도 서양식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종의 사랑이 담겨있는 낙선재

대조전을 나와 후원으로 가기 전에 들러야 할 장소는 낙선재(樂善齋)입니다. 낙선재, 석복헌(錫福軒), 수강재(壽康齋)가 하나의 구역을 이루고, 이를 통칭하여 낙선재라 부릅니다. 낙선재는 제24대 현종(1827~1849)의 서재 겸 사랑채였고, 석복헌은 경빈(현종의 후궁)의 처소였으며, 수강재는 당시 대왕대비인 순원왕후(제23대 순조의 왕비)가 거처였습니다. 지금은 창덕궁 담장 안에 있지만 원래는 창덕궁과 담을 맞대고 있는 창경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창덕궁으로 편입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 때 헐리지 않고 창덕궁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낙선재에는 한 여인에 대한 현종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현종의 왕비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왕은 후사를 위해 다시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이때 현종 본인이 직접 간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종 후보로 올라온 세 명 중 경빈 김씨를 마음에 두었으나, 왕비 결정권은 왕이 아닌 대왕대비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경빈 김씨가 아닌 명헌왕후 홍씨가 계비로 간택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명헌왕후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현종은 왕비가 왕자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 후궁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경빈 김씨입니다. 현종이 경빈 김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경빈 김씨와 함께 지낼 새 보금자리로 석복헌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지내면서 편안하게 책도 읽고 서화를 감상하며 실 요양이던 것이죠. 지금도 개인적인 공간이기에 궁궐 건물이면서도 단청을 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입니다.



大造殿经内部与两翼的回廊、后方的景薰阁直接相连，室内部分设计为西式风格，如卧室里设床、膳房里使用瓷砖等。

承载着宪宗之爱的乐善斋

离开大造殿前往后苑的通路右侧，有三座外观素雅的韩屋建筑，分别为乐善斋、锡福轩和寿康斋。这三座建筑构成的空间被统称为乐善斋。乐善斋是朝鲜宪宗（24代王）的书房兼客房，锡福轩是庆妃（宪宗后妃）的住处，寿康斋则是大王大妃（相当于中国的太皇太后）——纯元王后（23代纯祖的王妃）在当时的居所。这几座建筑原本位于同昌德宫相对的昌庆宫内，如今却被昌德宫的宫墙围起来。没有人知道这是什么时候，又是怎样发生的。据推测，昌庆宫在日本人占领期间曾被改建为动物园，也许乐善斋的几座建筑物就是在那时被圈入昌德宫内的。

乐善斋是宪宗为庆妃所建造的居所，他们两人的爱情故事至今还为后人所津津乐道。据说，宪宗的王妃在16岁那年早逝，王室希望宪宗重新纳妃以诞下王室继承人。在最终入选的三人中，宪宗有意于庆妃金氏，但手握选择权的大王大妃却选中了后来被称为孝定王后的洪氏。不过，宪宗与洪氏在婚后三年间没有子嗣。宪宗因此以洪氏没有生育能力为名，重新纳娶金氏为侧妃，并修建锡福轩作为两人的“爱巢”。乐善斋是宪宗与心爱之人朝夕相处的地方，是极度私人的空间，因此比其它王宫建筑更素雅。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아름다운 후원

창덕궁의 건물을 뒤로 하고 숲이 우거진 오르막을 따라가면 후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악산의 줄기인 매봉을 등지고, 자연의 지세에 따라 부용지(芙蓉池), 애련지(愛蓮池), 관람지(觀瀾池), 존덕지(尊德池) 등의 연못을 파고 누각과 정자를 조성했습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람의 손길을 더해 조성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후원은 궁 안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왕족들이 자연을 벗할 수 있는 유일한 산책 공간이자 궁중생활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오락공간이었습니다.

후원 초입에 부용지가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29.4m 세로 34.5m입니다. 연못 둘레에 기다란 화강암을 쌓아 올렸고, 못 한가운데에는 신선의 산을 의미하는 인공섬을 조성했습니다. 연못에 수련을 띄우고 잉어나 붕어를 길렀으며, 왕은 낚시나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연못 남쪽에는 아(亞)자 형태의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물 위에 기둥을 세워 마치 궁둥이를 땅에 대고 앉아 두 발을 물에 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왕이 여기에 앉아 낚시 같은 것을 즐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남쪽 화강암 둘레에는 물고기가 돌을새김된 직사각형의 석재가 있고, 서쪽에는 크게 벌린 입을 통해 연못에 물을 쏟아내는 이무기 조각이 있습니다.

부용지 동편에는 영화당(映花堂), 북쪽에는 주합루(宙合樓), 어수문(魚水門)이 있습니다. 영화당 앞마당인 춘당대는 왕이 참관하는 특별한 과거시험을 치르던 곳입니다. 주합루는 1776년에 지은 2층 누각입니다. 아래층은 왕립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 서고이고 위층은 열람실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수문은 주합루의 정문입니다. 어수라는 이름은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처럼 군신의 관계도 친밀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인 것입니다. 큰 문 하나와 좌우로 작은 문 두 개로 나누어진 모습도 독특한데요, 큰 문은 왕이, 작은 문은 신하들이 출입했습니다.



人工之巧与自然之美相融的后苑

后苑位于德寿宫后，背靠北岳山鹰峰，依自然地势建有美丽的芙蓉池、爱莲池、观缆池和尊德池，并设有亭台楼阁。整座后苑的人工设计与自然环境相得益彰，是朝鲜王宫最美丽的后花园。对于被禁锢在宫墙里的君王与妃子来说，花草满园的后苑或许是唯一能让他们得到休息与放松的地方。

芙蓉池位于后苑入口处，长29.4米、宽34.5米。水池四周砌以花岗岩，正中央是象征仙境的人造小岛。芙蓉池中漂浮着朵朵睡莲，水下还饲养着鲤鱼和鲫鱼，曾是君王泛舟、垂钓之处。

芙蓉池的南侧筑有一座“亚”字形的亭台，名为芙蓉亭。支撑芙蓉亭的两根柱子立在水中，远远看去就像有人蹲坐在池边，将双腿浸在池中戏水。也许，朝鲜的君王就曾以相似的姿势在池边垂钓。此外，芙蓉池东南端的花岗岩上还有一处形态生动的鱼浮雕，西侧的池塘出水口则被雕刻为巨蟒的头像。

芙蓉池的东面是映花堂，北面则有宙合楼及鱼水门。映花堂前的院子名为春塘台，君王亲临的儒生考试就曾在这里举行。宙合楼建于1776年，是一座两层高的楼阁：第一层是王室藏书馆——奎章阁，第二层则被用作阅览室。鱼水门是宙合楼的正门，名字寓意君臣关系应如鱼和水一般亲密无间。悬挂“鱼水门”匾额的大门是君王的出入门，两侧的小门则供大臣使用。

영화당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금마문(金馬門)이 나옵니다. 금마문을 들어서면 단청을 하지 않은 두 채의 작고 소박한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채는 ‘기오헌(寄傲軒)’, 다른 한 채는 ‘의두합(倚斗閣)’이라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기오헌은 순조의 왕세자였던 효명세자의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효명세자는 부왕 순조의 명으로 19세에 대리청정을 하면서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양반가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할아버지인 정조였습니다. 제 22대 왕인 정조는 조선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고 국정구상을 하던 장소입니다.

다음은 숙종 18년(1692)에 만들어진 애련지입니다. 연못 중앙에 두 기둥이 물에 잠긴 애련정이 있습니다. 정자에 앉아 낙양각(기둥과 천장 사이 한 조각 장식)이 설치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액자 삼아 애련지를 바라보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애련지 서쪽에는 연경당(演慶堂)이라는 양반집이 있습니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 서재, 연못, 정자를 갖춘 사대부의 주택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효명세자가 부친인 순조에게 존호(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올리는 칭호)를 올리는 축하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연경이라는 이름도 경사스러운 행사를 연행한다는 의미입니다.



由映花堂往里便来到金马门。金马门后有两座风格朴实的建筑，建筑正面分别悬挂着“寄傲轩”和“倚斗阁”两块匾额。这里是顺祖的王世子——孝明世子学习的地方。孝明世子自19岁开始便遵从父命代理听政，着手削弱大臣手中的政治实权，以加强王室统治。孝明世子的祖父（第22代王——正祖）是朝鲜历史上有名的改革家，也是孝明世子在处理政务上效仿的对象。寄傲轩与倚斗阁便是当年孝明世子以祖父为模范，构思国政的地方。



离开倚斗阁往前，经过不老门便来到爱莲池。这座美丽的荷花池建于肃宗18年（1692），池中央设爱莲亭。据称，爱莲池与爱莲亭的名称取自中国北宋学者周敦颐的《爱莲说》。与芙蓉池不同，爱莲池中沒有假山，池塘形状为方形。

演庆堂位于爱莲池西侧，是一座典型的士大夫建筑，设有客房、内室、行廊、书斋、荷花池及亭台。据史书记载，演庆堂是孝明世子为庆祝父王——顺祖加封尊号（君王或王妃在世时所封的称号）而修建的宴会场所，“演庆”就是指举办喜庆活动。

연경당에 들어가려면 작은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요. 돌다리 왼쪽에 괴석을 담고 있는 돌 화분이 보입니다. 돌 화분의 위쪽 모서리를 자세히 보세요. 두꺼비 네 마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세 마리는 기어 나오려 하고 한 마리는 기어 들어가려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두꺼비를 달의 정령으로 생각했기에 연경당은 근심 걱정 없는 월궁(月宮)임을 상징합니다. 월궁이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장락궁(長樂宮, 달에 있다는 신선의 궁궐)'이 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죠. 그런 까닭에 연경당을 들어가는 문의 이름이 장락문(長樂門)입니다.



관람정

연경당에서 애련지 옆을 따라 들어가면 작은 연못들이 나옵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부채꼴 모양을 한 관람정(觀纜亭), 특이한 겹지붕 구조의 존덕정(尊德亭)이 있습니다. 창덕궁을 '한국 옛 지붕의 박물관'이라고도 하니 창덕궁과 후원을

관람하면서 건물의 지붕 형태를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재밌는 여행법입니다.

후원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옥류천이 흐릅니다. 인조 14년(1636년)에 소요암이란 바위를 깎아 둥근 홈을 만들어 맑은 물이 바위 둘레를 돌아 폭포처럼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이 폭포에서 옥류천이 시작됩니다. 계곡물을 따라 청의정(淸漪亭), 소요정(逍遙亭), 태극정(太極亭), 농산정(籠山亭) 등의 작은 정자를 조성해 인공과 자연이 조화된 최고의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장락문

演庆堂의门前有一条小河，河上架石桥与演庆堂相连。石桥的左侧有一座装有怪石的花盆，花盆的四角分别刻着四只小蛤蟆；三只蛤蟆正往外爬，而另一只则拼命往里钻。在古代，蛤蟆是月亮的精灵，演庆堂因而象征着无忧无虑的月宫。月宫在韩国神话里又被称为“长乐宫”，是神仙居住的地方。演庆堂的正门便叫做长乐门。

从演庆堂往东不远有一方弧形的池塘，池边是一座造型奇特的亭台。这座亭子名为“观纜亭”，是韩国唯一一座扇形亭台，又被称为扇子亭。距离观纜亭不远是六角形的尊德亭，亭子里悬挂着朝鲜正祖（第22代王）题写的“万川明月主人翁自序”匾额。尊德亭为双层屋顶构造，模样奇特。昌德宫素有“屋顶博物馆”之称，游客在游览时可以看看昌德宫大小建筑的屋顶结构有什么不同。

后苑的最深处有一条美丽的玉流川，玉流川的源头是一座名为逍遥岩的巨石。据记载，玉流川建于仁祖14年（1636），溪水沿着岩石上的圆形凹槽盘旋流动，继而形成瀑布般的水柱下落。玉流川沿线还分布着清漪亭、逍遙亭、太极亭和笼山亭几座小巧的建筑，与后苑深处的自然美景互为映衬。

●
청의정은 이엉을 엮어 지붕을 만든 초가입니다. 앞에는 작은 논을 마련해 왕이 직접 모를 내고 벼를 베는 친경을 했습니다. 추수 후에는 벅짚으로 청의정 지붕을 이었죠. 백성에게 농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널리 권장하기 위해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농사가 순조롭기를 기원하는 선농제, 가뭄과 홍수에 지내는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 등 국가적인 농사 의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청의정과 태극정 사이를 흐르는 물은 바위 위에 ‘ㄷ’자 모양으로 파 놓은 물길을 감돌아 소요정 앞에서 폭포로 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곳에 둘러앉아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른바 곡수연을 즐긴 것입니다. 달아오르는 흥을 어찌지 못한 제 16대 인조(1595~1649)는 바위에다 ‘옥류천(玉流川)’이라 새겼고, 제 19대 숙종(1661~1720)은 시 한 수를 읊어 바위에 새겼습니다.

“나는 듯 흐르는 물은 삼백 척을 흐르고(飛流三百尺)
아득히 떨어지는 물은 구천에서 내리네(遙落九天來)
이를 보고 있으니 흰 무지개가 일고(看是白虹起)
온 골짜기에 우레 소리 가득하구나(翻成萬壑雷)”

●
清漪亭是以草苫为屋顶的茅草房，屋前有一块田地。据说，朝鲜的君王曾在这里种稻，秋收割下的稻草后来就变成了清漪亭屋顶上的草苫。农业是封建王朝的经济基础，古代君王的亲身示范旨在宣扬农田耕作的重要性，鼓励百姓种田。此外，朝鲜王朝还多次举办先农祭、祈雨祭、祈晴祭等国家规模的祭祀典礼，向上天祈求五谷丰收。

●
玉流川的溪水潺潺流经清漪亭与太极亭，来到逍遥岩上沿着人工凿出的曲槽盘旋而落，形成逍遥亭前的瀑布。据记载，朝鲜的君臣曾在这里举办曲水宴。席间，盛有美酒的酒杯被浮于水上，随流水而动；宾客则被要求在酒杯漂来前吟诗作赋。岩石上仁祖题写的“玉流川”或许就是宴席上的乘兴之作。逍遥岩上还有一首五言绝句，出自朝鲜第19代君王——肃宗之笔，让人不禁在脑海里想象当年瀑布直落的玉流川美景。

飞流三百尺，
遥落九天来。
看是白虹起，
翻成万壑雷。



옥류천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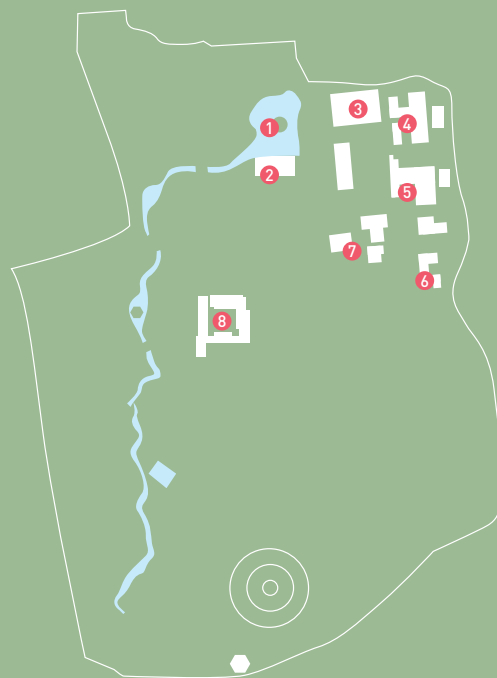


3 서울의 옛 가옥을 만날 수 있는 곳 남산골 한옥마을 邂逅首尔的老房子南山谷韩屋村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의 옛 가옥을 만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서울이 현대화되면서 사라져 간 한옥을 한데 모아
옛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南山谷韩屋村是一个集中了多栋首尔老房子的文化体验场所。
这里保存着因首尔的现代化建设，遭到拆迁命运而搬往此地的古老
韩屋，并原汁原味地呈现出上一个年代的风土人情。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3번 출구 →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이길로 약 150m 도보 → 남산골 한옥마을)
- ☎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소 02-2264-4412
- 🌐 hanokmaeul.seoul.go.kr (中、英、日)



- 1 청학지
 - 2 천우각
 - 3 옥인동 윤씨 가옥
 - 4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덕 재실
 - 5 관훈동 민씨 가옥
 - 6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 7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 8 서울남산국악당
-
- 1 青鹤池
 - 2 泉雨阁
 - 3 玉仁洞尹氏故居
 - 4 祭基洞海风府院君尹泽荣斋室
 - 5 宽勋洞闵氏故居
 - 6 三清洞五卫将金春永故居
 - 7 三角洞都边守李承业故居
 - 8 首尔南山国乐堂

100여 년 전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지금이야 현대식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지만, 옛날에는 기와집과 초가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옛 가옥을 만나려면 남산골 한옥마을로 가야합니다.



1989년 남산골 제 모습 찾기 사업을 하면서 서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한옥 다섯채를 옮겨왔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옮겨왔지만, 오래되어 낡고 훼손된 부분은 새로 복원했습니다. 집 안에는 주인의 신분에 맞는 가구 등을 두어 옛 사람들의 삶을 재현했습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면 청학지라는 큰 연못과 천우각이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동쪽에 옥인동 윤씨 가옥,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관훈동 민씨 가옥,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등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전통 정원을 꾸며 자연스레 계곡이 흐르도록 했고, 고풍스런 정자를 지어 옛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던 남산 기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코스



청학지 → 천우각 → 옥인동 윤씨 가옥 →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 관훈동 민씨 가옥 →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 전통정원 (약 1시간 30분~2시간 소요)

100年前的首尔人是住在什么样的房子里呢？虽然现在高楼林立，但是在从前，首尔也是一座遍布瓦房与茅草屋的城市。如果您对首尔的老房子感兴趣，不妨前往南山谷韩屋村去看一看。

1989年为了重现南山谷的旧时风貌，从首尔各处迁来5座破旧的韩屋。韩屋中保存完好的部分直接搬运过来，而破损严重的地方则进行了重新修复。之后还在房屋中布置了符合房主身份的家具与物件，将旧时人们的生活面貌活生生地展现在今天的人们面前。

走进韩屋村，最先映入眼帘的是青鹤池与泉雨阁。以此为中心，东边是玉仁洞尹氏故居、祭基洞海风府院君尹泽荣斋室、宽勋洞闵氏故居、三角洞都边守李承业故居和三清洞五卫将金春永故居。西边则建有传统庭院，溪水流淌，古亭悠然，再现出南山脚下原有的浪漫风情。

推荐路线



青鹤池 → 泉雨阁 → 玉仁洞尹氏故居 → 祭基洞海风府院君尹泽荣斋室 → 宽勋洞闵氏故居 → 三角洞都边守李承业故居 → 三清洞五卫将金春永故居 → 传统庭院 (需1.5~2小时)



옥인동 윤씨 가옥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純宗, 1874~1926)의 계비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1894~1966)의 큰아버지 윤덕영(尹德榮, 1873~1940)의 집입니다.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본래의 가옥을 옮겨 오려고 했으나 너무 낡고 손상이 심해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새로 지었습니다. 집이 처음 지어진 것은 1910년

대라고 합니다. 규모가 큰 ‘ㅛ’자형 안채와 사랑채 구실을 하는 마루방과 대문간이 더해져 전체적으로 ‘ㅛ’자형 배치를 이룹니다. 안채 앞쪽에 민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둥머리에 익공(翼工, 공포를 짜 올리지 않고 끝이 소의 혀 모양처럼 생긴 부재를 설치해 장식효과와 함께 보를 지탱하는 형식)을 치장하는 등 건축의 세부기법에서 상류층 주택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택 재실

순종의 장인이자, 순정효황후의 아버지인 윤택영의 집입니다. 1906년 딸이 계비로 책봉되어 궁궐에 들어갈 때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본채, 행랑채, 사당으로 구성되며, 집의 평면이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원(元) 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윗터에 사당을 두고, 아랫터에 본채를 두었습니다. 집 뒤에 있는 사당은 새로 복원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유학을 숭상한 조선시대에는 각 가문의 종가에서 집 안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재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 옆에 지은 집입니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입니다.

玉仁洞尹氏故居

朝鮮末代皇帝純宗(1874~1926)的繼妃——純貞孝皇后(1894~1966)幼時居住過的宅院。1998年南山谷韓屋村建設期間，原本計劃將原有的房屋遷至此地，但由於過於破舊，遂通過嚴密考證後進行了重建。據說此房屋最早建於1910年前後，“几”字形的里房加上作為舍廊房的門廊房和大行廊，形成“口”字形的排列。里房前的柱頂上裝飾著的翼拱（拱包不是直接向上，而是在頂部裝上翅膀型的構件，既有裝飾效果，又可以對屋檐起到支撐作用）等細節在一般民宅中難得一見，彰顯出上流豪宅的規格。

祭基洞海風府院君尹澤榮齋室

純宗的岳父即純貞孝皇后之父尹澤榮的故居。據說是尹澤榮在1906年其女被冊封為繼妃入宮後建造而成的。整個房屋分為正房、行廊房和祠堂等几部分，從平面上呈現出“元”字形，這在韩国住宅形態中十分罕見。祠堂在上，正房在下，而今天我們所見的祠堂是後來重新復原而成的。

韓國人有祭祀已逝祖先的習俗。在崇尚儒家思想的朝鮮時代，各个家族的宗家內都設有祠堂用於祭祀。而齋室是為了祭祀而設立於祠堂旁邊的房屋，既是參加祭祀之人的食宿之地，也是置辦祭祀食品以及飲福（在祭祀後食用供品）和望祭（遙望祖墳方向舉行祭禮）的場所。



관훈동 민씨 가옥

조선시대의 문신인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집입니다.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로 옮겨올 때 안채만 남아 있어서 사랑채와 별당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본래 집은 지금의 집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사랑채와 안채 외에 별당채, 행랑채, 솥을대문이 달린 대문간채가 있었고, 안채 옆에는 네 칸짜리 광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배치는 사랑채 뒤로 안채와 별당채를 구성하였고, 각각의 공간은 문과 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울 가옥들의 안채는 안방 앞쪽에 부엌을 뒤서 ‘ㄱ’자형으로 꺾어 배치하는데, 이 집은 드물게 부엌과 안방을 나란하게 놓았습니다. 격식 있는 양반집의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집입니다.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도편수(都邊首, 건축공사를 담당하던 각 분야의 책임자)였던 이승업이 1860년대에 지은 집입니다. 본래 집은 안채와 사랑채를 대문간채와 행랑채가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습니다. 안채의 안방과 부엌 앞뒤면의 지붕 길이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조선 말기에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김춘영의 집입니다. 오위장은 궁궐을 호위하는 군대의 대장입니다. 1890년대에 지은 집으로 ‘ㄷ’자형 안채에 ‘一’자형 사랑채를 연결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큰 한옥은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안방 뒤쪽의 벽입니다. 바깥 담을 쌓지 않고 안채의 벽을 그대로 담으로 활용했는데, 길가에 면한 부분에 사괴석(四塊石)과 전돌(塼石)을 사용하여 화방벽(火防壁, 전돌이나 벽돌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쌓아 방화 성능을 높인 벽)을 쌓았습니다. 화방벽은 집의 품격을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寬勛洞閔氏故居

朝鮮時代的文臣閔泳徽(1852~1935)的故居。1998年只有保存下来的里房迁至南山谷韩屋村,随后新建了舍廊房和别室。据说原有房屋比后来新建的规模更大,除里房、舍廊房和别室之外,还建有行廊房和屋宇式大门,里房旁还有面宽4间的库房。从整体上看,里房和别室位于舍廊房之后,每栋房屋又各自建有门和矮墙。一般首尔住宅的里房采用前厨房后卧室的结构,呈现倒“L”形,而这家的卧室和厨房则并排而立,结构十分罕见,确实彰显出两班贵族家宅的规格与排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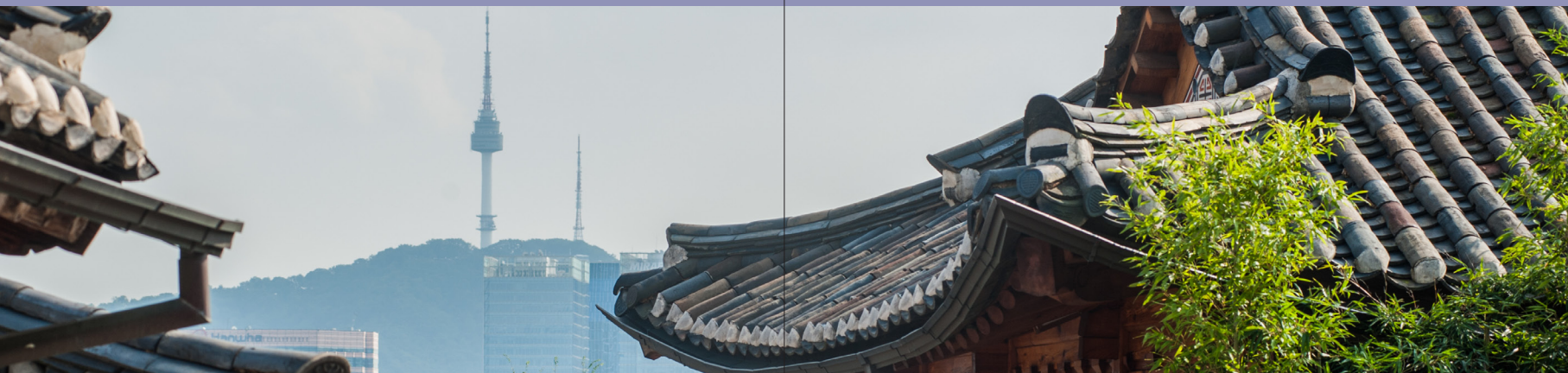
三角洞都边首李承业故居

在扩建景福宫时作为都边首(建筑工程项目负责人)的李承业于1860建造的家宅。据说原本是里房和舍廊斋被大行廊和行廊房所环绕的结构,而现在仅存里房和舍廊房。里房的卧室和厨房前后的柱子高度有所不同,是这座房屋的一大特征。

三清洞五卫将金春永故居

朝鮮末期的五卫将金春永的故居。五卫将是守卫宫殿的军队之首领。本房屋建于19世纪末,侧“几”字形的里屋与“一”字形的舍廊房相连的结构是其最大的特征。因为一般的大型韩屋舍廊房和里房都是分开而建的。值得注意的是里房后侧的墙壁。这座墙壁外面没有再建造围墙,直接作为外墙使用,在面向大街的部分用砌墙石和砖石砌起了防火壁。防火壁同时也提升了房屋的规格。

MEMO



3 서울 속의 거리 박물관 북촌한옥마을 首尔的街道博物馆北村韩屋村

북촌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다닥다닥 붙어 첩첩이 쌓인 기와집이며, 보일 듯 말 듯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이 신비롭습니다. 한옥이 주도하는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촌은 가히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从天空中俯瞰到的北村，层层相叠的瓦房顶和若隐若现迷宫般的小巷充满了神秘。在众多韩屋坐落的小巷中行走，俨然是踏上了时光之旅，穿越到很久很久以前。北村，绝对可以称得上是一座“都市中的街道博物馆”。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재동, 삼청동, 계동, 원서동 일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 헌법재판소 앞 길로 약 550m 도보 → 북촌한옥마을)

📞 재동 관광안내소 02-2148-4160
정독 관광안내소 02-2148-4161
북촌문화센터 02-2133-1371

🌐 bukchon.seoul.go.kr (中、英、日)



[북촌8경 北村八景]

- 1 창덕궁 전경
- 2 원서동 공방길
- 3 가회동 박무관길
- 4 가회동 31번지 언덕
- 5 가회동 골목길_내림
- 6 가회동 골목길_오름
- 7 가회동 31번지
- 8 삼청동 돌층계길

- 1 昌德宮全景
- 2 苑西洞工房街
- 3 嘉会洞博物馆街
- 4 嘉会洞31号缓坡
- 5 嘉会洞小巷-下坡
- 6 嘉会洞小巷-上坡
- 7 嘉会洞31号
- 8 三清洞石阶路



서울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북촌한옥마을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북촌은 전통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북촌이란 이름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이 지역은 궁궐과 인접해 있어 옛날부터 권문세가들의 주거지였습니다. 1906년 호적자료를 보면, 북촌 전체 인구 1만 241명(1,932호) 중 양반과 관

료가 43.6%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옥이 담을 맞대고 서로 이어져 있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 그 속에 담긴 시간과 삶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북촌한옥마을의 구석구석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는 ‘북촌8경(창덕궁 전경, 원서동 공방길, 가회동 박무관길, 가회동 31번지 언덕, 가회동 골목길_내림, 가회동 골목길_오름, 가회동 31번지, 삼청동 돌층계길)’이 있습니다. 날렵하게 솟은 한옥의 처마선과 오래된 골목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빨래터도 있고 보름마다 차오르는 물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석정보름우물도 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보존되어 온 옛 서울의 모습이 북촌에 있습니다.



每当说到首尔具有韩国传统美的地方，就必然会提起北村韩屋村。北村位于景福宫和昌德宫之间，是一个传统韩屋非常密集的地区。这一带因位于清溪川和钟路之北而得名“北村”，由于临近宫殿，自古即为官宦世家的居住地。根据1906年的户籍资料记载，北村共有人口10,241人(1,932户)，其中两班贵族与官宦的比例高达43.6%。

沿着韩屋院墙连绵相接的小巷徜徉，总会不期然地与沉淀在其中的时光和生活的痕迹相遇。通过“北村八景（昌德宫全景、苑西洞工房街、嘉会洞博物馆街、嘉会洞31号缓坡、嘉会洞小巷-下坡、嘉会洞小巷-上坡、嘉会洞31号、三清洞石阶路）可以对北屋韩屋村进行非常全面细致的了解。除了韩屋飞扬的屋檐和古老的巷落之外，还能看到女人们曾经一边洗衣一边聊着家长里短的“洗衣场”和每15天会满盈一次、喝了就能生儿子的“石井十五日井”等遗迹。北村在现代化的潮流中依然完好保存着首尔的旧时面貌。

북촌의 한옥



1920년대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북촌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서울의 행정경계가 확장되고, 도시구조가 근대적으로 변형된 것이지요. 이때 한옥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택경영회사들이 토지를 매입해 중소규모의 한옥을 대규모로 건설해 분양한 것입니다.

주택경영회사들은 대량의 한옥을 건설하면서 표준화된 목재를 사용하였고, 대청에 유리문을 다는가 하면 처마에 함석 채를 이어다는 등 전통 한옥과는 다른 유형의 한옥을 공급했습니다.

● 현재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가회동 11, 31, 33번지, 삼청동 35번지, 계동 135번지 등지의 한옥이나 기타 북촌한옥마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한옥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근대적인 주택의 요소가 더해진 것이 북촌 한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회동 31번지 골목길

옛 정취가 묻어나는 북촌의 풍경 중 한옥의 아름다움과 골목길의 정겨움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이 가회동 31번지입니다. 가회동길에서 돈미약국이 있는 골목으로 꺾어져 올라가면 31번지 골목길이 나옵니다. 키 큰 회나무 집을 돌아 오르는 골목길은 양 옆으로 한옥이 사열하듯 처마를 서로 맞대고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한옥의 경관과 흔적이 가장 많이, 잘 남아 있어 과거의 시간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골목길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옥 지붕 사이로 서울의 고층빌딩이 중첩되는 풍경이 연출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멋진 광경입니다.

北村的韩屋

直到20世纪20年代都始终如一的北村在30年代迎来了翻天覆地的变化。随着首尔行政边界的扩大和城市的近代化转变，韩屋也开始日新月异。在日据时期，不少住宅经营公司买入土地后，将中小型韩屋改建成大型韩屋并进行销售。

这些住宅经营公司在大量建造韩屋的时候不仅使用了符合标准的木材，而且在大厅安装玻璃窗，并在屋檐下用白铁进行连接，呈现出与传统韩屋不同的韩屋形态。

● 现在韩屋最为密集的嘉会洞11、31、33号、三清洞35号以及桂洞135号等地的韩屋和北村韩屋村的其他韩屋中的大部分都是在这个时期建成的。传统韩屋的美感与现代住宅要素的共存可以说是北村韩屋的一大特征。

嘉会洞31号小巷

在保存着旧时痕迹的北村风景中，嘉会洞31号一带是最能体现韩屋之美丽与巷落之温情的地段。从嘉会洞街拐进敦味药房所在的小巷后向上走，就到了31号小巷。绕过高大的槐木房子渐次向上的小巷两边，韩屋的屋檐整齐排列，一路延伸下去。这里珍藏着最多的韩屋景观与旧时风情，令人恍然间好像穿越到了过去。站在小巷的顶端向下望去，首尔的高楼大厦掩映在韩屋屋檐的间隙之中，演绎出过去与现在相辅相成的和谐风景。



삼청동 돌층계길

북촌한옥마을의 골목길 중에서도 옛 삼청동 62번지는 돌층계길이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역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가파른 경사지여서 한옥을 건설할 때 골목길을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축대를 쌓아 들어앉은 한옥의 벽을 따라 좁은 돌계단이 휘어져 있어 마치 미로를 걷는 듯 하고, 돌계단 옆에 놓인 예쁜 화분이 정겨움을 더해줍니다.

가회동성당

가회동성당은 북촌한옥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곳입니다. 2013년 재건축을 하면서 성당 건축양식과 한옥을 조화시켜 멋진 건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한옥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뒤로 성당 건물이 서 있습니다. 한옥은 주변의 마을 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회동성당이 북촌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여줍니다. 성당 옥상으로 올라가면 북촌의 한옥 스카이라인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북촌과 가회동성당은 한국천주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외국 신부인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1752~1801)는 1795년 조선에 몰래 들어와 북촌(계동)의 최인길(崔仁吉, 1765~1795)의 집에 은거하면서 미사를 집전하고 포교활동을 했습니다. 1955년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垌, 1877~1955)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가회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의친왕 임종 이틀 전에는 의친왕비 김숙(金淑, 1881~1964)도 가회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당 건너편에는 주문모 신부가 미사와 세례 때 성수로 썼다는 석정보름우물이 있습니다.

三清洞石阶路

北村韩屋村曲折折的小巷众多, 其中尤以原三清洞62号的石阶路最为特别。这是一段东高西低的坡路, 在建造韩屋时在小巷里铺设了台阶。狭窄的石阶顺着韩屋筑起的墙壁而蜿蜒, 仿佛是迷宫一般, 而摆放在石阶旁的一盆盆漂亮的花草则诉说着浓浓的市井人情。

嘉会洞天主教堂

嘉会洞天主教堂目前成为北村韩屋村的新兴名胜。教堂于2013年经过重建, 呈现出教堂建筑样式与韩屋和谐相融的壮观景象。走进教堂的院落, 最先映入眼帘的是韩屋, 其后才是教堂建筑。韩屋与周边风光完美结合, 令嘉会洞天主教堂完全融入北村的氛围之中。登上教堂的天台, 整个北村的韩屋都在眼前一览无余。

北村及嘉会洞天主教堂在韩国天主教的历史上具有重要的意义。韩国首位外国神父周文謨(1752~1801)于1785年偷偷潜入朝鲜, 隐居在北村(桂洞)崔仁吉(1765~1795)的家中, 开始主持弥撒及布教活动。1955年高宗的第5个儿子义亲王李垌(1877~1955)于去世前一周在嘉会洞天主教堂受洗, 其王妃金淑(1881~1964)也于五日后接受了洗礼。周文謨神父主持弥撒和施洗时所用的圣水即出自教堂对面的石井十五日井。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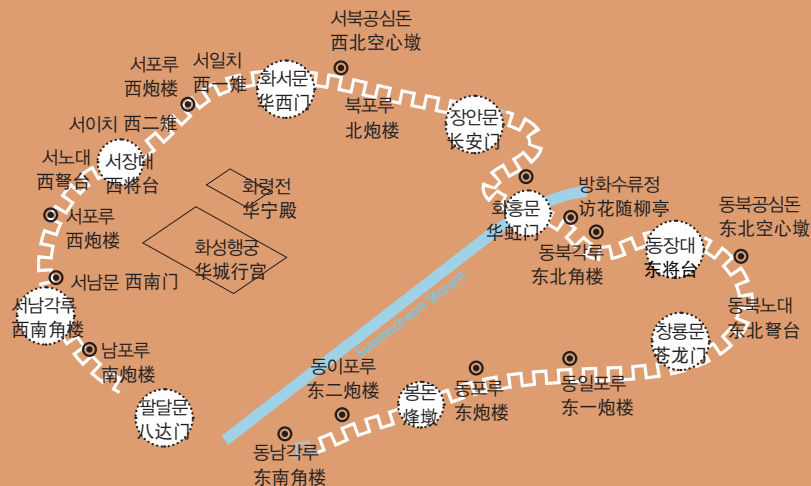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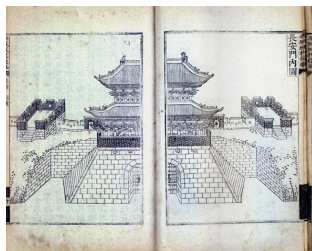
5 한국 성곽의 최고 걸작품 수원화성 韩国城邑中的精品水原华城

수원화성은 동양 성곽의 웅대함과 서양 성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한국 성곽의 걸작품입니다. 한국의 성곽 중 가장 과학적인 설계로 지어져 공격과 방어에 용이한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瓮성이나, 치, 공심돈 등의 시설물들이 독창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水原华城兼具东方城邑的雄伟与西方城邑的实用性，拥有瓮城、空心墩等创造性的先进攻防设施，是以科学设计为基础的韩国古代城邑杰作。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일원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버스 310, 7-2, 66-4, 60, 7-1 → 장안공원 정류장에서 하차, 수원화성까지 약 100m도보)
- 📞 서장대대표소 031-228-4669
장안문대표소 031-225-4513
화성행궁대표소 031-228-4677
- 🌐 www.swcf.or.kr (中、英、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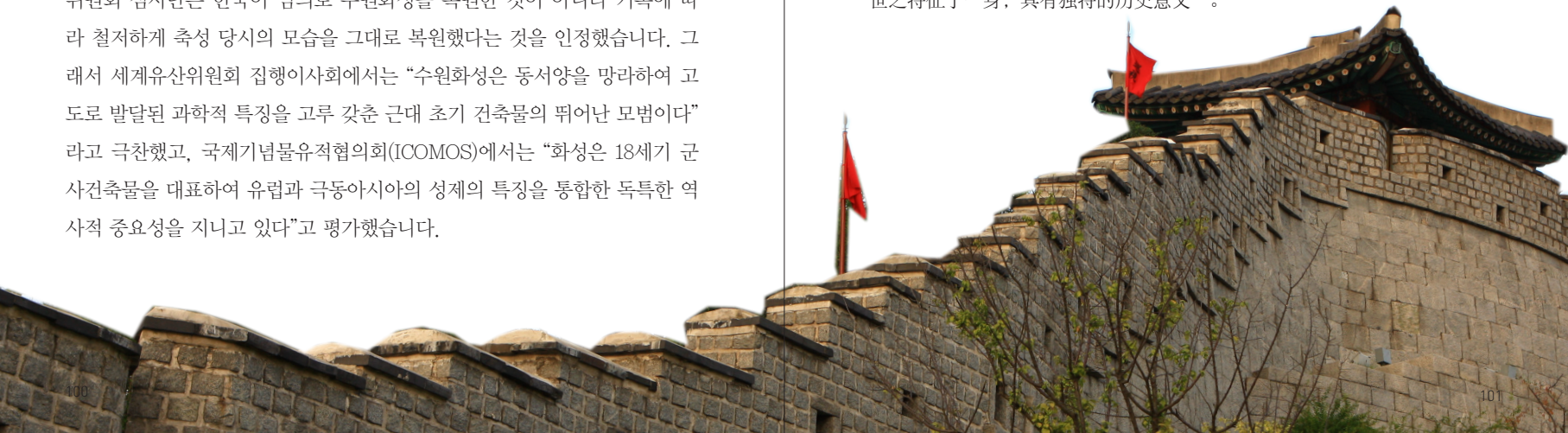
수원화성은 1794년부터 1796년에 걸쳐 축조된 성곽입니다. 약 220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지녔지만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1910~1945)와 6·25전쟁(1950~1953)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파괴되고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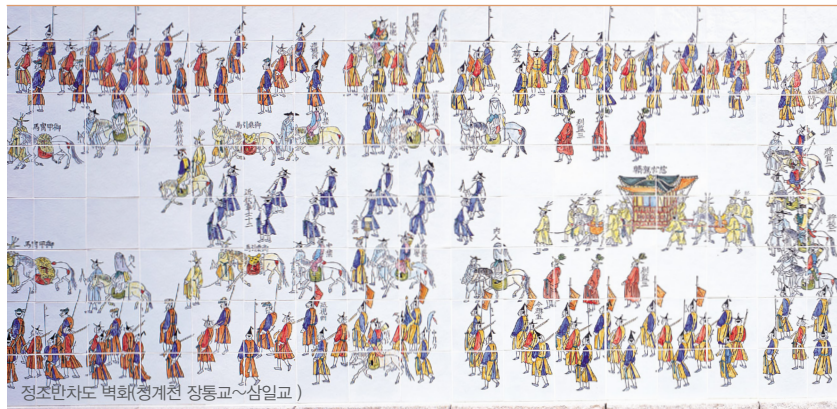
실되어 1975~1979년 축성 당시 모습대로 복원한 것임에도 유네스코는 수원화성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단은 수원화성이 본 모습이 망가지고 난 후 새롭게 복원한 것 때문에 등재를 꺼렸다고 합니다. 새로 성을 쌓으면서 본래의 모습과 달라졌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보여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화성성역의궤>는 수원화성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의식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성곽의 설계 과정, 실제 지어진 건물의 형태, 규격과 특징,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재료 가공법에서 동원된 인력의 인적 사항, 예산, 각종 공문서까지 수원화성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단은 한국이 임의로 수원화성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기록에 따라 철저히 축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에서는 “수원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 초기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라고 극찬했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화성은 18세기 군사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독특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水原华城始建于1794年，完工于1796年。虽然只有短短的220年历史，水原华城却在1997年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文化遗产名录。其实，华城的相当一部分建筑在日本侵占韩半岛（1910~1945）期间及后来的6.25战争（1950~1953）中遭到破坏，如今人们看到的水原华城是1975~1979年修缮后的模样。这样一座并非“原汁原味”的城邑，究竟是如何打动联合国教科文组织的呢？

据说，世界遗产委员会审查团当初因为华城重建的原因，曾犹豫是否应将其列入世界文化遗产。因为，他们担心重建前后的水原华城迥然不同。不过，韩国方面向审查团成员出示的《华城城役仪轨》却改变了他们的想法。这是一本与华城修建制度、仪式相关的书籍，收录内容包括与华城设计过程、实际建筑形态、规格及特征相关的资料，与原材料来源、用途以及参与建筑的人员、预算及薪金相关的资料，以及各种往来公文。可以说，水原华城从无到有的全过程都记录在《华城城役仪轨》里。世界遗产委员会审查团最终认定，水原华城并不是韩国人随意重建的城邑，而是严格依照记录对当时建筑的复原。世界文化遗产委员会执行理事会曾称赞水原华城是“东西方近代初期建筑物的典范”，具有“高度发达的科技特征”；而国际古迹遗址理事会(ICOMOS)则评价华城为“18世纪军事建筑的代表，集欧洲与远东盛世之特征于一身，具有独特的历史意义”。





정조의 효심에서 태어난 도시

수원화성이 위치한 수원은 ‘효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조선 제 22대 정조(1752~1800)가 아버지 장조(사도세자, 1735~1762)의 묘를 옮기는 데서 수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신하들의 권력 다툼으로 희생자가 된 아버지의 혼을 달래기 위해 즉위 13년(1789) 되던 해에 장조의 묘를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명당자리를 찾았고, 지금의 수원 용릉(隆陵)으로 뒷자리를 결정하고 대역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조의 지극한 마음에서 수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에 ‘효’는 수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추천코스



* 팔달문 → 서남각루 → 서장대 → 화서문 → 장안문 → 동장대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 장안문 → 화성행궁 (약 2시간 소요)

* 화성행궁 → 서장대 → 화서문 → 장안문 → 북수문(화홍문)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 창룡문 → 봉돈 (약 3시간 소요)

* 서장대 → 화서문 → 서북공심돈 → 장안문 → 북수문(화홍문)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 동장대 → 동북공심돈 → 창룡문 → 봉돈 → 팔달문 → 화성행궁 (약 7시간 소요)

수원화성을 탐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곽을 따라 한 바퀴 돌면서 성벽에 설치된 방어시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 5km가 넘는 성곽을 돌아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여유가 충분하고 수원화성에 관심이 있다면 하루 코스를 따라 성곽을 완주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사정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관람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因孝而生的城市

水原华城所在的水原市最初由朝鲜第22代君王——正祖（1752~1800）为迁移父亲庄祖（1735~1762）的坟墓而修建，因此又被称为“孝城”。正祖的父亲是古代朝鲜党派之争的牺牲品。为了慰藉父亲在天之灵，正祖在继承王位后的第13年（1789）决定为父亲迁坟。正祖最终选定水原隆陵的风水宝地，由此开启了水原的历史。水原市的出现，因此与“孝”紧紧相连。

推荐路线



* 八达门 → 西南角楼 → 西将台 → 华西门 → 长安门 → 东将台 → 东北角楼（访花随柳亭）→ 长安门 → 华城行宫（需2小时）

* 华城行宫 → 西将台 → 华西门 → 长安门 → 北水门（华虹门）→ 东北角楼（访花随柳亭）→ 苍龙门 → 烽墩（需3小时）

* 西将台 → 华西门 → 西北空心墩 → 长安门 → 北水门（华虹门）→ 东北角楼（访花随柳亭）→ 东将台 → 东北空心墩 → 苍龙门 → 烽墩 → 八达门 → 华城行宫（需7小时）

游览水原华城最好的办法就是沿着城郭，慢慢游览设在城墙上的防御设施。不过，城墙总长5公里，一边走一边看，需要花费不少时间。时间充裕的游客不妨制定1天的行程，沿着水原华城走一圈。时间紧张的游客可以根据个人喜好有选择地参观代表性的防御设施。

양주 배봉산(현 서울 휘경동)에 있던 장조의 묘소를 경기도 화산(현 경기도 화성)으로 옮기는 동시에 수원을 현재의 위치인 팔달산 기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고, 화성을 건설한 것이죠. 아버지의 묘를 참배할 때 머물기 위한 행궁을 짓고, 능을 지키기 위해 용주사(龍珠寺)를 창건하며 천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정조가 왕위를 이어받은 18세기 후반은 조선의 당파 간 권력다툼(당쟁)이 극심하던 시기입니다. 서로 견제하며 발전을 추구하던 봉당정치의 기본원리가 무너지고 하나의 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당파 간 싸움이 최고조에 달해 발생한 사건이 장조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일입니다.

장조는 제 21대 영조(1694~1776)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있었지만 일찍 죽은 탓에 2세의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0세에 헌경왕후(혜경궁 홍씨, 1735~1815)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해서 영조의 사랑을 받았으나, 15세에 영조를 대신해 국정을 담당하면서 정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비극이 시작되었지요.

장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신하들은 어떻게든지 왕세자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잘못을 과대 포장하고 허위사실을 꾸며 영조에게 알렸습니다. 반대와 신하들의 계속되는 이간질 속에 영조의 화는 극에 치달았고, 결국 세자는 평민으로 강등되고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죽었습니다. 당시 왕세자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죽은 뒤 사도(思悼)라는 시호(왕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를 내렸습니다. 그의 아들인 정조가 왕으로 즉위한 후에는 장헌(莊獻)이란 시호를 받고, 1899년에 다시 장조(莊祖)로 추존되었습니다.



正祖在将庄祖的坟墓由杨州拜峰山（现首尔市徽京洞）迁至京畿道华山（现京畿道华城）时，也将水原迁移到如今的八达山脚下。城里的老百姓自然也搬到了新建的华城里居住。正祖在华城修建了拜祭父亲时停留的行宫、守护陵墓的龙珠寺，甚至还计划将首都迁到水原华城。

18世纪正祖继承王位时，正值朝鲜的党派之争最为激烈之时。原本相互倾轧的朋党政治逐渐出现一方在政治上具有压倒性优势的局面。正祖的父亲——庄祖被囚于米柜中惨遭饿死的事件就是党派之争白热化的结果。

庄祖是朝鲜第21代君王——英祖（1694~1776）的二儿子。因大王兄英年早逝，庄祖出生刚一年就被册封为王世子。10岁时，庄祖迎娶献敬王后（1735~1815）为世子妃。幼年的庄祖聪颖过人，深得英宗喜爱。15岁时，庄祖受命代理朝政，却因此卷入朝廷党派之争，揭开他人人生悲惨的命运篇章。

反对庄祖继承王位的朝臣党派时常在英祖面前夸大并捏造世子的过失，期望借此废除庄祖的世子身份。由于这些朝臣的挑拨，英祖对庄祖十分不满，最终于1761年将庄祖贬为平民，并将其囚禁于米柜之中。8天后，年仅27岁的庄祖活活饿死。后来，英祖赐谥号（君王、诸侯、大臣或后妃等具有一定地位的人死去后，根据他们的生平事迹与品德修养，由在位君王所赐予的称号）“思悼”。正祖继位之后，加封谥号为“庄献”；后于1899年追尊为庄祖。

왕위계승을 놓고 벌인 당파 간의 세력다툼에서 아버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광경을 목격한 정조는 구시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신념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당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던 정책인 탕평책을 계승해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되고, 사회적인 안정감을 찾자 즉위 13년(1789)에 장조의 무덤을 이장할 것을 결정합니다. 양주 배봉산에 있는 무덤을 명당으로 알려진 수원으로 옮기고, 새로 조성할 수원 신도시를 지금의 팔달산 밑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왕의 계획이 발표되자 신하들 사이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정조가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정조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권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선의 정치사상을 지배하는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Must See



수원화성박물관 수원화성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수원화성박물관을 추천합니다. 수원화성의 축성과정과 도시발전을 알려주는 화성축성실과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한 인물과 정조의 8일간의 행차, 화성에 주둔했던 장용영(壯勇營)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성문화실 등을 통해 수원화성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성실에는 정조가 화성행차 시 입었던 황금갑옷, 수원화성 축조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와 화성유수 조심태(1740~1799)에게 보낸 정조의 비밀편지, 장조가 문신인 조돈(1716~1790)을 경기관찰사(오늘날 경기도지사) 겸 병마수군절도사(각도의 육군과 수군의 최고 지휘관) 등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명령서가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21 ☎ 031-228-4205 🕒 09:00~18:00 *매월 첫째 월요일 휴관 🎫 어른 2,000원 · 청소년 1,000원 · 어린이 무료 🌐 hsmuseum.suwon.go.kr

正祖为父亲的不幸离世深感哀痛，下定决心要破除旧时代的政治制度，建设一个全新的国家。为了根除朋党之争的弊端，正祖推行“荡平策”，均衡启用各党派人才，在一定程度上巩固了王权。社会安定后，正祖在继位后的第13年（1789）决定将父亲的坟墓由杨州拜峰山迁至风水吉祥的水原，并将新建的水原城迁到八达山脚下。



正祖要建设新城的计划一经发布就遭到朝臣的强烈反对，因为他们知道正祖是要借新城来实现自己的政治理想、强化王权。不过，朝臣最终也没能改变正祖的决定。这倒不仅仅是因为正祖为君，而朝臣只能依从君王的决定。

Must See



水原华城博物馆 游客若想了解水原华城的相关信息，不妨将水原华城博物馆列入行程。除常设展览外，博物馆还设有筑城室、文化室等多个展厅。游客在筑城室里可以浏览与华城的建造过程及城市发展相关的资料，在文化室里则可以看到当时参与建造工程的人物介绍、正祖8日出行记录及当时驻城壮勇营将士的模样。其中，正祖出行时所着的黄金甲、记载筑城相关事宜的《华城城役记》、正祖写给华城留守（陪都、行都常设的行政长官）——赵心泰的密信以及思悼世子任命赵敏(1716~1790)为京畿观察使（地方行政长官，仅次于节度使）兼兵马水军节度使（地方陆、水军的最高将领）的官文均陈列在筑城室里，尤其值得一看。



📍 京畿道水原市八达区苍龙大路21 ☎ 09:00~18:00*每月第一个周一休息 🎫 成人 2,000韩元、青少年 1,000韩元、儿童 免费 🌐 hsmuseum.suwon.go.kr (中、英、日)

조선은 유교의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린 나라였습니다. 왕은 나라를 무력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덕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왕도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신하들도 당파가 갈려 논쟁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교에서는 나라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가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정조가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무덤을 좋은 자리로 옮기려는 명분을 내세웠으니 아무리 반대파에 속해 있던 신하들이라도 쉽게 반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효의 실천’이라는 명분에는 누구도 쉽게 반기를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이념인 유교는 무엇보다도 효를 중시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보다 앞서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라고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는 한편, 화산 아래에 있던 주민과 관가를 팔달산 아래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도시 경비를 위해 왕의 친위대를 보내 지키게 했으며, 부근 지역의 군영에서 우수한 군인들을 뽑아 배치함으로써 군사력도 증강시켰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안정과 체면을 높이기 위해 수원부(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수원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구역)를 유수부(옛 도읍지나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로 승격시키고 축성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원은 경제, 군사적으로 왕의 강력한 배후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과학장비가 동원된 수원화성

화성을 둘러싸는 성곽의 건설은 당시 실학자였던 정약용(1762~1836)이 맡았습니다. 정약용은 한국의 전통적인 축성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성곽의 장점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성곽을 설계하였습니다. 한국의 성곽은 평상시에 거주하는 읍성과 전쟁 시에 피난처로 삼는 산성으로 나누어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화성은 특이하게 산성을 별도로 쌓지 않고 거주하는 읍성에 방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朝鲜王朝以儒教传统为立国之基本，君主治理国家重在德治、礼治，即遵从法理、以身示德，让百姓效仿。这样的政治思想被称为王道政治。朝廷的百官虽然拉帮结派开展朋党之争，但其立足根本还是为了实现儒家思想，而儒家思想又最看中对国家的“忠”与对父母的“孝”。正祖建城的同时还特意为父亲迁坟，此为孝举，同样尊奉儒家思想的反对派自然无法反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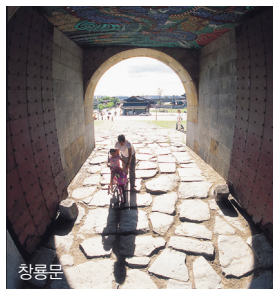
也就是说，正祖以孝顺为名推行的计划在朝鲜这个以孝为先的社会，几乎不可能被挑战、被反对。因此，站在正祖对立面的反对派最终只能听任正祖推行他的建城计划。



当时，正祖不仅将庄祖的坟墓迁移到华城，还让原本居住在华山脚下的官民全部搬迁到八达山下。正祖派出王家亲卫队守卫华城，并从附近地区的军营里抽调出色的士兵到华城，增强了华城的军事力量。此外，正祖还将水原府（朝鲜时期以防卫都城为目的，在水原设置的特殊行政区域）升格为留守府（古代在都城或军事要塞设置的官府）。经过一系列的布置与安排，水原在经济与军事方面成为当时最强盛的“卫星城”。

利用高科技修建的水原华城

华城的城郭建设由当时朝鲜有名的实学家——丁若镛（1762~1836）负责。以韩国传统建筑技术为基础，丁若镛借鉴中国城邑的优点，辅以西方的科学技术，设计了具有时代先进性的华城城郭。



창룡문

성곽의 방어 시설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창룡문(蒼龍門), 서쪽으로 화서문(華西門), 남쪽으로 팔달문(八達門), 북쪽으로 장안문(長安門) 등 4대문을 내고, 각 성문에는 방어기능을 위한 옹성(甕城)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의 정문 역할을 하는 팔달문과 장안문

좌우에는 적을 살피기 위한 4개의 감시대를 두었는데, 이것을 적대(敵臺)라고 합니다. 화성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망루와 포루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독특한 방어시설인 공심돈 3개, 성벽에서 약 100m 간격으로 돌출되어 성에 접근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한 치성(雉城), 대포를 설치한 포루(砲樓) 5개, 포루 위에 누각을 올려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한 각루(角樓) 4개, 적의 이목을 피해 몰래 드나들 수 있는 비밀통로인 암문(暗門) 4개를 설치했습니다. 팔달산 아래에는 행궁(行宮)을 지어 현릉원(顯陵園, 현재 용릉)에 행차하는 임금이 일시 머물 수 있게 제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Must See



수원화성의 대표적 방어시설

옹성 적에게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 바깥에 이중으로 쌓은 성벽. 성을 지키기 위해 성문 밖에 원형이나 방형으로 쌓습니다.

암문 적에게 잘 띄지 않는 곳에 비밀스럽게 만든 비상 출입구.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성벽 일부를 이용해 은밀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비상시 성 안에서 필요한 병기, 식량 등 물자를 운반할 때 사용합니다.

적대 성문이 공격받을 때 가까이에서 방어하기 위해 성문 옆 성벽을 돌출시켜 좌우에 설치한 치. 성벽에 설치한 치와 구분하기 위해 적대라고 합니다.

여장 성벽 위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낮게 쌓은 담장. 여장은 활이나 총을 쏘기 위한 구멍을 내서 적에 대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총안 활이나 총을 쏠 수 있도록 여장에 뚫어 놓은 구멍.

각루 성곽 모서리 부분에 설치한 치.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돌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돈 성곽 주변을 감시하는 초소이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시설. 공심돈을 가장 높은 지역에 만들어서 적을 관찰하기 쉽도록 했고, 내부를 여러 층으로 만들고 위아래에 구멍을 뚫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在当时，依山势修筑山城是最常见的方法。水原华城却没有单独设山城，而是直接在城门与城墙上修建各种御敌设施，以提升城邑的防御系数。水原华城设有四个城门，分别为东侧的苍龙门、西侧的华西门、南侧的八达门和北侧的长安门；每座城门外均设有御敌的瓮城。正门长安门与八达门的左右还设有4座名为“敌台”的高台建筑，用以侦查城门附近可能出现的敌情。此外，华城的城邑上还筑有3个带射击孔的空心墩、5座向城墙外突出百米的雉城及炮楼，炮楼上还设有供站岗士兵休息的4座角楼。另外，华城共有4道暗门，用于秘密运送物资或出入。正祖拜祭显陵园（现隆陵）时停留的行宫建在八达山脚下，行宫里设有君王所需的各种设施。



동일포루



장안문

Must See



水原华城的代表性防御设施 **瓮城** 为了加强城门的防守，而在城门外修建的半圆形或方形的护门小城。

暗门 凿于城墙壁的秘密出入口，从外部不可见，主要用于出奇兵袭敌，或运送紧急物资。

敌台 位于城墙上端，用来加强防御能力的高台、城楼等建筑。通常设在城门两侧，其主要功能是加强防御。

女儿墙 指古代城墙外围的矮墙，墙上设缺口，多作弓箭或火枪射孔，可用于攻击与御敌。

銃眼 设在垛堞或女儿墙上的缺口，便于弓箭与火器的发射。

角楼 设于城郭防御建筑的转角处，多为防御设施。

墩 是监视城郭周边的哨所，也是防止敌人进攻的设施。空心墩设在城墙最高处，便于监视敌人；内部分层并设有可发射弓箭的缺口。

그럼 수원화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알아보까요?

수원화성은 정약용의 설계를 바탕으로 1794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796년 9월에 완공했습니다. 성곽의 둘레는 4,600보(5.52km)에 달하고, 성에 속한 건물도 40여 채가 넘는 대공사인데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시켰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의 기술 수준을 생각한다면 불가사의한 일과 같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천재적인 학자인 정약용이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료를 규격화하고, 새로운 과학 장비를 활용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인 정조가 수원화성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을 믿고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중기(다산기념관 - 경기도 남양주시)

특히 정약용은 수원화성 축조를 위해 유형거, 녹로, 거중기 등의 과학 기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중 최고의 발명품은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입니다. 정조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다가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만들라는 명을 내리자,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도르래를 많이 사용할수록 힘이 덜 든다는 것에 착안해 개발했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 완성된 모습의 거중기와 각 부분을 분해한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거중기는 위, 아래에 각 네 개의 도르래를 연결하고 가장 높은 가로 막대에 두 개의 도르래를 매달았습니다. 양 옆에 도르래를 잡아당길 수 있는 줄을 옆에 연결해 줄을 감고 푸는 것에 따라 돌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수원화성 공사에 거중기 한 대가 사용됐는데, 왕실에서 직접 제작해 공사현장에 보냈다고 합니다.



서남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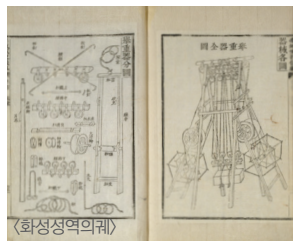
现在我们来看看水原华城究竟是怎么建造而成的。

水原华城的建设工程始于1794年2月，竣工于1796年9月。华城周长5.52公里，城上建筑多达40多个。这样一件浩大的建筑工程耗时仅2年半，实在让人有些惊奇。

如果考虑到当时的建筑技艺和水平，简直就像是件不可思议的事。华城能在短时间内圆满建成，很大程度上要归功于天才学者丁若镛在原材料规划及科学器械使用方面的贡献。当然，正祖对人才的启用、信任以及支持也是重要的原因。

据记载，丁若镛在设计、建造华城期间，创造性地发明了游衡车、轱辘、举重机等科学器械。其中，应用滑轮原理设计的举重器最为优秀。当时，正祖下令制造举高重物的器械，避免搬运重石时出现人员伤害。丁若镛参考中国的《奇器图说》，发现滑轮的使用与力气成反比。即，使用的滑轮越多，花费的力气越小。他根据这个原理发明了举重器。《华城城役仪轨》中有举重器的图片及各部位零件分解图。举重器上、下部各有4个滑轮，最高的水平横木上还挂着两个滑轮。这两个滑轮可以使用缠绕在绕线筒上的绳索拉动，以改变滑轮位置。据说，建造水原华城时使用的举重器由王室制作而成。

최신 기기를 적극 활용해서 기간과 비용을 절감했지만, 수원화성 건립에는 막대한 인원과 물적 자원이 투자됐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왕과 서울 수비를 담당하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정번전(군대에 가지 않고 내는 돈) 10년 치를 앞당겨 썼고, 전라도·경상도·평안도 감영의 보조재원을 활용했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성을 쌓는 데 석재 18만 7,600개, 벽돌 69만 5,000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식량만도 쌀 6,200석, 콩 4,550석, 기타 잡곡 1,050석이나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목재 2만 6,200주, 철물 55만 9,000근, 철엽 2,900근, 숯 6만 9,000

석, 기와류 53만 장, 석회 8만 6,000석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동원된 인부는 석수 642명, 목수 335명, 미장이 295명을 비롯해 기술자만 1만 1,820명입니다. 작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책임자, 작업자로 구분되어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원은 ‘갈비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1940년대까지 한국 최대 규모의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시장이 발달하게 된 것이 수원화성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도 날랐습니다.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동물이었기에 도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수원화성을 쌓는 데 참여한 인부들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원에서 만큼은 소 도축을 허용해서 우시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虽然新型器械的使用节约了工程时间与费用，建造水原华城依然动用了大量人力与物力。建造工程所需的经费部分来自禁卫营与御营厅的停番钱（替代服军役的钱），部分来自全罗道、庆尚道与平安道监营（朝鲜时期，各道的观察使居住的官衙）的辅助财政经费。禁卫营与御营厅是负责君王与汉阳（现首尔）守卫工作的军队。

据《华城城役仪轨》记载，建造华城共使用18.76万件石材、69.5万块墙砖；消耗大米6,200石、大豆4,550石，以及1,050石杂粮。除此以外，建城还使用了2.62万株树木、55.9万斤五金件、2,900斤铁叶（金属锁搭扣）、6.9万石木炭、53万张瓦片及8.6万石石灰。此外，参加华城建造工程的石匠为642人，木匠为335人，泥瓦匠为295人，仅技术人员就达11,820人。所有参加华城建筑工程的人员被分为负责人和作业人两类，每个人的名字都记录在《华城城役仪轨》中。

今天的水原又有“烤排骨故乡”之称。直到上个世纪40年代，水原一直是韩国规模最大的牛肉市场，而牛肉市场得以发展的原因便是水原华城。牛在古代朝鲜是百姓的“好朋友”，无论是犁地、耕田还是托运重物，都离不开牛。当时，朝鲜严禁私自屠宰牛。不过，为了让华城建造人员维持充足的体力，朝廷特别允许水原地区屠宰牛，牛肉市场也因此逐渐发展起来。

서장대에서 화서문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화성 탐방을 해 볼까요?

수원화성 탐방은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西將臺)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장대는 성곽의 안팎은 물론 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백 리(약 40km)의 모든 동정을 파악할 수 있

어 장군이 전투나 군사훈련을 총지휘하던 곳입니다. 정조가 아버지의 능을 참배하러 올 때 이곳에서 직접 군사훈련과 볼꽃놀이를 참관했다고 합니다. 서장대 뒤편에는 오늘날 석궁과 비슷한 활인 쇠뇌를 쏘는 군사인 노수가 머물던 서노대(西弩臺)를 세웠습니다.

서장대에서 북쪽으로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서포루(西砲樓)를 만나게 됩니다.

포루는 치성(雉城) 위에 전각을 만든 것입니다. 적이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포를 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서포루(西砲樓) 좌우에는 서일치(西一雉)와 서이치(西二雉)가 있습니다. 치는 적을 감시하고 성벽을 오르는 적을 막기 위해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 만든 구조물입니다. 서일치 옆으로 서북각루(西北角樓)가 보입니다. 서북각루(西北角樓)는 화성의 4개 각루 중 하나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적들의 침입을 관측하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비상시 각 방면의 군사지휘소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곳은 1층에 온돌을 설치해 숙직하는 병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았습니다. 서북각루의 묘미는 화서문 쪽으로 바라보이는 전망입니다. 장안문까지 이어지는 성곽이 현대 건축물들과 어울려 멋진 풍경을 만들어 냅니다.

从西将台到华西门

接下来让我们到水原华城里去看看，就从八达山顶峰的西将台开始。

西将台是军队首领指挥战斗或将士接受训练的指挥台，不仅城墙内、就连城四周百里（约40公里）都在视野范围内。据说正祖在前往父亲陵墓的途中，曾到西将台巡查军事训练并观看烟火表演。西将台后设有西弩台，是使用弩机的弩手攻击敌人的地方。

由西将台往北沿着城郭行走，不久便来到西炮楼。炮楼建在雉城之上，是架设火炮的地方。

左右分别为西一雉与西二雉。所谓雉，是指城墙突出建城的军事防御设施，用于阻止敌人攀爬城墙。西一雉旁的楼阁建筑是西北角楼，为华城四大角楼之一。角楼地势较高，能有效观察敌人动静，也是防守将士休息的地方。战事紧急时，角楼也被用作临时军事指挥所。西北角楼的1层设有地热，方便夜间值守城墙的士兵休息。此外，西北角楼的妙趣还在于望向华西门方向的景致。从华西门延绵至长安门的城郭为身后的现代建筑所衬托，勾画出古今交错的美丽图画。





화서문은 수원화성의 서문입니다. 성벽 위에 단층으로 문루(門樓, 성문 위에 지은 건물)를 세웠는데, 안에서 밖을 보면 성벽에 가로막혀 답답해 보입니다. 성벽에 바짝 붙여 문루를 지은 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겨울에는 바람을 여름에는 햇빛의 열을 막아주어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성문 앞에는 반달형 석축으로 두른 옹성(甕城)이 있습니다. 화서문 옆에는 공격하는 적들을 삼면에서 저격할 수 있도록 지은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북공심돈과 화서문을 함께 바라보면 ‘성의 미려함이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정조의 철학이 잘 반영된 수원화성의 건축미에 감탄하게 됩니다. 공심돈은 수원화성에서 처음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공심돈은 적이 오는지 감시하고 공격하는 요새입니다. 약 13m 높이에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 부분은 마루를 깔았고, 사다리를 놓아 위아래로 통하도록 했습니다. 맨 위의 용 머리가 그려진 전각에서는 활을 쏘았고, 몸체의 수많은 구멍에서는 총과 포를 쏘았습니다. 세로로 길게 내리 뚫어 놓은 구멍은 현안(縣眼)으로 성 밑을 살피거나 기어오르는 적에게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부어 적의 공격을 막는 장치입니다. 한국의 성곽 중 수원화성에만 있는 시설물입니다.

华西门是水原华城的西门，城墙
上设单层门楼。从城里往外看，城墙
紧贴城墙而建。据说，这样的设计不
仅能有效防御敌人进攻，在冬、夏两
季还能分别抵挡寒风与烈日。华西门
的前方是呈半月形的瓮城，旁边还有
能从三面阻击敌人的西北空心墩。



据说，正祖曾赞叹称，华城的雄伟与美丽能让敌人心存畏惧。水原华城的建筑美确实具有让人惊叹的力量。空心墩是水原华城最早设计、建造的军事设施，用于监视或攻击敌人。空心墩高约13米，内部分为3层。空心墩的2层与3层铺有木地板，上下楼使用梯子连接。空心墩顶部是弓箭手位置，楼身的多个小孔则被用来发射火炮或火枪。墙上细长的开口名为“县眼”，是观察城门下方的设施，也被用来向攀爬城墙的敌人泼热水或热油。在韩国所有的城邑中，空心墩仅见于水原华城。



장안문에서 팔달문까지

장안문(長安門)은 수원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번성했던 도시인 ‘장안성’처럼 번성한 도시가 되라는 정조의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죠. 한국에서는 궁궐이나 성곽의 정문은 남문인데 수원화성은 왜 북쪽 대문인 장안문이 정문일까요? 정조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수원에 행차했을 때 가장 먼저 통과하는 문이 장안문이기 때문입니다.

장안문은 문루의 높이가 13.5m, 너비가 9m로 서울의 숭례문(국보 제 1호)보다 큼니다. 성의 모습은 숭례문과 무척 닮아있죠. 문 앞으로 웅성이 설치되어 있고, 양 옆으로 감시 시설인 적대(敵臺)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기 위한 웅성과 적대는 2층, 3층의 방어시설로 수원화성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임을 보여줍니다.

장안문 옆에는 북쪽 수문인 화홍문(華虹門)이 인접해 있습니다. 화홍문은 남북으로 흐르는 수원천의 범람을 막아주는 동시에 방어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문입니다. 7칸의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누마루 형식의 문루를 세웠습니다. 수원화성 중 가장 풍광이 좋은 곳으로 손꼽히며,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이 유명합니다.

화홍문 옆에 있는 동북각루(東北角樓, 방화수류정)는 성의 동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요지입니다. 주변을 감시하고 유사시 군사를 지휘하는 시설입니다. 언덕 위에 정자가 있고, 정자 아래에 있는 못은 용연이라고 합니다. 전시용 건물이지만 정자의 기능을 고려해 석재와 목재, 전돌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건축했습니다.



화홍문

从长安门到八达门

长安门是水原华城的北门，也是正门。取名“长安”，蕴含正祖希望这座新建造的城市能像中国长安古城一样繁荣、昌盛之意。在韩国，宫阙或城邑的正门一般是南门。华城的正门为什么会设在北边？原来，这道大门是正祖由汉阳出行至水原时，最先通过的城门。

长安门的门楼高13.5米、宽9米，与首尔崇礼门（即南大门，韩国第1号国宝）的外形十分相似，但规模更大。长安门前设有瓮城，左右两侧还修筑了敌台等军事防御设施。瓮城与敌台形成对城门的三重乃至多重保护，使水原华城成为一座易守难攻的铁城。

距离长安门不远处是华城的北侧水门——华虹门。华虹门能防止南北流向的水原川泛滥，同时还具有御敌功能。华虹门设有七个拱形桥洞，桥上建门楼。这里是水原华城景色最漂亮的地方，尤以夜景最为动人。

访花随柳亭位于华虹门旁，是水原华城的东北角楼。这里是连接东、北城邑的要塞，主要用于观察四周敌情或指挥战斗。访花随柳亭建在山坡上，亭下有一口名为“龙渊”的池塘。亭子使用石材、木材和粘土砖修建，精巧而美丽，在以防御为主的城郭建筑中尤其显眼。



방화수류정

정자 아래 부분의 문양이 보이나요? 주춧돌 위에 둥근 나무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벽돌을 쌓았는데, 십(十)자 모양으로 무늬를 넣어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정조는 1796년 성곽을 쌓을 곳을 둘러보다 이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팔달산 오른쪽의 거북바위를 마주보는 명당이면서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이죠. 정조는 이곳에 ‘방화수류정’을 지을 것을 지시합니다. 그로부터 45일 만에 정자가 완공되었는데요. 경치가 아름다워 조상들은 용연에 비친 달을 감상하는 낭만을 수원팔경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화홍문을 지나면 화포를 쏠 수 있는 동북포루(東北砲樓)가 있고, 이어서 군사들이 활을 쏘며 무예를 연습하던 동장대(東將臺)가 나타납니다. 수원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예를 훈련하던 장소입니다. 무예를 훈련한다고 해서 연무대(鍊武臺)라고도 부릅니다. 왕이 말을 타고 전각에 오를 수 있도록 흙으로 경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蒼龍門)을 만나게 됩니다. 창룡문은 돌로 쌓은 홍예문 위에 단층 문루를 세우고 밖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성을 쌓은 구조입니다. 내외 이중의



무지개문은 규모가 서로 달라 안은 높이 4.8m이고, 밖은 4.5m입니다. 성문 밖 왼쪽 성벽에는 책임자부터 말단 석수까지 성을 쌓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성곽에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사 실명제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창룡문 북쪽에는 서노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동북노대(東北弩臺)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不知道是否有人发现亭子墙面上的十字纹? 亭子的圆柱之间砌有砖墙, 而西侧墙面上就刻有十字花纹。这些简单的十字纹将访花随柳亭装扮得更加美丽。正祖于1796年在寻找修建城邑的位置时发现了这个地方。这里与八达山右侧的龟岩相对, 四方通达, 是风水学里典型的风水宝地。正祖于是下令在此修建访花随柳亭, 45天后亭子建成。访花随柳亭景色优美, 倒映在龙渊的月影还被韩国古人评为水原八景之一。

经过华虹门往前, 依次出现的是东北炮楼与东将台。东将台是守城将士练习射击与武艺的地方, 又被称为练武台。通往东将台门楼的大道以泥土铺设而成, 君王可骑马直达门楼前。

接下来是华城的东门——苍龙门。苍龙门下部为石造虹霓门, 门上建单层门楼, 门外还有防御性的瓮城。虹霓门为双重拱形门, 内外门大小不同: 里侧的拱形门高4.8米, 外侧的拱形门高4.5米。城门外的墙面上刻着城门建造者的姓名。从工程负责人到最低级的石匠, 无一例外。据说, 这样的制度叫做“实名制版”, 便于在城邑建设出现瑕疵时进行问责。此外, 苍龙门的北侧还有与西弩台功能相同的东北弩台。

창룡문에서 남쪽으로 성곽을 따라 가면 포루(砲樓·鋪樓)와 치(雉)가 번갈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걸으면서 성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벽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구멍이 멀리 보이는 것도 있고, 가까운 아랫부분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먼 곳의 적과 가까운 곳의 적을 구분해 공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성벽을 밖에서 보면 돌을 쌓아 올린 튼튼한 모습이지만, 안쪽에서는 낮게 담을 쌓은 것 같습니다. 성벽 안쪽은 흙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성이 바깥에서 공격을 받더라도 안쪽 흙이 완충작용을 하게 되면서 포탄이 박히게 되고,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시설은 봉돈(烽墩)입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외적의 침입을 왕에게 전할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을 피워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봉화라고 하는데요, 수원화성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알리던 곳이 봉돈입니다. 보통 봉화를 피워 올리는 곳을 봉수대라고도 합니다. 봉수대는 대부분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해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꽃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由蒼龍門往南，城郭上依次建有炮樓或雉城，沿途的城牆內側還留有許多小孔。這些孔叫作“銃眼”，是發射弓箭或火槍的地方。銃眼的視野範圍不同，既有可以觀察遠處敵情的銃眼，也有只能查看城牆腳下敵情的銃眼。遠近不同的銃眼設計可以確保城郭的防禦措施沒有死角。

水原華城的城牆從外面看上去十分牢固，從里面看上去却像是堆砌的矮牆。這是因為水原華城的城牆內側被泥土覆蓋、加固，形成一種緩衝裝置。當城牆受到外部攻擊時，內側的泥土可以緩解炮彈的衝擊力，使其嵌入牆里而無法讓城牆倒塌。水原華城的建築物中，最受關注的便是烽墩。古時候通信不發達，要將外敵入侵的消息傳達給君王，最快的方法就是烽火。以火為信號傳遞特定信息是古人在戰爭及非常事件中經常使用的通訊手段。通常，點燃烽火的高台被稱為烽火台，是古代重要的軍事防禦設施。遇有敵情發生，烽火台白天施煙、夜間點火，一台連一台地傳遞消息。韓國的烽火台大多設在地勢較高的山頭。

봉돈은 수원화성에 설치되어 있어 봉수대와 방어시설인 돈대의 두 가지 역할을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봉돈에는 다섯 개의 봉수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 적이 국경 근처에 나타났을 때 둘, 적이 국경에 도달하면 셋, 국경을 침범할 때 넷, 싸움을 시작하면 다섯 개를 띄워 비상사태를 전달했습니다. 연기를 뿜을 때 흩어지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이리뚱, 말뚱 말린 것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남각루(東南角樓)에서 팔달문 사이는 6·25전쟁 때 파괴되어 복원되지 않다가 이곳에 2012년 6월에 남수문이 복원되었습니다. 팔달문(八達門)은 수원화성의 남문입니다. 돌로 쌓은 무지개 모양의 문은 왕의 행차 시에도 가마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적입니다. 위에는 중층 문루를 세웠습니다. 문루 주위에는 낮은 담을 돌리고 바깥쪽으로는 반달형 옹성, 좌우에는 적대 등 성문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을 두었습니다.

왕이 행차해 머물던 화성행궁

행궁은 왕이 머무는 임시거처를 말합니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장조의 능을 참배할 때 머무르던 곳이지만, 왕에서 물러난 뒤에 어머니와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다른 행궁보다 대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행궁 입구의 광장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광장 바닥 곳곳에 커다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차도(班次圖)’라는 것으로 정조가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에 행차하는 행렬을 그린 그림입니다. 화성행궁에서 어머니 헌경왕후의 회갑연을 열 때 모습을 담은 그림도 있습니다. 인물 하나하나의 묘사가 정교하고 얼마나 성대한 잔치였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당시의 궁중연회의 형식과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그림입니다. 이외에도 수원화성의 성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는 연회, 어머니의 회갑연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모습, 군사훈련 모습 등의 그림도 있습니다.

在华城，封墩就是点燃烽火的地方，也就是水原华城的烽火台。不过，封墩同时还兼有墩台的功能与作用，因此得名。华城烽墩共有5个烽火台，平时正常情况下只使用1个来燃烟、点火。如果有敌人在国境附近出现就使用2个，敌人抵达国境时使用3个、侵入国境时使用4个，战争爆发时则需要使用5个。用烟、火来传递信息时，最重要的一点就是保证烟气笔直向上，不会被风吹散。因此，用来燃烟点火的原材料多为干狼粪或马粪。

东南角楼至八达门一带的城邑在韩国6.25战争中被损坏，至今仍未得到修复。八达门是水原华城的南门，拱形城门宽阔，能让君王的轿子与马车自由出入。石墙上建双重门楼，门楼四周以半月形瓮城保护，两侧还建有敌台等军事防御设施。

君王居住的华城行宫

行宫是指国王离开王宫外出时，临时搭建的居住场所。华城行宫是正祖在拜祭父亲陵墓时停留的地方，也是他计划在退位后与母亲共度晚年的地方。

行宫入口处有一座广场，广场的地面铺设着四幅美丽的瓷砖画。这些图画源自“华城陵行班次图”，主要描绘正祖陪同母亲出行水原的场面。其中，“奉寿堂进饌图”描绘了正祖在华城行宫为母亲——献敬王后举办六十寿宴的场面；“西将台城操图”描绘了正祖在祭拜父亲后，登上西将台亲自指挥守城将士操练的场面；“华城落成宴图”描绘了庆祝华城圆满竣工的宴会场面；“新丰楼赐米图”则描绘了正祖在新丰门前为贫困百姓分发大米的场面。这几幅栩栩如生的图画不仅将华城行宫的广场装扮得更加美丽，也向游客生动地展现了正祖出行华城的历史片段。

华城行宫的大门为新丰楼，行宫里最重要的建筑则是奉寿堂。奉寿堂是华城行宫的正殿，也是正祖为母亲举办花甲寿宴的地方。奉寿堂的名称蕴含正祖祈愿母亲万寿无疆之意。

정문인 신평루(新豐樓)를 들어서면 제일 중요한 건물이 봉수당(奉壽堂)입니다. 왕이 행차했을 때 정전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봉수당이란 이름은 현경왕후의 회갑연을 계기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 잔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봉수당과 연결된 장락당(長樂堂)은 현경왕후의 침전으로 쓰였습니다. 정조가 왕위를 물려주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정조가 머물렀던 곳은 복내당(福內堂)입니다. 평상시는 화성유수(지금의 화성시장)의 가족들이 지내다가 왕이 행차하면 거처로 사용했습니다. 정조가 화성 행궁을 자주 찾았음에도 따로 자신의 거처를 만들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거처를 짓는 데도 비용이 들지만 비어 있을 때에도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장소로 사용된 곳이어서 현재 대장금의 여러 장면들이 마네킹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봉수당 출입문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여택(維與宅)은 화성유수가 업무를 보며 머무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넓은 마당과 행각을 두고 있습니다. 누각 앞에는 양부일구(仰釜日晷, 해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해시계는 한글을 만든 조선의 4대 왕인 세종(1397~1450) 때인 1434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당시에는 서울(한양)의 가장 변화가인 종로에 백성들을 위해 설치한 최초의 공중시계였습니다.

与奉寿堂相连的长乐堂是孝敬王后的寝殿。长乐之名据说源自中国汉朝皇后居住的“长乐宫”。这座建筑是正祖计划在传位后与母亲一起居住的地方。

正祖在行宫内休息时使用的地方是福内堂。平时，福内堂由华城留守（华城最高行政官）及家人使用；君王出行至华城时，这里是君王的居所。正祖在当时虽然常常出行华城，却并没有为自己修建单独的住处。

这是因为不仅修建住处需要开销，正祖不在时管理住处也需要开销。为了节约不必要的花销，正祖决定与华城留守共用福内堂。福内堂也是韩剧《大长今》的拍摄地，室内使用若干蜡像来重现剧中的经典场面。



奉寿堂入口左侧有一座维與宅，是华城留守处理日常事物的地方。宅内设有一院子与楼阁，楼阁前置放着名为“仰釜日晷”的天文计时仪器。这座日晷建于世宗（1397~1450）在位时的1434年，最初被放置在汉阳最繁华的钟路上，是韩国最早的宫廷计时仪器。



화성행궁의 많은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이 낙남헌(洛南軒)입니다. 정조는 헌경왕후의 회갑연을 기념하여 군사들의 회식을 이곳에서 베풀었으며, 과거를 치러 급제자에게 합격증을 내려 주는 행사와 헌경왕후의 회갑연을 기념한 경로장치를 열었습니다. 낙남헌 안쪽에는 정조가 활을 쏘던 득중정(得中亭)이 있습니다.

낙남헌 옆으로 화령전(華寧殿)이 있습니다. 정조의 초상화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던 전각으로 운한각, 전사청, 풍화당 등의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제사 때 사람들이 모여 서고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월대(月臺)가 마련되었으며, 월대 앞에는 세 개의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가운데 계단은 혼백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옆 받침돌인 우석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조의 어진이 있는 화령전의 운한각(雲漢閣) 뒤편으로 가면 기단 한가운데에 커다란 아궁이(방에 불을 넣거나 솥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만든 구멍)가 있는데, 초상화가 모셔진 1칸 정도의 크기에만 구들(방 밑에 열기가 통하도록 난방을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 중 어진을 봉안한 부분에만 온기가 유지되도록 바닥에 구들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华城行宫的所有建筑中，只有洛南轩至今仍保持着初建时的模样。为纪念母亲六十大寿，正祖曾在洛南轩设宴招待华城将士。此外，这里还举办过向科举考试及第者赐予称号的仪式，以及纪念庆献敬王后花甲的敬老宴。洛南轩内的得中亭是正祖练箭的地方。

华宁殿位于洛南轩旁，殿内供奉着正祖的画像，每年都会举办祭祀活动。华宁殿内设有云汉阁、典祀厅、风化堂等建筑，殿前筑有月台。每逢举办祭祀活动，参加祭祀的人就会站在月台之上。月台前有三个台阶，正中央的台阶为亡灵专用，因此台阶两侧还刻有象征天界的云彩图案。

云汉阁是供奉正祖画像的地方。建筑后方的两根立柱之间有一口灶膛（生火取暖或加热的设施），正祖画像所在的房间还设有地炕（建在地下的供暖设施）。这样的设计可以有针对性地为画像所在的狭小空间供暖。



MEMO



6 건축으로 표현한 부처님 나라 불국사 筑在人间的佛国净土 佛国寺

불국사는 석굴암과 더불어 역사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불교유적입니다.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를 뜻하니, 불국사는 지상에 세워진
부처님 나라인 셈이지요. 돌계단, 석탑, 전각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고대국가인 신라는 불교국가였습니다. 1,200여 년 전 신라인의 두터운
신앙심에 불교의 철학과 사상이 더해져 불국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국사를 돌아보면 부처님의 나라를 다 둘러본 것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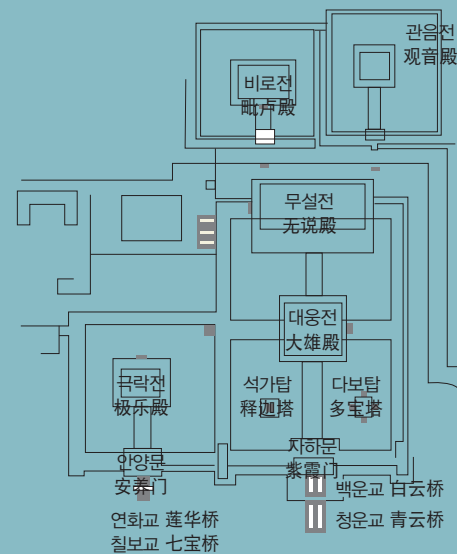
佛国寺建于1200多年前，是佛国净土在人间的象征。

佛国寺不仅是庆州最具代表性的佛教文化遗址，
也是整个韩国最有名的历史文化遗产。

从石阶到石塔，寺里的每一处建筑都有其象征意义。

虽然我们无从得知天上佛国的真正模样，

至少佛国寺为我们展现了新罗人理想中的佛国圣地。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 불국사 종무소 054-746-9913

○ guide.gyeongju.go.kr

불국사를 설명할 때는 항상 석굴암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토함산 중턱에 서로 이웃해 있고, 지어진 시기도 8세기 중반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대성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지어졌다는 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김대성은 효심이 깊은 사람이어서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었다고 합니다.

불국사는 공사 기간만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김대성의 주관 하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성은 완공을 보지 못하고 공사 시작 후 2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공사를 맡아 774년에 완공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둘러보는 불국사는 처음 지어진 당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1592~1598)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서 폐허에 가까운 절로 변했습니다. 타버린 건물은 20년이 지난 뒤부터 하나둘씩 복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에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추천 코스



불국사 입구 → 천왕문 → 청운교 · 백운교 → 석가탑 → 다보탑 → 대웅전 → 무설전 → 낙가교 → 관음전 → 비로전 → 사리탑 → 극락전 → 연화교 · 칠보교(약 1시간 30분~2시간 소요)

불국사는 넓기도 하지만 볼 것도 많습니다. 계획 없이 걷다가는 힘만 들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불국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추천 코스를 따라 각 구역을 움직이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연화교 · 칠보교쪽에서 청운교 · 백운교를 바라보며 불국사를 옆면에서 찍어 보세요. 사진작가들이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提起佛国寺人们就会想到石窟庵，不仅仅因为这两座建筑同为新罗最璀璨的佛教文化、艺术作品，更因为佛国寺与石窟庵均建于8世纪中叶，而且都座落在吐含山山腰。据历史文献记载，佛国寺和石窟庵由名为“金大城”的孝子为悼念前世和今生的父母而建。

佛国寺修建时间长达30年，最初在金大城的主持下开工，但24年后金大城便离开人世。此后，新罗政府接管了佛国寺的建筑工程，终于在774年向世人呈现了这座精美的寺庙。

然而，今天我们所看到的佛国寺已不复最初修建的模样。这座新罗时期的建筑结晶在朝鲜壬辰倭乱（1592~1598）中几近毁于一旦，大部分建筑被火烧毁，成为废墟。几百年后直到1970年，佛国寺才得以重建。

推荐路线



佛国寺入口 → 天王门 → 青云桥、白云桥 → 释迦塔 → 多宝塔 → 大雄殿 → 无说殿 → 洛伽桥 → 观音殿 → 毗卢殿 → 舍利塔 → 极乐殿 → 莲华桥、七宝桥(需1.5-2小时)

韩国的寺庙建筑重视细节，若没有提前做好功课或不多加留意，就会错失许多美丽的景致。佛国寺自然也不例外。佛国寺大致可以分为三个区域，游客可按照上面的推荐路线分区游览。想要将佛国寺美景装进相机的游客可以从莲华桥、七宝桥往青云桥、白云桥方向取景。据说，这是摄影师们最喜欢的佛国寺侧景拍摄角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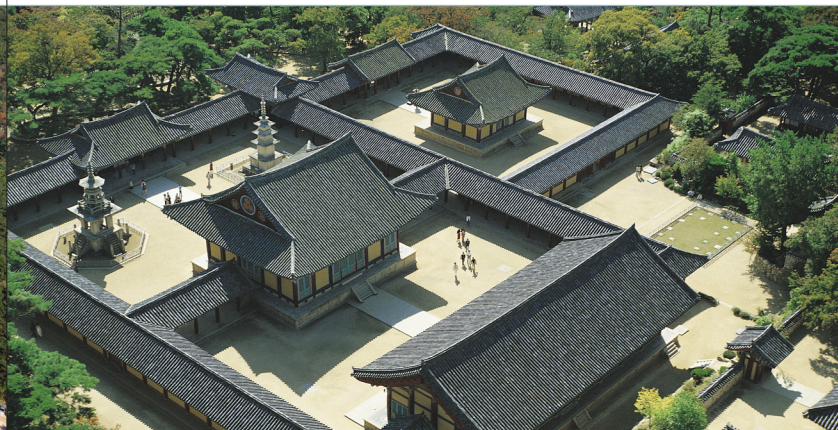


애석하게도 불국사의 복원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복원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신라시대 절 건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남아 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려 및 조선 초기의 절 양식으로 복원한 것이지요. 본래의 모습이 아닌 서로 다른 시기의 건축문화가 섞여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Did you know?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 석가탑은 ‘무영탑(無影塔)’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 불리게 된 데에는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라 경덕왕(?~765) 시절, 불국사 석가탑을 세우기 위해 인접한 백제에서 아사달(阿斯達)이란 뛰어난 석공을 불러왔습니다. 아사달은 석탑을 세우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阿斯女)를 두고 신라로 건너왔습니다. 아사달은 모든 잡념과 아사녀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고 탑을 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먼 길을 걸어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달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경내로 들일 수 없다는 금기 때문입니다. 아사녀는 먼 발치나마 남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매일 불국사 입구를 서성거렸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스님이 아사녀에게 불국사 근처의 작은 연못에서 지성으로 빌면 탑 공사가 끝나는 대로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사녀는 연못에서 탑 그림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사녀는 그리움에 지쳐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연못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사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연못으로 달려갔지만, 아사녀는 없고 연못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슬픈 마음에 바위에 아사녀의 얼굴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사녀의 얼굴이 점차 부처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조각을 완성하는 날 아사달도 아사녀를 따라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고 해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令人遗憾的是，彼时韩国国内对新罗时期的寺庙建筑研究不足，以至于重建部分实为高丽与朝鲜初期的建筑样式。不过，即使作为不同时期建筑文化的混合之作，佛国寺的价值仍然为世界所认可，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文化遗产名录。

Did you know?



阿斯达和阿斯女的凄美爱情故事 释迦塔又被称为“无影塔”，这里面有个动人的爱情故事。传说在新罗景德王时期，邻国百济一位技艺高超的石匠——阿斯达被召来修建佛国寺的释迦塔。离开深爱的妻子阿斯女，阿斯达只身来到新罗，专注于石塔建造工程。时间过了一年又一年，阿斯女对丈夫的思念越来越浓。终于，她抵不过相思之苦，千里迢迢来到了新罗的佛国寺。不幸的是，石塔完工前任何女子都不能进入寺庙境内，阿斯女自然也没能见到丈夫。为了能远远地看上丈夫一眼，阿斯女每天都在佛国寺大门前徘徊。寺里一位和尚被她所感动，告诉她只要到佛国寺附近的荷花池用心祈祷，工程完成之日，石塔的影子就会显现于荷花池里。于是，阿斯女来到荷花池边日日祈祷，日日等待石塔影子的出现。然而，那一天却始终没有到来。相思成疾的阿斯女最终投池身亡。石塔竣工后，阿斯达才知道妻子千里寻夫而来。他匆忙赶到荷花池，却只看到池中央一块巨大的岩石。悲伤的阿斯达为了表达对妻子的悼念，开始在岩石上雕刻妻子的模样。神奇的是，雕像却渐渐变得与佛祖相似。完成雕刻后，阿斯达也投池追随妻子而去。从此以后就再没有人见过石塔的影子，释迦塔也因此被人们称为“无影塔”。



대웅전 영역



대웅전 석가모니불

불국사를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심오한 불교사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물의 배치에 따라 그 안에 담긴 의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은 크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있는 대웅전(大雄殿),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있

는 극락전(極樂殿),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있는 비로전(毘盧殿)입니다. 각각의 영역은 부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 영역입니다. 불국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웅전으로 가는 길에 2단으로 높게 쌓아 올린 돌다리가 보입니다. 아래쪽 것은 청운교(靑雲橋), 위쪽 것은 백운교(白雲橋)입니다. ‘구름다리’라고 하는데, 아래위를 합쳐 모두 3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는 33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계단의 각 단은 불교의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33번째 하늘을 도리천(仞利天)이라 하는데, 석가모니불이 계신 곳입니다. 청운교·백운교 위는 석가모니불이 계신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영역이 석가모니의 나라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Must See



불국사에 숨겨진 옹과 복돼지 불국사 대웅전과 극락전에는 각각 옹과 복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나요? 옹은 대웅전 처마 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여의주를 물고 있고, 어떤 것은 물고기를 물고 있습니다. 옹은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게 정상인데, 왜 물고기를 물고 있을까요. 물고기는 밤에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항상 눈을 뜨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극락전의 복돼지는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極樂殿(극락전)’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 현판 뒤를 자세히 보세요. 복돼지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게 보입니다. 돼지는 재물과 복, 다산을 상징하는 동시에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극락전에서 복돼지는 지혜로 부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불국사에서는 여행객을 위해 극락전 뜰에 황금돼지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황금돼지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세요.

大雄殿区域

游客若想真正看懂佛国寺，需要了解一定的佛教文化。因为，即使简单如建筑物的排列布局也是佛教思想的体现。佛国寺大致可以分为三个区域：供奉释迦牟尼佛的大雄殿、阿弥陀佛所在的极乐殿以及毗卢舍那（亦译作毗卢遮那）佛所在的毗卢殿。每个区域都是佛国的象征。

佛国寺中最重要的区域当属释迦牟尼像所在的大雄殿，这里也是游客到达佛国寺后最先进入的地方。大雄殿与地面由两段跃升的云桥相连：位于上方的“白云桥”和下方的“青云桥”。两座云桥的台阶总数为33阶，与佛教的三十三重天相对应，每一级台阶自然就是一重天。佛教里最高的一层也即是第三十三重天名为“仞利天”，据说释迦牟尼曾在这里为母亲及大众宣扬地藏菩萨的功德。因此，登上象征三十三重天的云桥便来到了释迦牟尼的世界。



청운교와 백운교

Must See



石筑 来到佛国寺的大部分游客都知道释迦塔、多宝塔、青云桥、白云桥，却鲜有人注意到石筑的存在。所谓石筑就是用石头堆砌的平台，建造于平山建寺之初。佛国寺的石筑有着重要的象征意义：所有象征佛祖领土的都位于筑台之上，石筑自然成为佛国净土与人俗世的分界线。不同建筑的石筑高低不同，用以代表不同的世界。堆砌石筑说起来简单，其中却蕴藏着韩国传统建筑工艺。佛国寺的石筑中间通常都是打磨平滑的方形石条，其上下石头的模样则各不相同。石条的下方多使用天然岩石，上方则是人工打磨后的平滑石块。自然造物之美与人工制作之精巧妙结合，恰如其分地展现了韩国古人重视建筑物与大自然互为依存的建筑学思想。佛国寺的石筑乍一看十分凌乱，就像是用大小不一的石块随便堆砌而成。其实，每一块石头之间都有奥妙。“打磨”是韩国传统的建筑技法之一，原指依据柱础石表面的形态对立于其上的木柱底部进行打磨加工，使木柱与柱础石咬合。这种技法也被应用到了石筑之中，即工匠会对置于上方的石块底部按照下方石块的表面纹路进行打磨、加工，以使两块石头嵌合。这样建造的石筑台坚固而平稳，即使经历地震也能纹丝不动。

청운교·백운교는 계단인데 왜 다리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불교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불경에 따르면 부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고 구름 위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청운교·백운교는 물을 건너는 다리이자, 구름 위를 걷는 다리라는 뜻에서 생긴 것입니다. 계단 중앙에는 분리대가 있어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을 구분하고, 계단 아래에는 아치형 터널을 만들어 물이 흐르는 다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다리를 올라 자하문을 들어서면 석가모니의 나라가 됩니다. 청운교·백운교는 인간세상과 부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통로인 셈입니다.

이제 석가모니의 나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서 있는 두 기의 석탑은 석가탑(釋迦塔)과 다보탑(多寶塔)입니다. 두 탑은 한국을 대표하는 석탑이면서도 생김새는 너무나 다릅니다. 석가탑이 굳터지기 없이 간결하며 위로 솟구치듯 날렵하다면, 다보탑은 복잡하고 장식이 많아 화려합니다. 그래서 석가탑은 건장한 남성미, 다보탑은 우아한 여성미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절에서는 절 마당에 두 개의 탑을 세울 때 같은 모양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국사 대웅전 앞에는 왜 서로 다른 두 탑을 나란히 세워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불교 경전인 <법화경>의 사상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Must See



신라의 건축기술을 엿볼 수 있는 석축 불국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석가탑·다보탑, 청운교·백운교에 정신을 빼앗겨 돌로 쌓은 축대를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돌로 축대를 쌓은 것은 비탈진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어 절을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국사에서 석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축 위의 부처님 나라와 아래의 인간세상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높낮이를 적용해 서로 다른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석축을 쌓는 것에도 한국의 전통 건축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석축을 보면 중간에 평면하게 다듬은 직사각형 모양의 돌을 중심으로 아래 위에 쌓은 돌의 모양새가 다릅니다. 아래쪽은 자연 그대로의 바윗돌인데, 위쪽 돌은 부드럽게 다듬은 돌입니다. 자연스러움과 인공미가 조화를 이룬 불국사의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얼핏 보면 크기가 제각각인 돌을 제멋대로 쌓아 놓은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돌의 결을 따라 서로 맞물리게 쌓았습니다. 다른 모양이 돌을 평면하게 깎지 않고 위에 얹은 돌의 아래쪽 면을 쌓은 돌의 윤곽을 따라 더듬어서 잘 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전통 건축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과 돌 사이가 꼭 맞아서 지진에도 끄덕 없는 튼튼한 구조물이 됩니다.

也许有人会感到奇怪, 台阶为什么会被称为“云桥”, 其实这也和佛教有关。据佛经记载, 通往佛国之路需要涉水、腾云, 而云桥含有既可渡水也能行走于云上之意, 是连接人间与佛国的通道。两座云桥之间有一个平台, 上、下通道加以区分; “青云桥”采用拱桥设计, 表明此桥是渡河之桥。两座云桥之上是紫霞门, 门内就是释迦牟尼的佛国净土。

穿过紫霞门首先看到的是与大雄殿相连的庭院, 庭院里竖立着韩国最有名的两座石塔——释迦塔和多宝塔。释迦塔整体风格简洁, 塔尖直指青天; 与之相对, 多宝塔结构复杂、装饰华丽。人们常常用干练的男性来形容释迦塔, 而将多宝塔比作优雅的女性。



석가탑(좌)과 다보탑(우)

Must See



隐蔽的龙头和福猪 佛国寺的大雄殿和极乐殿里分别住着龙和猪, 知道具体位置在哪里吗? 大雄殿的龙头雕刻位于建筑的檐角下, 有的龙嘴里含着如意宝珠, 有的嘴里则衔着鱼。龙口衔珠似乎是很自然的事情, 但是龙的嘴里衔着鱼就难免会让人问个为什么。原来, 鱼在睡觉的时候不会闭眼, 佛祖曾以此来告诫修行之人要不遗余力的超度众生。大雄殿的这两条衔鱼之龙自然就是佛祖箴言的象征。极乐殿的福猪藏得就更加隐蔽, 躲在用汉字题写的“极乐殿”匾额后。在韩国, 猪是财富、福气以及多产的象征, 还是可以驱鬼辟邪的动物。极乐殿的福猪据说是劝告人们理智看待富贵。目前, 佛国寺为游客在极乐殿的院子里置放了一尊代表福气的金猪像。游览极乐殿的游客别忘了摸摸小猪, 给自己添些好运。



법화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그중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인도 고대국가 마가타국(摩伽陀國)의 산 이름)에서 경전을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이를 보고 감탄한 다보불이 다보탑을 타고 땅에서 솟아올라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 반을 석가모니불에게 내어주고 나란히 앉아 설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석가탑과 다보불을 상징하는 다보탑을 함께 세운 겁니다.

석가탑은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세련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전체 탑의 크기에 비해 기단을 크게 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위로 갈수록 완벽한 비율로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서 단순하면서도 멋있게 보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형태의 비례미를 갖추었기에 석가탑 이후에 만들어진 한국의 석탑은 석가탑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1966년 상층부를 해체했을 때, 제 2층 탑신부 사리공에서 금동외함, 금동방형사리함, 은제 내외사리함, 동경, 옥류 등 수십 종의 공양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발견되어 한국의 인쇄기술을 세계에 알리게 했습니다.



다보탑은 석가탑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화려합니다. 네모난 기단에 동서남북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위 탑신에는 사방으로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탑신 서쪽에는 돌사자상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동서남북으로 네 마리의 돌사자상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일제강점기 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잘 다듬은 돌을 이용해 목조건축물을 짓듯 짜 맞춘 독특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랑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

不过, 在韩国的其它寺庙里, 位于相同位置的两座石塔通常都有相同或相似的模样, 大雄殿前又怎么会放置两座风格迥异的石塔呢? 原来, 这样的布局源自对韩国佛教有着深远影像的佛家圣典——《法华经》。据《法华经》记载, 世上原本有许多佛陀, 释迦牟尼只是其中之一。某一天, 当释迦牟尼在灵鹫山(印度古国——摩伽陀国的山名)上传法时, 多宝佛乘多宝塔自地下而出, 并在宝塔中分半座与释迦牟尼, 与其共同传法。由此可知, 佛国寺大雄殿前的这两座石塔其实分别代表着释迦牟尼佛和多宝佛。相比较而言, 释迦牟尼塔风格简洁, 塔身自稳固的基座往上按比例逐渐缩小。据称, 韩国此后修建的石塔大多以释迦牟尼塔为蓝本。

与释迦牟尼塔不同, 多宝塔风格华丽、装饰复杂; 塔身建在方形塔基上, 东、南、西、北四个方位均有台阶, 塔身与台阶相连处还设门。一层塔身四周原有四座石狮, 其中三座在日占时期消失, 目前仅剩西侧一座。多宝塔虽以石材建造, 建筑工艺之细致、精湛却堪比木塔, 方、圆和多角形的巧妙融合更是为人所称道。

석가탑과 다보탑 뒤에는 대웅전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셔 놓았습니다. 대웅전의 주인이 석가모니불이고, 대웅전 영역이 석가모니불이 사는 나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웅전 뒤로 돌아가면 무설전(無說殿)이란 강당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공부하고 경론을 강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이 오고 가야 할 강당의 이름이 ‘말이 없는 집’이란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건 세상의 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말을 통해 드러나지도, 전해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설전이란 이름에는 진리를 말로 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 진리에 도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로전 영역

무설전을 돌아가면 가파른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관세음보살이 있는 관음전이 나오고, 다시 왼쪽으로 내려가면 비로자나불이 살고 있는 비로전이 나옵니다. 두 구역을 아울러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고 표현합니다. 연화장세계는 장엄하고 진리의 빛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큰 연꽃으로 되어 있어 연화장이라 부릅니다.

연화장세계의 주인은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있는 비로전이 중심 공간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불교의 진리를 설법하는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취 모든 세계를 포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两座石塔身后便是大雄殿，殿内供奉着释迦牟尼佛像。大雄殿区域象征着释迦牟尼佛所在的佛国净土。大雄殿后有一座“无说殿”，是僧侣们学习、论经的地方。不过，意在探讨、交流的殿堂却以“无说”为名，难免让人感到奇怪。原来，这里的“无说”是指世间真理无法用言语说明。在佛教里，真理既不会以语言的形式出现，也不会借其得到传播。无说殿的名字含有佛祖希望众生以心受法、接受真理的深意。

毗卢殿区域

无说殿后有一坡陡峭的台阶，台阶之上便是供奉观世音菩萨的观音殿；登上台阶后往左则是毗卢舍那佛所在的毗卢殿。这两个区域合在一起，被人们统称为“莲华藏世界”。

莲华藏世界是释迦如来真身——毗卢遮那佛所在的净土之名，意指庄严而充满真理光辉的世界。由此可知，佛国寺里供奉毗卢舍那佛的毗卢殿便是莲华藏世界的中心。毗卢舍那佛汉译为大日如来，是光明和智慧的象征，其名字代表如来智慧如日照遍法界，无内外、昼夜之别。



비로전 영역은 대웅전 영역에 비해 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국사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불국사가 불교의 화엄사상에 기초해서 지어졌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라시대에는 불국사를 ‘대화엄불국사(大華嚴佛國寺)’라 불렀습니다. 불교경전의 하나인 <화엄경>에서 중생이 진리를 깨달아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가 연화장세계입니다.

비로전에 가면 비로자나불을 꼭 봐야 합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3대 금동불상 중 하나입니다. 깨끗한 자세와 육중한 어깨, 양감 있는 가슴과 긴 허리에서 오는 아름다움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옷 주름도 무척이나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손 모양이 일반적인 비로자나불과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은 저마다 스스로 깨달아 몸에 지니고 있는 진리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열 손가락으로 여러 형태의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인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주먹 권 손을 아래위로 겹쳐 놓고 왼손의 검지를 세워 오른손의 주먹 속으로 넣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른손은 부처님이 사는 세계, 왼손은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이 사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임을 뜻합니다.



극락전 영역

비로전을 내려오면 무설전의 긴 회랑이 나옵니다. 회랑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뜻에서 설치했습니다. 불상이 모셔진 대웅전을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기에 회랑을 따라 측면으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회랑의 문은 극락전으로 가는 연결통로이기도 합니다.

毗卢殿区域面积不大，但在佛国寺整体建筑中的地位却最高。原来，佛国寺是基于华严思想而建造的“理想世界”，在新罗时期曾被称为“大华严佛国寺”。根据《华严经》所述，莲华藏世界就是众生修行圆满时所能到达的最高净土世界，地位自然最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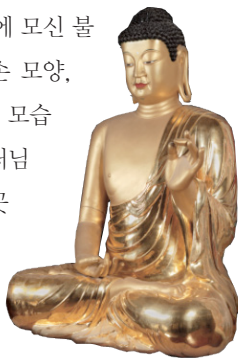
毗卢殿中的毗卢舍那佛像铸造于统一新罗时期，是新罗三大金铜佛像之一。这座佛像体态饱满、腰身细长，衣褶装饰富有立体感，是新罗佛像雕刻技艺的经典之作。在佛教中，如来佛或菩萨觉悟后以手和手指所结的各种姿态（即手印）来象征其愿力和因缘。毗卢舍那佛特有的手印为智拳印，也即是双手握拳合于胸前，以左下右上的次序重叠，同时左手的食指含于右手拳中。结成智拳印的右手象征着佛祖的世界，左手则代表一切生命体生存的世界，双手上下重叠表示佛祖与众生一体。值得注意的是，佛国寺的毗卢舍那佛坐像与普通毗卢舍那佛像的智拳印恰恰相反，为左上右下。

极乐殿区域

由毗卢殿步行而下便来到无说殿的回廊。大雄殿内供奉着释迦牟尼的佛像，因此由大雄殿的正门出入会显得对佛祖无礼。无说殿的这条长廊便是供人行走的通道，同时也连接着极乐殿。



극락전은 불국사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극락전 안에 모신 불상은 아미타여래입니다. 비로전의 비로자나불과 손 모양, 옷 주름의 굴곡이 약간 다를 뿐 머리와 몸통, 앉은 모습이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아미타불은 자비의 부처님입니다. 그가 상주하는 곳이 극락세계입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행복의 땅이라고 합니다. 극락은 석가모니불이 있는 곳으로부터 서쪽에 있다고 해서 극락전이 대웅전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극락전 안 오른쪽 벽면을 보면 용모양의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를 '반야용선(般若龍船)'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건너갈 때 타고 가는 상상의 배입니다. 극락전 윗부분을 자세히 보면 용머리가 보이고, 건물 뒤로 돌아가면 용 꼬리 모양이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이 있는 법당을 배라고 생각해서 건물에 용머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극락전 입구에는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2단으로 높게 쌓아올린 연화교(蓮華橋)·칠보교(七寶橋)를 밟고 올라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상과 극락을 이어주는 상징물인 셈입니다. 아래쪽 것이 연화교, 위쪽 것이 칠보교입니다. 연화교에는 활짝 핀 연꽃이 조각되어 있어서 극락으로 향하는 길에 아름다운 향기를 더해줍니다.

다리를 올라서면 안양문(安養門)이 나옵니다. 안양은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안양문을 지나 극락전에 오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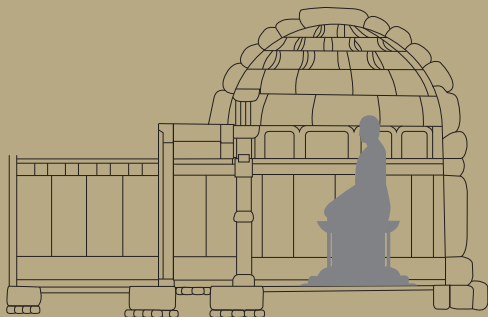
极乐殿位于佛国寺西侧，里面供奉的是阿弥陀如来佛。这座坐佛与毗卢舍那佛像在佛首、佛身和坐姿上一模一样，若没有手印和衣褶的差别，几乎让人无法分辨。阿弥陀佛又称无量寿佛，是西方极乐世界的教主。在这个极乐世界里，所有人都将摆脱俗世烦恼、获得重生。极乐世界因位于释迦牟尼佛所在净土的西侧而被人称为西方极乐世界，佛国寺里的极乐殿也因此被置放在大雄殿的西侧。

据称，众生由现世前往极乐世界时需要乘坐“般若龙船”，这种船的模样在极乐殿的右墙上就能看到。此外，细心的游客不难发现极乐殿的上部形如龙头，在建筑后方还能隐约看到龙尾模样。原来，新罗人喜欢将佛祖的法堂比作龙船，在修建极乐殿时便设计了龙头模样。

与大雄殿相似，极乐殿门前也有两层相连的台阶。这两层台阶按上下顺序分别叫做“七宝桥”和“莲花桥”，象征着由人世前往极乐净土的通道。其中，莲花桥的每一级台阶上还有莲花瓣纹样的装饰，像是要为通往极乐世界之路增添几分香气。

登上七宝桥就来到安养门。所谓安养就是指极乐世界，步入安养门也就意味着进入极乐世界。

MEMO



7 천 년을 지켜온 부처님의 미소 석굴암 穿越千年的慈悲之心 石窟庵

석굴암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교 미술품입니다.

돌을 쥘아 인공석굴을 조성한 건축술, 석굴 벽면을 가득 메운 불상 조각의 세밀함, 법당 안 본존불의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표정은 감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을 만큼 뛰어납니다.

石窟庵是韩国最美丽的佛教艺术品。无论是精巧的圆形石窟、石室内精美的佛像雕刻，还是本尊佛像那慈悲的微笑都让人赞叹不已。或许用天下最美来形容石窟庵，也不算夸张。石窟庵是新罗工匠智慧与技艺的结晶，是人类宝贵的历史文化财富。

-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873-243
- ☎ 석굴암 종무소 054-746-9933
- 🌐 guide.gyeongju.go.kr (中、英、日)



한국에는 도시의 상당 부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B.C. 57년부터 A.D. 935년까지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경주에는 불교국가인 신라의 역사와 불교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경주의 수많은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국사와 함께 별도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데 유네스코에서는 왜 이 두 곳만 따로 등재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굴암과 불국사가 지닌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을 두고 이처럼 뛰어나다고 말하는지 확인하러 떠나 볼까요?

●

석굴암을 보기 위해서는 경주의 토함산으로 가야 합니다. 멀리 동해가 보이는 토함산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굴암은 단단한 화강암을 다듬고 조립해서 석굴을 만들고 그 안에 섬세하게 조각한 불상을 모서 놓은 석굴사원입니다. 석굴사원은 인도·아프가니스탄·중앙아시아·중국 등지에도 있습니다. 인도의 아잔타(Ajanta) 석굴과 엘로라(Elloira) 석굴, 중국의 둔황(敦煌) 석굴과 원강(雲岡) 석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이들 석굴사원과 석굴암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석굴의 조성방법입니다. 다른 나라의 석굴사원은 절벽의 암석을 파서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석굴암은 돌을 하나씩 쌓아서 만든 인공 석굴이라는 게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석굴보다는 돌로 만든 방(석실)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석실을 만들었는데 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이 어렵게 석굴을 만든 이유는 한국의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단단한 화강암이 대부분이어서 바위를 뚫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화강암을 다듬고 끼워 맞춰 석굴을 만든 후 그 위에 자연석을 놓고 다시 흙을 덮는 방식입니다.



在韩国，有一座全城都被列入世界文化遗产的城市，那就是韩国四大古都之一的庆州。庆州在公元前57年到935年一直是新罗的首都，至今还保留着新罗这个佛教之国的不少历史和文化遗迹。

石窟庵就是其中之一。石窟庵和佛国寺一起被联合国教科文组织单独列入世界文化遗产。这不禁让人感到奇怪：既然整座城市都是遗产，为什么还要再“多此一举”呢？其实理由很简单，就是因为石窟岩和佛国寺历史和艺术价值尤为突出。

●

石窟庵位于庆州的吐含山山腰，可远眺韩国东海美景。这座石窟寺庙由坚硬的花岗岩建造而成，室内供奉着精美的佛像。石窟寺庙在印度、阿富汗、中国及中亚地区也很常见，如印度的阿占塔（Ajanta）与埃洛拉（Elloira）石窟、中国的敦煌和云冈石窟就是世界知名的石窟寺。与这些石窟寺相比，韩国庆州石窟庵最大的不同就在于其建筑方法。如果说其它国家的石窟寺是在岩石上凿出来的，石窟庵就是由一块一块石头靠人工堆砌而成的。更确切地说，石窟庵应该被称作“石室”，是一间用石头建造的、看上去像石窟的房间。因为当时新罗地形以花岗岩为主，要想在坚硬的岩石上凿出洞窟来，几乎是不可能的事情。石窟庵其实是将一块块打磨好的花岗岩搭建起来后，在上面覆盖石块和泥土而建成的。

부처님 나라를 상징화 한 건축 구조



석굴암이 만들어진 시기는 8세기 중반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재상이던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창건했다고 합니다. 효심의 표현으로 만든 것이지요.

석굴암 내부는 전실(前室), 통로(通路), 주실(主室)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실은 사각형이고 주실은 원형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굴암은 사람이 예불을 드리는 공간은 네모, 본존불이 있는 천상계는 둥그렇게 만들어서 동양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유리벽 뒤로 보이는 석굴암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석굴에 들어서면 마주치는 첫 번째 공간이 전실입니다. 예불을 드리는 곳이지요. 석굴암에서 조각상이 가장 잘 보이는 공간이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석굴암의 자랑 중 하나가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화강암은 단단해서 섬세한 조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정과 망치로 두드려 깨고, 쪼아서 섬세한 조각을 해 놓았으니 신라 석공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하게 됩니다.

Did you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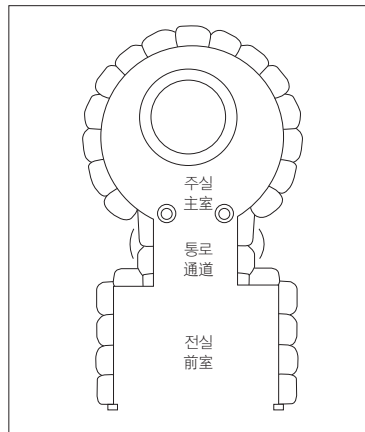
김대성은 누구인가? <삼국유사>에는 김대성(700~774)이 751년 불국사를 창건할 때 석굴암도 함께 착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의 어린 시절은 가난해서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한 스님에게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재산을 모두 부처님에게 시주했습니다. 얼마 후 김대성은 죽게 되었는데, 당시 재상이었던 김문량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효심이 깊었던 그는 전생의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훗날 김대성은 김문량의 뒤를 이어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대성은 2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공사에 매진했지만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신라에서 공사를 맡아 완공했습니다.

象征佛国净土的**建筑构造**

石窟庵建于8世纪中叶。据韩国古书——《三国遗事》记载，石窟庵由曾任新罗宰相的金大城为前世父母而建，是其孝心的体现。

石窟庵内部分为前室、通道和主室三部分；前室为方形，主室为圆形，是古人“天圆地方”思想的象征。相应的，众生礼佛之处为地，而佛祖所在之处为天，也体现了典型的东方世界观。

石窟庵的前室是参拜佛祖的地方，也是最适合欣赏雕像的地方。石窟庵里的浮雕写实而精美，由坚硬的花岗岩雕刻而成，每一处细节无不是新罗石匠精湛技艺的体现。



Did you know?



金大城是谁? 据韩国古代史书——《三国遗事》记载，金大城在751年修建佛国寺的同时也一并修建了石窟庵。历史文献中几乎没有关于金大城生平记载，流传至今的多是一些民间传说。据说，金大城小时候十分贫穷，只能靠给人打短工勉强度日。后来有一天，他听和尚说做善事会有好报，便把自己的所有财产都捐给了寺庙。不久后，金大城死去，但重新投胎到了当时的宰相——金文亮家里。孝顺的他将前世的母亲接到家里一起生活。金大城后来也官至宰相，卸职后为今生的父母修建了佛国寺，石窟庵则是为前世的父母而建。佛国寺的建造工期长达24年，金大城没能等到竣工就离开了人世。他死后，新罗政府接管并完成了佛国寺与石窟庵的建造工程。

양쪽 벽면을 보면 각각 네 구씩 팔부신중(八部神衆)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팔부신중은 원래 인도 힌두교의 신들입니다. 석가모니에게 교화 받아 불교에 흡수되면서 불법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팔부신중은 신의 이름과 모습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에는 전실 왼쪽 벽면에 아수라(阿修羅)·긴나라(緊那羅)·야차(夜叉)·용(龍), 오른쪽 벽면에 가루라(迦樓羅)·마후라가(摩睺羅伽)·천(天)·건달바(乾闥婆)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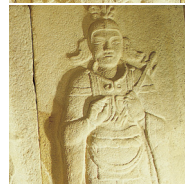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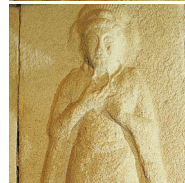


팔부신중 뒤 통로 입구에는 좌우로 험상궂게 생긴 무사를 닮은 두 명의 금강역사(金剛力士)가 지키고 있습니다. 금강역사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상체의 근육이 발

달한 용맹스런 무사의 모습에, 머리 뒤에는 원형의 두광을 조각해서 힘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금강역사의 입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의 금강역사는 입을 벌려 “아”하고 기합을 지르는 모습이고, 오른쪽의 금강역사는 기합을 “흠”하고 안으로 들이마시며 공격에 대비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강역사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택견의 기본형과 같아서 택견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전실과 주실을 잇는 통로 벽면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이 두 구씩 서 있습니다. 사천왕은 인간세상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선과 악을 살핀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대 인도에서 숭상했던 귀신들의 왕이었는데 불교에 귀의해 불법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前室의 兩側牆面上是八部眾浮雕，左右各有四尊。天龍八部眾是印度教里的神話種族，因受到釋迦牟尼的教化而成為護法神。據說，八部眾神的名字和模樣都不固定。在韓國，八部眾是長壽的象徵。石窟庵前室左牆上雕刻的浮雕依次為阿修羅(Asura)、緊那羅(Kimnara)、夜叉(Yaksa)和那迦(Nāga)，右牆上則是迦樓羅(Garuda)、摩睺羅伽(Mahoraga)、提婆(Deva)和乾闥婆(Gandharva)。



八部眾雕像后是连接主室的通道，通道入口由两名威武的金剛力士守护。金剛力士的上身肌肉发达、神态勇猛，头后还带有光环，是集力量与智慧于一体的象征。有趣的是，两座金剛力士雕像的嘴形相异。左侧的金剛力士嘴部大张，口型像是大喝了一声“啊”；右侧的金剛力士则像是“哼”了一声，作防御准备状。两名金剛力士的姿势与韩国跆拳道基本动作相似，也从侧面证明了跆拳道历史悠久。

通道兩側的牆面上刻着四大天王像。據說，四天王位於娑婆欲界第一重天，負責觀察眾生善惡。四大天王又被稱作四大金剛，原是古印度神將之王，後來成為佛教的護法神。

● 통로를 지나면 원형 돔으로 만든 주실이 나옵니다. 중심에 커다란 불상이 앉아 있고, 벽면을 빙 둘러 조각상이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가 범천(梵天), 오른쪽 첫 번째가 제석천(帝釋天)입니다. 제석천과 범천은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의 좌우 두 번째 조각들은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입니다.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지혜를, 보현보살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좌우로는 부처님의 제자 열 명이 서 있습니다. 십대제자인데 석가모니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자세가 석굴암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사람과 닮았습니다.

● 유리벽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정면으로 보이는 본존불 뒤에 석굴암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보살 조각이 있습니다. 십일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상은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음보살의 머리 위에 아홉 개의 작은 얼굴이 있고, 그 위에 다시 한 분의 관음보살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많은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을 두루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라도 어려움에 처한 중생이 부르면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 주실 위쪽 벽면에는 본존불의 얼굴 높이로 열 개의 감실이 있습니다. 감실 안에는 보살상 7구와 유마거사상(維摩居士像) 1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감실은 비어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보살이 아닌 인도 비사리국의 왕자로 석가모니의 속가제자입니다. 왜 유마거사가 보살들 사이에 함께 있을까요? 중이 되지 않아도 누구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通道后便是石窟庵最受关注的穹顶主室。主室正中央为释迦牟尼坐像，墙面上除浮雕外，还凿有10个龕室。由主室正门望去，左侧墙上的第一尊浮雕是梵天，右侧第一尊则是帝释天。梵天和帝释天在追随佛祖的众神中地位最高，与希腊神话中的宙斯相似。左、右两侧的第二尊雕像分别是文殊菩萨与普贤菩萨，他们在佛教里是智慧与慈悲的化身。

● 两位菩萨左右是释迦牟尼门下的十大弟子罗汉像。这十名弟子在历史上确有其人，因此在石窟庵的所有雕像中与凡人模样最为相似。

● 然而，石窟庵最精美的雕像却隐藏在释迦牟尼坐像后，站在玻璃墙外很难看到。这座雕像名为“十一面观音菩萨像”，因拥有十一张不同的面孔而得名。菩萨像的头上雕刻着九个缩小的菩萨头像，代表九张面孔；在最上面还有一尊菩萨像，代表另一张面孔。在佛教中，观音菩萨是慈悲的化身，这些不同的面孔代表菩萨欲以不同的方法拯救苦难中的众生。



● 此外，与释迦牟尼像脸部齐高的墙面上还有10个龕室。龕室里供奉的是七尊菩萨像和一尊维摩居士像，另有两个龕室为空。维摩居士是印度毗舍离(Vaisali)的王子，也是释迦牟尼的俗世弟子。将维摩居士同菩萨放在一起是为了表明只要听从佛祖的教诲，任何人都能到达佛国净土。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미소의 본존불

석굴암의 주인공은 주실에 앉아 있는 본존불입니다. 가늘게 뜬 눈은 강인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며,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해서 근엄해 보이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입가에 얹은 미소를 띠고 있어 자비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위엄과 자비를 동시에 지닌 얼굴은 본존불의 품격을 크게 부각시켜 주는 요소입니다.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와 넓은 가슴, 잘록한 허리, 편안하게 가부좌한 자세는 마치 살아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비례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본존불과 대좌의 높이는 약 2:1입니다. 대좌 높이는 168.4cm, 불상의 높이는 346cm입니다. 눈높이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비율을 적용해서 당당함과 위엄이 자연스레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들었지만 인공적인 부자연스러움을 찾아 볼 수 없는 예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본존불이 하고 있는 손 모양(手印)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입니다. 항마촉지인은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 악마의 유혹을 받은 석가모니가 땅의 신을 가리키며 마군을 물리쳤음을 증명하는 자세입니다. 석가모니만 취하는 손 모양이랍니다.

본존불은 인도 보드가야에 있는 불상과 크기, 형식이 닮았다고 합니다. 보드가야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입니다. 석가모니가 앉았던 자리에 대각사(Mahabodhi Temple)가 세워져 있고, 그 절에 있는 불상이 석굴암 본존불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1939년 일본인 토목기사 요네다 미요시(米田美代治)가 당척(당나라에서 쓰던 척)으로 환산해 놓은 본존불의 크기는 높이 1장 1척 6촌(약 351cm), 무릎 폭 8척 8촌(약 266cm), 어깨 폭 6척 2촌(약 188cm)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승 현장이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성지를 17년간 순례하고 쓴 <대당서역기>에는 “정사 안에는 불상이 훌륭한 모습으로 발을 꺾어 오른발 위에 얹고, 왼손은 살(두 다리 사이) 위에 뉘었으며 오른손은 늘어뜨려 항마인(악마를 항복시키는 손모양)을 하고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근엄한 모습은 참으



面帶微笑、心怀慈悲的本尊佛

石窟庵的主人是位于主室的本尊佛坐像。佛像的眼睛微微睁开，神情肃穆而威严；五官刻画细致，整体结构严谨。然而，佛像嘴角含笑，又显出佛祖慈悲的一面。这座本尊佛像肩平、胸宽，腰身线条优美，双腿结迦趺坐，刻画细腻而逼真。佛像高346厘米、坐台高168.4厘米，两者比例约为2:1。这样的高度和比例让进入主室的人必须抬头仰视才能看到佛像脸部，自然营造出佛祖威严的气势。石窟庵的本尊佛像由花岗岩制造而成，是新罗文化和佛教美术史上的杰作。

本尊佛像双手所结手印为降魔触地印，是释迦牟尼在证悟之前的瞬间以指触地、降服妖魔的手印。据说，石窟庵的本尊佛像与印度菩提伽的佛像在大小和形态上都十分相似。菩提伽是释迦牟尼悟道之处，大觉寺就建在他坐过的地方，而寺里的佛像与石窟庵的佛像几近相同。1939年，日本土木工程师米田美带治使用唐尺（中国唐朝使用的尺子）对石窟庵本尊佛进行丈量后发现，本尊佛高一丈一尺六寸（约351厘米）、两膝宽八尺八寸（约266厘米）、肩宽六尺二寸（约188厘米）。中国高僧玄奘和尚在游历

로 그곳에 부처님이 있는 것 같았다. 대좌의 높이 4척 2촌(약 127cm), 넓이 1장 2척 5촌(약 378cm), 불상의 높이 1장 1척 5촌(약 348cm), 양 무릎 폭 8척 8촌(약 266cm), 어깨 폭 6척 2촌(약 188cm)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석공들이 인도의 불상을 측량한 것도 아닐 텐데, 참 신기하죠?

석굴암 본존불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있는 불상이 서로 크기 뿐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본존불이 단순한 불상이 아니라 신라인이 보드가야의 대각사에 있는 석가모니불을 신라 땅에 재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라인들의 불심이 깊었고, 신라 땅 경주가 부처님의 나라였다는 믿음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과학적 설계

지금까지 석굴암의 구조와 조각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석굴암이 치밀한 계산을 통해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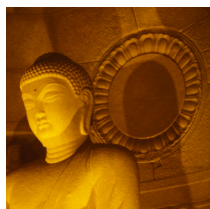
본존불을 보면 주실 정중앙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중앙에서 조금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다면 주실이 비좁고 답답한 느낌이 들겠지요. 약간 뒤에 둥으로써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느낌도 주고 밖에서 석굴암 전체가 잘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
석굴암 정면에서 본존불을 바라보면 머리 뒤로 연꽃 문양의 원 장식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신비함과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광배(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머리 뒤 벽면에 조각되어 있어서 전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둥근 광배가 가로가 조금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광배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키가 큰 사람이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간 듯 보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 보면 머리 위쪽으로 약간 올라간 듯이 보입니다.

中亚数国及印度后，写下著名的《大唐西域记》。书中有一段对大觉寺佛像的描述，称“亭子中的佛像十分精美：双腿交叉，置右脚于上；左手自然放于大腿内侧，右手下垂结成降魔印；面朝东海而坐。佛像神情肃穆，仿佛此地确有佛祖存在。佛像的坐台高四尺两寸（约127厘米）、宽一丈两尺五寸（约378厘米）；而佛像高一丈一尺五寸（约348厘米），膝盖间距八尺八寸（约266厘米）、肩宽六尺两寸（188厘米）。”

新罗与印度的石匠在当时并无往来，但这两座佛像不仅尺寸相近，连模样也几近相同。这该如何解释呢？有人认为，本尊佛就是新罗人将菩提伽大觉寺的释迦牟尼像“复制”到新罗的作品。那是不是也可以反过来假想，本尊佛象征着释迦牟尼悟道的地方其实在庆州吐含山呢？

精巧的科学化设计



石窟庵的构造与雕刻固然让世人为之侧目，隐藏在设计之后的精确计算则更是让人惊叹。是什么让人们为一千多年前的设计冠以“科学”之名呢？

举例来说，本尊佛像看上去似乎位于主室的正中央，实际位置是正中偏后。有人曾假想将佛像置于石室正中，却发现主室会因此显得狭窄、拥挤。新罗工匠的设计在视觉上营造出佛像前倾的错觉，同时也让主室整体从外部看起来更清晰。

●
从正面观看本尊佛像，可以看到佛像头后以莲花纹为装饰的光环。这道光环在佛教里被称为圆光，是佛道行的体现。本尊佛像的圆光被雕刻在主室后壁，只有在前室参拜的人才能看到。最特别的是，这道圆光其实是垂直面长于横切面的椭圆形，其形态会随着人们的视线高低而改变：若站在正面的人个子较高，则圆光看上去略微下沉；若是观看的人个子较矮，则圆光会略高于佛首。

완전한 원형으로 보이는 높이는 얼마일까요? 건축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눈높이가 160cm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불상의 머리와 광배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완벽한 원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인들의 키가 기준이 되어 가장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도록 계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실 천장을 돔 형태로 만든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장을 쌓을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겁니다. 평편한 사각형 돌을 잇대어 둥글게 쌓는 일은 수학적으로나 기하학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천장 위로는 돌과 흙을 덮었습니다. 석굴 안에 생기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장의 판판한 돌들 사이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돌들을 곳곳에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먹돌’이라고 부릅니다. 주먹돌이 둥글게 쌓아 올린 평편한 돌을 받쳐 줘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Must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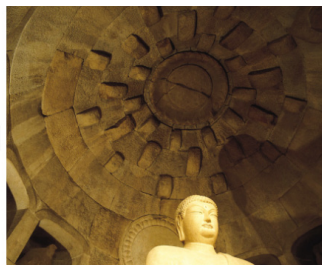


석굴암의 신비는 신라역사과학관에서 푸세요. 석굴암에서 보지 못한 석굴 내부는 신라역사과학관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석굴암 내부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모형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석굴암에 숨겨진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모형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감실 공기구멍의 기능과 광창의 존재 여부, 전실 구조, 천장의 결속 공법 및 무지개문 첨차석의 유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라금관, 백제금관, 해인사장경판전, 첨성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공예촌길 33 ☎ 054-745-4998 🕒 09:00-18:30(3-10월), 09:00-17:30(11-2월)

*연중무휴 🗑 어른 3,000원 · 학생 2,500원 🌐 www.sasm.or.kr

曾有建筑学者专门计算过，当视线高度在160厘米时，佛首与圆光恰好吻合，人们便能看到正圆形的圆光。这很可能是新罗工匠以当时人的平均身高为标准而设计的视觉效果。



此外，主室的半圆形屋顶以当时的建筑水平来看，在设计和建造上都不是一件容易的事情。这不仅是因为用方形石块搭建圆形屋顶需要相当的数学和几何学知识，更因为圆形屋顶上还要覆盖石头和泥土以排出室内的湿气，工程难度可想而知。然而，

古人的智慧实在让人惊叹。新罗的工匠们为了减少屋顶所承受的重量，在曲线形的平滑石块间像定桩一般插入数根石条，让屋顶石块的部分受力转移到石条上，从而达到固定穹顶的目的。这些石条在建筑学中被称为“拱心石”，常见于拱门或拱道建筑中。石窟庵的穹顶正中央还有一块重达20吨的“天盖石”，恰好位于释迦牟尼本尊像的上方，体现出新罗工匠的巧妙设计。

Must See



新罗历史科学馆为您揭开石窟庵神秘的面纱！出于保护文物古迹的目的，石窟庵内室竖起了隔断外部空气的玻璃墙。对于游客来说，无法近距离观看石窟庵的内部细节无疑是个遗憾。好在还有新罗历史科学馆！在这里，游客不仅可以看到石窟庵的内部模型，还能查看多种与石窟庵建造相关的资料。研究石窟庵的学者在龕室通风口的功能、是否设有窗户、前室的构造、屋顶的封口工艺及拱形门下是否存在檐遮石（柱头石的一种）等问题上存在争议，历史科学馆里展出的石窟庵模型正是为学者研究这些问题而建。

☎ 庆尚北道庆州市虾洞201 ☎ 054-745-4998 🕒 09:00-18:00 (3-10月)、09:00-18:00 (11-2月)

*全年无休 🗑 成人 3,000韩元、学生 2,000韩元 🌐 www.sasm.or.kr (韩)

MEMO



일반정보 一般信息

한국소개	176
한·중 역사 연대표	180
유용한 관광정보	182

한국소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하며 일본,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에 속합니다. 총 면적은 223,404km²로 남한이 45%인 100,266km², 북한이 55%인 123,138km²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와 맞닿아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와 마주합니다.

역사

약 70만 년 전 한반도에 사람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선사시대가 시작됐습니다. B.C. 2,000년경 청동기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됐고, B.C. 108년 멸망 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392년 고려가 멸망한 이후 약 500년 간 조선왕조가 한반도를 통치했으나,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침탈당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나, 곧이어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후의 고통을 딛고 단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해 냈으며, 현재는 세계 무대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IT 분야를 선도하며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韩半岛位于亚洲大陆的东端, 与中国和日本同属东亚地区。韩半岛总面积为223,404平方公里, 其中韩国为100,266平方公里, 占总面积的55%; 北韩为123,138公里, 占总面积的55%。北侧隔着鸭绿江和图们江与中国的满洲和俄罗斯的沿海州相望, 东侧与南侧隔着东海与南海与日本相对, 而西侧隔着西海与中国大陆相向。

历史

距今约70万年前, 韩半岛开始有人类居住, 史前时代由此揭开 朝鲜建立。BC108年古朝鲜灭亡, 随之经过三国时代和统一新罗时代, 进入高丽时代。14世纪末, 高丽灭亡后, 朝鲜王朝统治整个韩半岛长达500余年。1876年日本入侵使朝鲜王朝土崩瓦解, 1910年签订《韩日并合条约》, 国家主权被侵吞。1945年解放后建立了大韩民国, 但是随着1950年韩国战争的爆发, 韩半岛分裂为南北两部分。目前, 南北双方正在进行积极的对话与交流, 期待统一早日到来。

기본정보

공식 명칭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국기	태극기
국화	무궁화
위치	동경 127°30', 북위 37°00'
영토	223,404km ² (한반도), 100,266km ² (남한) (2013년 기준)
기후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
인구	약 5060만 명(남한) (2015년 기준)
정치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 공화국(대통령: 박근혜, 2013~2018)
경제	GDP 1조 4,495억 달러 (2014년 기준)
종교	불교 15.6%, 개신교 24%, 천주교 9.4%, 기타 0.7%, 무교 50.3% (2012년 기준)
언어	한국어
문자	한글
시간대	GMT +9
통화단위	한국 원 (₩)
환율	CNY = 173원 (2015년 1월 기준)
측정 단위	미터법
전기	220 V
운전	오른쪽



基本概况

官方名称	大韩民国(韩国)
首都	首尔
国旗	太极旗
国花	无穷花
位置	北纬 37° 00' , 东经 127° 30'
面积	223,404平方公里(韩半岛)、100,266平方公里(韩国)(以2013年为准)
气候	四季分明的温带气候
人口	约5,060万(韩国)(以2015年为准)
政治	任期5年总统共和制(总统: 朴槿惠 2013~2018)
经济	GDP 1兆4,495亿美元(以2014年为准)
宗教	佛教15.6%、改新教24%、天主教9.4%、其他0.7%(以2005年为准)
语言	韩国语
文字	韩文
时区	GMT +9
货币单位	韩元 (₩)
汇率	1CNY = 173韩元(以2015年1月为准)
度量单位	米制
电压	220 V
驾驶规则	右侧驾驶



한·중 역사 연대표

한국역사 韩国历史

- B.C.2333~108
고조선
古朝鲜
- B.C.57~A.D.676
삼국시대 三国时代
 - B.C.37~A.D.668
고구려 高句丽
 - B.C.18~A.D.660
백제 百济
 - B.C.57~A.D.676
신라 新罗
- 676~935
통일신라시대
统一新罗时代
- 698~926
발해
渤海王国
- 918~1392
고려시대
高丽时代
- 1392~1910
조선시대
朝鲜时代
- 1910~1945
일제강점기
日帝强占时期
- 1948~
대한민국 성립
大韩民国成立
- 1950~1953
한국전쟁
韩国战争

B.C.2000

B.C. 500

A.D. 100

500

1000

1500

- B.C.1600~1046
상
商
- B.C.1046~256
주
周

- B.C.770~221
춘추전국시대
春秋战国时代

- 25~220
동한
东汉
- 220~280
삼국시대
三国时代
- 265~316
서진
西晋
- 317~420
동진
东晋
- 304~439
16국
十六国
- 420~581
남북조시대
南北朝时代

- 581~618
수
隋朝
- 618~907
당
唐朝
- 907~979
5대10국
五代十国

- 960~1279
송
宋
- 1279~1368
원
元朝
- 1368~1644
명
明朝

- 1644~1911
청
清
- 1912
중화민국 성립
中华民国成立
- 1949~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中华人民共和国成立

중국역사 中国历史



유용한 관광정보



한국관광정보 중국어 웹사이트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스마트폰 앱과 e-book을 볼 수 있습니다.

chinese.visitkorea.or.kr

한국관광정보 중국어 모바일웹

m.chn.visitkorea.or.kr



K-Books

한국관광공사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한국의 문화 및 관광 관련 간행물을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영어, 일본어, 중국어 로 제작된 간행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K-Books'로 검색



스마트 투어 가이드 Smart Tour Guide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직접 안내해주는 오디오 가이드. Wifi가 가능한 곳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미리 받아두면 통신비 부담 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과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는 지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운로드 방법 'Smart Tour Guide'로 검색

